KOFIC 리포트
2018 - 01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영화진흥위원회 KOFIC 리포트 2018-01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주 관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

발행인 오석근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팩스 (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효민디앤피 / 제작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 17(부전동)
전화 (051)807-5100 팩스 (051)807-0846
홈페이지 www.hyomindnp.com

© 영화진흥위원회, 2018

목차
Contents

1. 개관 ····· 8

2. 본론 ····· 18

가. 극장흥행 ····· 20

1) 관객 수와 입장권 매출액 ····· 20

2) 월별 흥행추이 ····· 22

3) 제작 · 수입 · 개봉편수 및 등급별 현황 ····· 28

4) 국적별 점유율 ····· 32

5) 배급사별 점유율 ····· 33

6) 재개봉 영화 ····· 37

나. 시장집중도 ····· 39

1) 시장집중도 ····· 40

2) 상영 배정의 쏠림 현상(소위 스크린 독과점) ····· 44

3) 극장흥행 결과의 쏠림 현상 ····· 46

다. 독립 · 예술영화 ····· 49

1) 독립 · 예술영화 극장흥행 ····· 49

2) 독립 · 예술영화 인정현황 ····· 52

라.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 ····· 53

1)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 54

2) 인터넷 VOD ····· 56

3) 패키지 시장 ····· 57

마. 해외 진출 ····· 59

1) 완성작 수출 ····· 59

2) 서비스 수출 부문 ····· 63

바.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 ····· 66

사. 한국영화 성(性)인지 통계 ····· 73

아.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 수익률 ····· 82

1)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제작비 ····· 82

2) 한국 '상업영화' 제작비 ····· 85

3) 한국 '상업영화' 추정 수익률 ····· 88

부 록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3. 2017년 국내 영화 시상식 주요부문 수상실적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표 목록
Contents

〈표 1〉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 …… 16
〈표 2〉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 17
〈표 3〉 2008–2017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 20
〈표 4〉 2017년 전국 지역별 관객 수, 매출액, 1인당 관람횟수 …… 21
〈표 5〉 2013–2017년 평균 관람요금 …… 22
〈표 6〉 2017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한국영화, 외국영화 점유율 추이 …… 23
〈표 7〉 2017년 월별 국적별 관객 수 …… 25
〈표 8〉 2017년 전체영화 관객 수 상위 20위 …… 26
〈표 9〉 2017년 한국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 27
〈표 10〉 2017년 외국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 27
〈표 11〉 2017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외국영화 수입편수, 개봉편수 …… 28
〈표 12〉 2017년 등급별 실질개봉작 및 형식적 개봉작 편수 및 비중 …… 29
〈표 13〉 2017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 29
〈표 14〉 2017년 외국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 29
〈표 15〉 2017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관객 수 점유율 … 30
〈표 16〉 2017년 전체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 30
〈표 17〉 2017년 한국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 31
〈표 18〉 2017년 외국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 31
〈표 19〉 2017년 전체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 31
〈표 20〉 2017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상영등급별 관객 수 점유율 …… 31
〈표 21〉 2017년 국적별 점유율 …… 32
〈표 22〉 2013–2017년 배급사별 점유율 …… 33
〈표 23〉 2017년 전체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 35
〈표 24〉 2017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 36
〈표 25〉 2017년 외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 36
〈표 26〉 2013–2017년 재개봉 작품 극장 흥행 추이 …… 37
〈표 27〉 2017년 전체 재개봉 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 38
〈표 28〉 2017년 재개봉 한국영화 …… 38
〈표 29〉 2013–2017년 전체영화 상영시장 시장집중도 …… 40
(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표 30〉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시장 시장집중도 …… 41
(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표 31〉 2013–2017년 한국영화 배급시장 시장집중도 …… 43
(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표 32〉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사별 매출액 기준 점유율 ····· 44
〈표 33〉 2013–2017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매출액 기준 점유율 ····· 44
〈표 34〉 2013–2017년 상영점유율 순위별 분포 ····· 45
〈표 35〉 상영점유율 1위 영화의 점유율별 일수 ····· 45
〈표 36〉 흥행순위별 매출액 기준 누적점유율(전체영화) ····· 46
〈표 37〉 2013–2017년 흥행 상위영화 매출액 점유율(전체영화) ····· 47
〈표 38〉 흥행순위별 누적점유율(한국영화) ····· 48
〈표 39〉 2013–2017년 흥행 상위영화 매출액 점유율(한국영화) ····· 48
〈표 40〉 최근 5년간 독립 · 예술영화 개봉편수 및 관객 수 ····· 49
〈표 41〉 2017년 독립 · 예술영화 개봉편수, 관객 수, 매출액 한국영화 점유율 ··· 49
〈표 42〉 2017년 독립 · 예술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 50
〈표 43〉 2017년 독립 · 예술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한국영화) ····· 51
〈표 44〉 2017년 독립 · 예술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외국영화) ····· 51
〈표 45〉 2017년 독립 · 예술영화 자동승인 및 심사 인정 현황····· 52
〈표 46〉 2013–2017년 전체 디지털 온라인 시장 매출 규모 ····· 53
〈표 47〉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시장 매출 규모 ····· 54
〈표 48〉 2017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전체영화 매출 순위 ····· 55
〈표 49〉 2017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한국영화 매출 순위 ····· 55
〈표 50〉 2017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외국영화 매출 순위 ····· 55
〈표 51〉 인터넷 VOD 시장 매출 규모 ····· 56
〈표 52〉 2017년 N스토어 영화 이용 순위 ····· 57
〈표 53〉 패키지 시장 매출 규모····· 57
〈표 54〉 2013–2017년 해외 매출액(완성작 수출액+서비스 수출액) ····· 59
〈표 55〉 2013–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현황 ····· 60
〈표 56〉 2016–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 현황 ····· 61
〈표 57〉 2016–2017년 주요 15개국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현황 ····· 62
〈표 58〉 2016–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계약 판권 유형 ····· 63
〈표 59〉 2013–2017년 영상 분야 서비스 수출 현황 ····· 63
〈표 60〉 2013–2017년 영상 분야 기술서비스 권역/국가별 수주 현황 ····· 64
〈표 61〉 2015–2017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 65
〈표 62〉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 66
〈표 63〉 2017년 신규 개설 극장····· 67
〈표 64〉 2017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 69
〈표 65〉 2017년 멀티플렉스 비중 ····· 69

표 목록
Contents

〈표 66〉 2017년 3대 멀티플렉스 …… 70
〈표 67〉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중 여성 핵심 창작 인력 참여 작품 편수 75
〈표 68〉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감독 작품별 관객 수 및 매출액 …… 76
〈표 69〉 2013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78
〈표 70〉 2014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78
〈표 71〉 2015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79
〈표 72〉 2016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80
〈표 73〉 2017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81
〈표 74〉 2008–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 83
〈표 75〉 2016–2017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순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 84
〈표 76〉 2013–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 85
〈표 77〉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 86
〈표 78〉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B군) 평균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87
〈표 79〉 2011–2017년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 …… 88
〈표 80〉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 개봉작 수익률 …… 89
〈표 81〉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 90
〈표 82〉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 총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 91

그림 목록
Contents

〈그림 1〉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 추이 …… 17
〈그림 2〉 2008–2017년 한국영화vs외국영화 극장 관객 수 추이 …… 21
〈그림 3〉 2017년 월별 국적별 관객 수 …… 25
〈그림 4〉 2013–2017년 전체영화 상영시장 상위기업집중률 변화 추이 …… 41
〈그림 5〉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시장 상위기업집중률 변화 추이 …… 42
〈그림 6〉 2013–2017년 한국영화 배급시장 상위기업집중률 변화 추이 …… 43
〈그림 7〉 2017년 일별 상영점유율 변화 추이 …… 46
〈그림 8〉 흥행순위별 매출액 현황 및 누적점유율(전체영화) …… 46
〈그림 9〉 흥행순위별 매출액 현황 및 누적점유율(한국영화) …… 48
〈그림 10〉 플랫폼별 매출비중…… 54
〈그림 11〉 2013–2017년 해외매출액(완성작 수출액+기술서비스 수출액) 추이 … 59
〈그림 12〉 2013–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편수 · 수출액(계약총액기준) … 60
〈그림 13〉 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액 비중 …… 62
〈그림 14〉 2013–2017년 영상 분야 서비스 수출 부문별 추이 …… 64
〈그림 15〉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 66

〈그림 16〉 2008–2017년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 71
〈그림 17〉 2016년,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 규모별 10만 명당 평균 스크린 수 …… 72
〈그림 18〉 2008–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총제작비 구성 …… 84
〈그림 19〉 2013–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분포 비율 …… 85
〈그림 20〉 2016–2017 한국 상업영화(B군) 평균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87
〈그림 21〉 2011–2017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추이 …… 89

주요 배급사 약어

씨제이이엔엠(주) : CJ E&M
롯데쇼핑(주)엔터테인먼트 : 롯데
㈜쇼박스 : 쇼박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디즈니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 UPI
메가박스(주)플러스엠 : 메가박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 NEW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 워너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 폭스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 소니

1. 개 관

1. 개 관

2017년도 한국 영화시장 규모는 2조 3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가 3.1%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화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이처럼 규모 확장은 정체된 상황에서 배급경쟁은 더 심화되었고, 3대 극장체인 점유율 97%의 극장시장 독과점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으며,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의 주도세가 2017년도 한 해 동안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시장규모, 작년과 거의 동일

2017년 극장관객수와 입장권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3%, 0.8% 증가했다. 그러나 변화폭은 '증가'라고 얘기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온라인 시장은 확장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성장폭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리고 완성작 해외수출액은 2016년보다 약 7% 줄어들었고, 영화서비스 해외매출은 36.5% 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시장 규모는 2016년과 거의 동일했다.

흥행작 분산, 배급사 간 경쟁 심화

작품흥행 양극화는 다소 완화되었다. 한국영화 흥행 1위-10위 영화 입장권 매출이 전체 한국영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2.0%에서 2017년 58.7%로 줄어들었고, 한국영화 배급사 상위 3개 회사 입장권 매출의 합도 2016년 69.7%에서 63.7%로 감소했다. 그리고 CJ, 쇼박스, 롯데, NEW에 이어 메가박스가 한국영화 5위 투자배급사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의 평균은 2016년 집계수익률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는데, 여전히 순제 80억 원 이상 대작영화의 추정수익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이 구간대 작품의 성공률과 평균 추정수익률은 2016년에 비해 줄었다. 대신 〈범죄도시〉, 〈청년경찰〉, 〈아이 캔 스피크〉의 흥행성공 덕에 순제작비 30억 원~50억 원대 영화의 평균수익률이 조금 상승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흥행률과 수익률의 대작영화 쏠림 상황은 외견상으로는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작영화 일변도 투자관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작품 간 경쟁을 좀 더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영-배급 결합 확대,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의 영화제작 주도 강화 : CJ 그룹, 중앙미디어 그룹

반면, 상영시장 독과점 상황은 2017년에도 견고하게 유지됐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멀티플렉스 체인극장의 매출점유율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97%에 달했다. 증가한 극장(35개 극장 191개 상영관) 중 다수도 이들 멀티플렉스 체인극장(24개 극장 166개 상영관)이었다.

흥행력 있는 한국영화를 공급하는 투자배급사가 늘어나 투자배급시장 내 경쟁은 심화된 반면, 극장시장 3대 메이저 체인극장의 독과점 구조는 그대로인 상황은 배급사 대비 극장 우위의 시장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여지가 크므로, 유의하여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투자배급사로 성장한 NEW가 2017년 경주와 구미에 각각 6개, 5개관의 직영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열면서, 새로운 멀티

플렉스 체인 '씨네Q'가 등장하였다. NEW와 메가박스(플러스엠)의 등장으로 한국영화 투자배급시장 내 경쟁이 활발하게 된 것과 같이 극장시장 경쟁상황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이 한국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점은 빠뜨릴 수 없는 포인트다. CJ그룹은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으로서 20여 년 전부터 영화산업과 방송사업 영역을 키워왔고,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CJ그룹이 지난 1월 19일 발표한 CJ오쇼핑과 CJ E&M 합병은,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Direct-to-Consumer' 영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에 영상을 포함시키는, OTT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JTBC와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지주회사)도 메가박스의 투자배급 부문을 성공시키며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를 분리시켜 별도 법인화하여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W는 드라마 제작유통에 더해 극장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한국 상업영화 대부분의 제작과 상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작년 한해, CJ와 중앙미디어 이 두 복합기업의 극장부문 회사는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투자배급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CGV(아트하우스)는 중저예산 독립예술영화를 중심으로, 메가박스(플러스엠)는 중예산 장르영화 중심으로 투자배급을 확대해 왔는데, 2017년 CGV(아트하우스)와 메가박스(플러스엠)는 각각 3.1%, 11.5%의 배급시장 점유율로 한국영화 배급사 순위 6위와 5위에 각각 올랐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두 회사가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회사이기 때문에 용이했다는 분석이 합리적이다. 자본조달 역량에 더해 흥행성 있는 작품을 선구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겠지만, 자사 배급 영화에 우호적인 상영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경쟁력이 된 것이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취합된 배급사-극장 간 상영배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는 이같은 사실을 증명해 준다.[1)]

1)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극장이 제공한 상영회차는 총 6,261,611회였는데, 이 중 479,481회의 상영회차가 메가박스(플러스엠) 배급 영화에 배정되었다. (6,261,611÷479,481=7.7%,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같은 기간, 메가박스 체인극장에 제공한 상영회차는 1,403,470회였는데, 이 중 125,490회가 자사가 배급한 영화에 배정되었다.(1,403,470÷125,490=8.9%) 특정 배급사에 대한 전체 극장의 평균 상영회차 배정률(배급사 메가박스 플러스엠의 배정률 7.7%)을 1로 놓고 그 배급사에 대한 특정 극장체인의 상영회차 배정률(배급사 메가박스플러스엠에 대한 극장 메가박스의 배정률 8.9%)의 상대적 크기값을 계산한 값을 특정 배급사에 대한 특정 극장체인의 '상영배정지수'라 부른다. 2017년 극장 메가박스의 배급사 메가박스에 대한 상영배정지수는 1.168이다. 그리고 2017년 극장 CGV의 배급사 CGV에 대한 상영배정지수는 1.138로 계산되었다 '상영배정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 〈한국영화〉 2016년 12월호 "숫자로 극장읽기" 참조

한국영화 산업 변화, OTT 몫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영화시장은 소수의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 중심으로 2조 원대 매출, 2억 명 극장관객수를 불러 모으는 규모로 모양새를 굳혀가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의 IPTV와 디지털케이블 TV의 영화매출 증가가 한 자리 수로 감소하면서, 이제 한국 영화산업이 변화를 기대할 곳은 OTT업계가 거의 유일하다. OTT 영역에서는 현재 포털, 이동통신사, CJ, 넷플릭스 등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수년 내에 업계 내 구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 위주로 짜여 있는 영화산업 구조가 점점 더 견고해지면서 영화상영이 더욱 더 시장성 위주로 재빠르게 조정되고 있는 추세다. 그것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의식적으로 관람하는 관객층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과 공공재원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단기적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관료체계를 통제하며 수행된 정치의 예술검열이 수년간 지속된 결과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창작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 그나마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창작자들에게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비교적 다양하게 제공했던 영화제들도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2017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극장상영 결과는 사실상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2017년은 여전히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게 어려운 한 해였다.

2018년 영화정책의 방향

소수의 콘텐츠·미디어 복합기업에 의해 한국영화 제작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영화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도, 한국영화의 예술적 문화적 사회기여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여러 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상영-배급 겸영 금지와 상영편성 제한,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여기에 대한 입법 차원의 대처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창작자와 제작참여자들 다수에게는 영화업이 불안정한 직업인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독과점 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는 여전히 시장에서도 공공 지원에서도 예술창작의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를 허락받고 있지 못한 상황도 영화정책이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시장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고 공공 지원도 중앙 정부와 기구의 의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소수의 결정권자에 의해 영화 예술창작의 기회가 부여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안한 구조인 것이다. 어떤 작품의 창작여부를 정하는 결정권자의 폭이 가능한 한 넓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정책이 기본으로 삼아야 할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성기에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영화 창작·제작·배급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시행이 시급하다. 그 선두에 선 과제가 영화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이다. 온라인 영화유통 정산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영화 제작·창작·배급업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상력 균형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디어 플랫폼이 창작·제작·배급자들을 압도하지 않게 하는 제도, 이것이 유럽의 영화예술과 산업에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영화영상 정책의 핵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수의 독과점 사업자이기 마련이고 영화영상 공급자는 다수의 중소규모 회사이기 마련이니 양자 간의 계약은 구조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 체결될 것임을 전제로, 프랑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재원 또는 수익에 일정 비율의 기금을 부과하여 영화영상 창작·제작·배급자, 그리고 독과점 기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가 유럽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설 수 있게 만들고, 칸 영화제를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 및 유지시킨 프랑스 문화예술 산업 저력의 밑받침이다.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확신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미디어 플랫폼 독과점 기업이 영화 창작·제작자와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이 지속가능한 영화산업, 문화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주요 내용

| 극장흥행 |

2017년 극장 시장은 관객 수 2억 1,9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매출액은 1조 7,566억 원으로 0.8% 증가했다. 관객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한국영화 관객 수는 2.7% 감소한 1억 1,390만 명을 기록했으며 관객 점유율은 51.8%를 기록했다.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는 4.25회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극장 시장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저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CJ E&M은 15년째 배급사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고, 롯데가 2위로 급등했다. 메가박스(주)플러스엠은 한국영화 배급사 점유율 5위로 올라 한국영화 주요 배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 시장집중도 |

2017년 상영시장은 큰 변화 없이 상위 1개사(CR1)가 약 50%, 상위 3개사(CR3)가 97%를 점유하는 높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냈으며(HHI 지수 3,610), 향후에도 큰 변화 가능성은 없다.

배급시장은 배급사들의 라인업이 비교적 골고루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호전된 면이 있다(CR1 15.0%, CR3 36.9%, HHI 864). 그러나 한국영화 배급시장 집중도는 전체시장보다 상당히 높다(CR1 25.2%, CR3 63.8%, HHI 1,692).

일별 상영점유율을 통해 상영 배정상의 쏠림 현상을 보면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시장은 평균적으로 1위 영화가 전국 극장의 30%, 2위 영화가 20%, 3위 영화가 10%를 가져가고 나머지 40% 정도가 다른 영화들에 돌아가는 시장으로 나타났다.

극장흥행 결과의 쏠림 현상을 보면 1위 영화 흥행결과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한 비율은 5.6%, 10위까지의 영화들이 차지한 비율은 33.2%, 20위까지가 50.7%로 나타나, 상위 소수 상품들의 매출액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2 대 8 법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영화만 따로 보면 흥행의 쏠림은 더 높아져서 20위까지가 80.5%에 달했다.

| 디지털 온라인 시장 |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TV의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되어, 디지털 온라인 시장 총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4,362억 원을 기록했다. 인터넷 VOD 시장은 전년 대비 10.7% 성장했고, 패키지 시장은 32.3% 감소했다. 극장흥행 순위 5위를 차지했던 〈범죄도시〉는 TV VOD에서

약 1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그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겨울왕국〉을 앞질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옥자〉는 극장 배급 관련 이슈 등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나, 인터넷 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 경우,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소비패턴과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진출 |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과 서비스 수출 금액을 합친 한국영화 해외 매출액은 11,8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늘어났다. 완성작 수출액은 전년 대비 7.2%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출액은 36.5% 늘어나 서비스 수출액이 완성작 수출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기록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OTT 사업자의 한국영화 구매가 활발하게 이어져 완성작 수출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서비스 수출액은 VFX 업체의 중국 대작 수주로 전년 대비 81.8%나 증가한 7,806만 달러를 기록했다.

|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 |

전국 극장은 전년도 417개에서 35개 늘어난 452개, 스크린 수는 191개 늘어난 2,766개로 증가했다. 신규 개설 극장 중 24개가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직영 및 위탁관이었다. 배급사 NEW의 씨네Q가 경주와 구미에 신규 개설되었고, 작은 영화관 또한 6곳 새로 문을 열었다.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수는 전체의 94.2%를 차지하며, 매출점유율은 98.4%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는 작년보다 증가한 5.3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극장 개설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 성(性)인지통계 |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부터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를 포함한다. 감독, 제작자, 작가, 촬영 감독 등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은 5~20% 정도로, 2017년 상업영화 중 여성감독 연출 작품은 83편 중 7편(8.4%), 여성 주연 작품은 66편 중 17편(25.8%)에 그쳤다.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통계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 수익률 |

2017년도 제작비 조사 대상작 174편의 순제작비와 마케팅비 총합은 4,582억 원(2016년 4,264억 원),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26.3억 원(2016년 2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상업영화' 83편의 추정수익률은 4.7%, 이 가운데 순제작비 30억 이상 또는 300개관 이상 상영관에서 상영된 작품 56편의 추정수익률은 8.2%로 분석되었다. 2012년 한국영화 수익률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현재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예산 영화'의 2016년 대비 흥행부진으로 수익률이 전년도(17.6%)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다. 반면 순제작비 30억~50억 원 규모의 중예산 영화의 수익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제작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의 상승률이 전체 수익률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2017년 전체 평균 수익률의 하락을 완화시키고 흑자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표 1〉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

(단위 : 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극장 매출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부가 시장		2,224	888	1,109	1,709	2,158	2,676	2,971	3,349	4,125		4,362
해외 매출	(억 원)[2]	230	155	462	382	414	651	664	628	완성작	509	460
										서비스	664	883
										소계	1,173	1,343
	(만 불)[3]	2,104	1,412	4,222	3,487	3,782	5,946	6,308	5,550	완성작	4,389	4,073
										서비스	5,720	7,806
										소계	10,109	11,879
계		12,248	11,984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22,730		23,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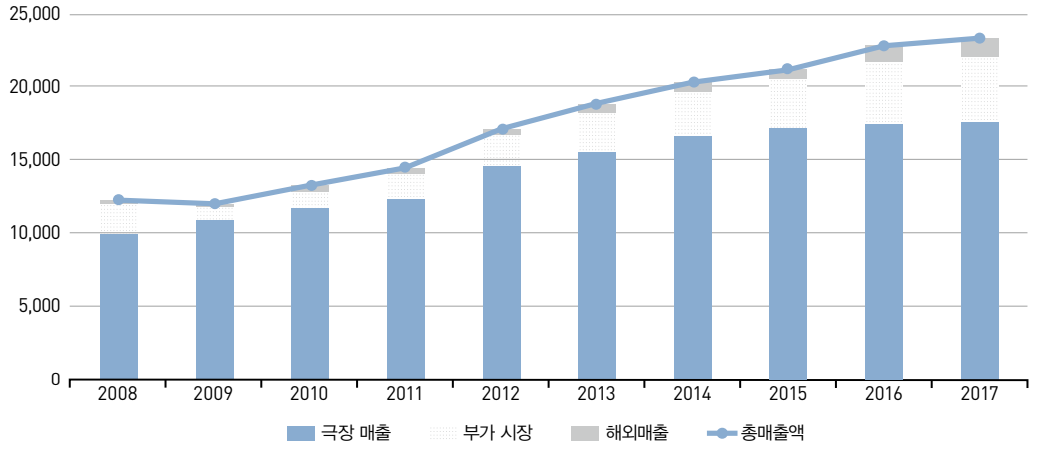
2) 2016년 통계부터 해외매출의 완성작 수출, 서비스 수출액을 구분해 기재함
3) 해외수출액 원화 환산 시 적용 환율은 1USD = 1,130.84원(2017년 평균 매매기준율 적용)

〈표 2〉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객 수 (만 명)	총 관객 수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한국영화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점유율	42.1%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외국영화	8,728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점유율	57.9%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48.2%
개봉 편수 (편)[4]	한국영화 (실질개봉)	108	118	140	150	175	183	217	232	302 (167)	376 (164)
	외국영화 (실질개봉)	272	243	286	289	456	722	878	944	1,218 (411)	1,245 (456)
전국 스크린 수(개)		2,004	2,055	2,003	1,974	2,081	2,184	2,281	2,424	2,575	2,766
전국 극장 수(개)		309	305	301	292	314	333	356	388	417	452
1인당 관람횟수(회)[5]		3.04	3.15	2.92	3.15	3.83	4.17	4.19	4.22	4.20	4.25
한국영화 수익률[6]		–43.5%	–13.1%	–11.0%	–16.5%	15.9%	16.8%	7.6%	4.0%	17.6% (21.8%)	4.7% (8.2%)

〈그림 1〉 2008–2017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 추이

(단위 : 억 원)



4) 2017년부터 연간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 작품(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 상영회차가 약 40회)을 실질개봉으로 보아 실질 개봉편수를 별도 집계하였다.

5) 글로벌 산업조사 기관인 IHS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는 아이슬란드가 4.3회, 싱가포르 3.9회, 호주 3.7회, 미국 3.5회, 홍콩 3.5회 기록

6) 2011년 이후의 '수익률'은 실제 투입된 투자액 대비 거둬들인 수익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총제작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였음. 또한, 2017년 추정수익률의 괄호 안 수치는 '상업영화' 중에서도 좀 더 상업성이 높은 영화(300개관 이상 개봉 또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작품)를 추출하여 산출한 수익률임. (상세 내용은 84 p 참조)

2. 본 론

2. 본 론

가. 극장흥행

1) 관객 수와 입장권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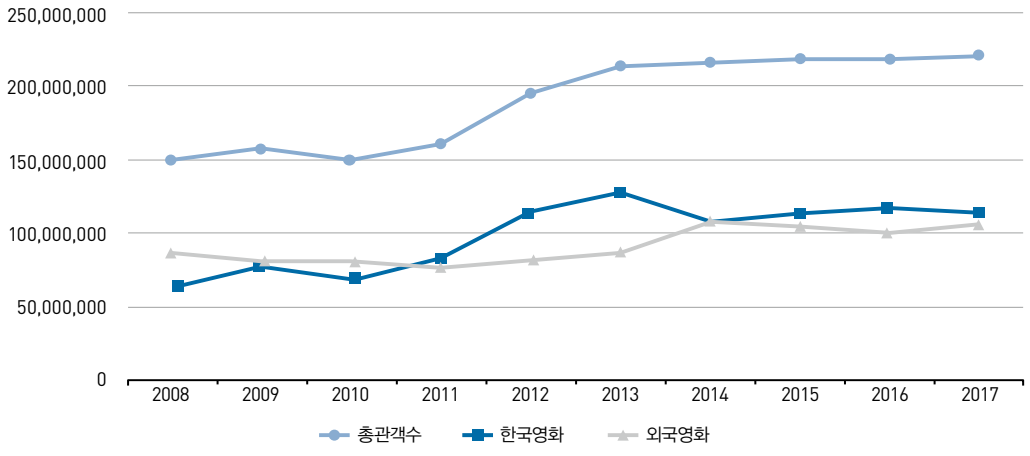
2017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2억 1,9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전체 극장 관객 수가 2016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들어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경신했다. 전체 극장 매출액은 1조 7,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영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1억 1,390만 명을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6년 연속 1억 관객을 돌파했다. 한국영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9,027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은 전년 대비 1.9%p 감소한 51.8%를 기록해 2011년 이후 7년 연속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영화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억 597만 명을 기록했고, 외국영화 관객 상승분이 한국영화 관객 감소분을 상쇄하며 전체 관객 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영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8,539억 원을 기록했다. 외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전년 대비 1.9%p 증가한 48.2%를 나타냈다.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전년 대비 0.05회 늘어난 4.25회였다.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보조사 기관인 IHS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는 아이슬란드 4.3회, 싱가폴 3.9회, 호주 3.7회, 미국 3.5회 순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7)]

〈표 3〉 2008–2017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극장 매출 (억 원)	전체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증감률	–1.3%	11.7%	6.8%	5.8%	17.8%	6.6%	7.3%	3.1%	1.6%	0.8%
	한국영화	4,126	5,318	5,125	6,137	8,361	9,099	8,206	8,796	9,279	9,027
	증감률	–16.5	28.9%	–3.6%	19.8%	36.2%	8.8%	–9.8%	7.2%	5.5%	–2.7%
	외국영화	5,668	5,623	6,559	6,221	6,190	6,414	8,435	8,358	8,153	8,539
	증감률	13.9%	–0.8%	16.7%	–5.1%	–0.5%	3.6%	31.5%	–0.9%	–2.5%	4.7%
관객 수 (만 명)	총 관객 수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증감률	–5.0%	4.1%	–5.0%	7.1%	22.0%	9.5%	0.8%	1.0%	–0.1%	1.3%
	한국영화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증감률	–20.0%	20.2%	–9.2%	19.4%	38.3%	11.1%	–15.4%	4.9%	3.2%	–2.3%
	점유율	42.1%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외국영화	8,728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증감률	9.9%	–7.7%	–1.0%	–3.7%	4.5%	7.2%	24.8%	–2.8%	–3.7%	5.5%
	점유율	57.9%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48.2%
1인당 관람횟수(회)		3.04	3.15	2.92	3.15	3.83	4.17	4.19	4.22	4.20	4.25

7) IHS 집계 기준 한국의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4.3회로 아이슬란드와 함께 세계 1위이다.

〈그림 2〉 2008–2017년 한국영화vs외국영화 극장 관객 수 추이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연간 극장 관객 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관객 수가 전국 관객 수의 26.4%인 5,80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5,118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시가 1,642만 명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광역단체별 인구 1인당 관람횟수 역시 서울특별시가 5.89회로 가장 높았다. 광주광역시가 5.54회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은 관람횟수를 나타내었다.

〈표 4〉 2017년 전국 지역별 관객 수, 매출액, 1인당 관람횟수

광역시도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극장 매출(원)	매출 점유율	평균 관람료(원)	인구 수(명)	1인당 관람횟수(회)
서울시	58,092,333	26.4%	482,744,673,489	27.5%	8,310	9,857,426	5.89
경기도	51,184,411	23.3%	411,943,844,176	23.5%	8,048	12,873,895	3.98
부산시	16,417,419	7.5%	130,792,946,648	7.4%	7,967	3,470,653	4.73
대구시	11,615,629	5.3%	94,150,240,250	5.4%	8,105	2,475,231	4.69
경상남도	11,589,491	5.3%	89,041,608,700	5.1%	7,683	3,380,404	3.43
인천시	11,351,718	5.2%	90,622,508,050	5.2%	7,983	2,948,542	3.85
광주시	8,104,842	3.7%	61,985,564,200	3.5%	7,648	1,463,770	5.54
대전시	7,582,269	3.4%	60,713,473,350	3.5%	8,007	1,502,227	5.05
전라북도	6,684,347	3.0%	50,404,432,000	2.9%	7,541	1,854,607	3.60
경상북도	6,583,078	3.0%	50,709,470,150	2.9%	7,703	2,691,706	2.45
충청남도	7,130,810	3.2%	54,786,220,850	3.1%	7,683	2,116,770	3.37
충청북도	5,718,356	2.6%	43,291,727,200	2.5%	7,571	1,594,432	3.59
강원도	5,411,578	2.5%	40,774,765,100	2.3%	7,535	1,550,142	3.49
울산시	4,683,981	2.1%	37,509,589,300	2.1%	8,008	1,165,132	4.02
전라남도	4,518,637	2.1%	31,987,815,100	1.8%	7,079	1,896,424	2.38
제주도	2,263,104	1.0%	17,889,815,750	1.0%	7,905	657,083	3.44
세종시	942,989	0.4%	7,223,380,200	0.4%	7,660	280,100	3.37
합계	219,874,992	100.0%	1,756,572,074,513	100.0%	7,989	51,778,544	4.25

* 인구수는 2017년 12월 31일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2017년 평균 관람요금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7,989원이었다. 2014년 이후 시간대별·좌석별 요금 차별화가 이뤄지면서 평균 관람요금이 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에 사상 처음 8천 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평균 관람요금이 감소해 다시 7천 원대로 돌아왔다. 2017년 평균 관람요금이 감소한 것은 3D, IMAX, IMAX 3D, 4D 등의 특수 상영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의 경우, 흥행 상위권 영화 중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가 81만 명(102억 2천만 원)[8], 〈닥터 스트레인지〉가 75만 명(100억 원), 〈신비한 동물사전〉이 54만 명(67억 8천만 원)이 특수 상영 관객이었다. 반면, 2017년에는 〈스파이더맨: 홈 커밍〉이 39만 명(49억 3천만 원), 〈토르: 라그나로크〉가 28만 명(31억 4천만 원), 〈킹스맨: 골든 서클〉이 26만 명(30억 9천만 원)을 동원한 데 그쳤고 전체 특수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1.3% 감소했다. 또한 주요 극장 체인에서 관객 확대를 위한 어린이 요금을 도입했고, '문화가 있는 날' 등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영화를 선택한 관객들의 증가도 평균관람요금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2013–2017년 평균 관람요금

연도	관객 수(만 명)	매출(억 원)	전체영화 평균관람료(원)	한국영화 평균관람료(원)	외국영화 평균관람료(원)
2017	21,987	17,566	7,989	7,925	8,058
2016	21,702	17,432	8,032	7,961	8,115
2015	21,729	17,154	7,895	7,789	8,009
2014	21,506	16,641	7,738	7,619	7,857
2013	21,335	15,513	7,271	7,148	7,453

2) 월별 흥행추이

상영 쏠림이 해를 더할수록 심화되어감에 따라 최종 관객 수에 도달하기까지의 상영 기간도 짧아지고 있고, 이에 더해 한국 대작영화와 할리우드 프랜차이즈가 시즌별로 상영시장을 나눠 갖는 배급 패턴 또한 공고한 상태다. 2017년 역시 겨울 성수기, 설날, 여름 성수기, 추석,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흥행 시즌은 한국영화가 주도하고, 나머지 한국영화의 비수기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를 위시한 외국영화가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8) 영화의 특수관 관객 수·매출액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상영타입별 누적통계 기준임

〈표 6〉 2017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한국영화, 외국영화 점유율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한국영화 관객 수(명)	12,682,486	8,899,613	4,369,447	4,284,843	6,470,245	4,909,675	6,862,646	21,381,562	5,986,904	12,963,729	6,426,665	18,667,012	113,904,827
월별 점유율	54.5%	58.6%	31.5%	38.2%	34.6%	32.5%	32.1%	71.5%	47.1%	60.1%	48.8%	78.2%	
분기별 점유율	49.6%			34.8%			53.5%			64.9%			51.8%
반기별 점유율	42.8%						59.0%						
외국영화 관객 수(명)	10,569,684	6,281,815	9,486,001	6,929,349	12,209,961	10,194,164	14,494,519	8,503,801	6,733,189	8,622,242	6,729,502	5,215,938	105,970,165
월별 점유율	45.5%	41.4%	68.5%	61.8%	65.4%	67.5%	67.9%	28.5%	52.9%	39.9%	51.2%	21.8%	
분기별 점유율	50.4%			65.2%			46.5%			35.1%			48.2%
반기별 점유율	57.2%						41.0%						
전체관객 수(명)	23,252,170	15,181,428	13,855,448	11,214,192	18,680,206	15,103,839	21,357,165	29,885,363	12,720,093	21,585,971	13,156,167	23,882,950	219,874,992

2017년 1월 〈공조〉(782만 명)[9]와 〈더 킹〉(532만 명)의 흥행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이어진 겨울 극장가의 휴먼 드라마 붐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범죄 액션 영화의 전성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 개봉한 일본영화 중 흥행 1위를 차지한 감성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364만 명)의 1월 흥행은 액션과 범죄 장르 영화에 편중되는 한국영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감성이 돋보이는 외국영화가 각광받게 되는 경향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사이에 뚜렷이 구분 지어지는 흥행 트렌드가 집약된 1월의 전체 관객 수는 2,325만 명으로, 2014년 1월(2,360만 명)에 이어 1월 관객 수로는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월에는 총제작비 50억 원대의 중·저예산 영화인 〈재심〉이 242만 명의 최종 관객을 기록하며 작은 영화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봄·가을 한국영화의 비수기를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가 장악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고 봄 시즌이 시작되기 전의 2월이 중·저예산 영화의 보루가 되고 있다.

봄 시즌이 시작되는 3월에 들어서면서 〈로건〉(217만 명)과 〈미녀와 야수〉(514만 명)를 필두로 외국영화의 우세가 시작되었다. 외국영화는 3월 전년 동월 대비 31.1% 증가한 949만 명(관객 점유율 68.5%)을 기록했고, 외국영화 관객 수가 늘면서 3월 전체 관객 수도 역대 최다인 1,386만 명을 기록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19대 대선으로 이어진 황금연휴로 수요가 증가한

9) 영화의 관객 수는 2017년 기준 최종 관객 수임

덕분에 외국영화 관객 수가 1,221만 명(관객 점유율 65.4%)으로 역대 5월 외국영화 관객 수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전체 관객 수 또한 1,868만 명으로 역대 5월 전체 관객 수로는 최고치를 나타냈다.

6월과 7월은 관습화되어가는 한국영화에 대한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된 시기였다. 과거 6월은 저예산 공포 영화나 중급 규모의 영화들이 여름 성수기 전 틈새 흥행을 노려볼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최근 한국영화가 대작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100억 원대의 총제작비를 들인 〈대립군〉(5월 31일 개봉, 84만 명)과 〈리얼〉(6월 28일 개봉, 47만 명)이 6월에 개봉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습만 있고 이야기는 없었던 이들 대작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고, 여름 성수기 최고 기대작이었던 〈군함도〉(659만 명) 또한 개봉과 동시에 역사 왜곡과 상영 쏠림 논란에 휩싸인 탓에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대작 영화의 부진과 중급 영화의 부재로 7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2012년 이후 최저치인 686만 명(관객 점유율 32.1%)을 기록했다. 한국영화에 공백이 생기면서 〈스파이더맨: 홈 커밍〉은 무려 14일간 50% 이상의 상영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었고, 726만 명을 모아 2017년 외국영화 흥행순위 1위에 올랐다. 7월 외국영화는 1,449만 명(관객 점유율 67.9%)을 동원해 역대 7월 외국영화 관객 수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영화는 비수기가 시작된 3월 이후 줄곧 30%대의 낮은 관객 점유율에 머물다 8월 텐트폴 영화 〈택시운전사〉(1,219만 명)와 〈청년경찰〉(565만 명)의 흥행으로 8월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71.5%(2,138만 명)로 반등했다. 9월에 들어서면서 한국영화 점유율은 다시 47.1%(599만 명)로 떨어졌으나, 여름 성수기 이후, 추석 연휴 직전의 9월은 〈살인자의 기억법〉(266만 명)과 〈아이 캔 스피크〉(328만 명) 같은 중·소규모의 영화들에게 틈새시장이 되었다.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로 10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1,296만 명, 관객 점유율 60.1%로 역대 10월 한국영화 관객 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체 관객 수 또한 역대 10월 관객 수로는 최다인 2,159만 명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사극 〈남한산성〉(385만 명)이 추석 흥행 장르답게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으나, 연휴 후반 입소문을 바탕으로 〈범죄도시〉(688만 명)가 역전을 이뤄내 〈남한산성〉을 누르고 10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9월 〈살인자의 기억법〉, 10월 〈범죄도시〉에 이어 11월 또다시 범죄 영화 〈꾼〉(402만 명)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2017년 한국영화 시장에서의 범죄영화 열풍을 실감케 했다. 추석과 겨울 성수기 사이인 11월을 맞아 〈침묵〉(49만 명), 〈7호실〉(35만 명), 〈미옥〉(24만 명) 등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개봉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토르: 라그나로크〉(485만 명)가 11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해, 외국영화 관객 수 673만 명, 관객 점유율 51.2%로 다시금 한국영화 점유율을 앞질렀다. 이렇듯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가 봄 시즌뿐 아니라 가을 시즌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규모 한국영화가 흥행을 노려볼 수 있는 틈새시장은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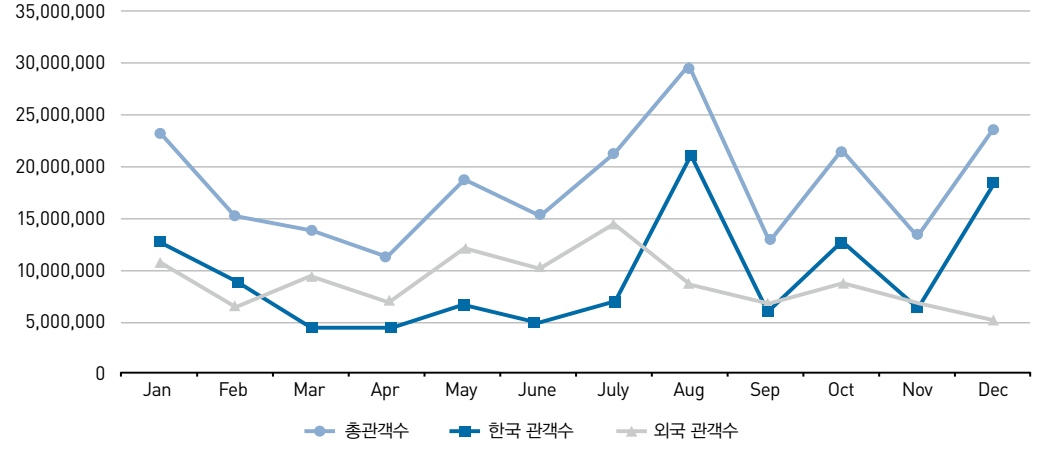
11월까지 침체기에 빠져있던 한국영화는 12월 겨울 성수기에 들어 12월 한국영화 관객 수로는 역대 최다인 1,867만 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텐트폴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10]은 854만 명을 동원해 12월 관객 수 상승을 견인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을 뿐 아니라, 부성애가 강조되었던 기존

한국영화들과 달리 모성 신파를 테마로 삼은 〈신과 함께–죄와 벌〉이 한국영화의 새로운 흥행 경향을 점쳐볼 수 있게 했다면, 〈강철비〉(401만 명)[11]와 〈1987〉(194만 명)[12]은 '남북문제'와 '사회비판'이라는 기존의 흥행 코드를 재확인시켜주는 사례였다.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개봉한 기대작들의 흥행으로 12월 한국영화는 78.2%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다.

〈표 7〉 2017년 월별 국적별 관객 수

월	한국				외국				전체		
	개봉 편수	상영 편수	관객 수(명)	점유율	개봉 편수	상영 편수	관객 수(명)	점유율	개봉 편수	상영 편수	관객 수(명)
2017-01	29	96	12,682,486	54.5%	103	251	10,569,684	45.5%	132	347	23,252,170
2017-02	29	113	8,899,613	58.6%	96	255	6,281,815	41.4%	125	368	15,181,428
2017-03	23	120	4,369,447	31.5%	114	326	9,486,001	68.5%	137	446	13,855,448
2017-04	24	124	4,284,843	38.2%	79	282	6,929,349	61.8%	103	406	11,214,192
2017-05	27	121	6,470,245	34.6%	123	311	12,209,961	65.4%	150	432	18,680,206
2017-06	42	126	4,909,675	32.5%	122	298	10,194,164	67.5%	164	424	15,103,839
2017-07	21	157	6,862,646	32.1%	90	292	14,494,519	67.9%	111	449	21,357,165
2017-08	40	127	21,381,562	71.5%	109	298	8,503,801	28.5%	149	425	29,885,363
2017-09	37	162	5,986,904	47.1%	121	354	6,733,189	52.9%	158	516	12,720,093
2017-10	23	134	12,963,729	60.1%	88	309	8,622,242	39.9%	111	443	21,585,971
2017-11	46	199	6,426,665	48.8%	105	338	6,729,502	51.2%	151	537	13,156,167
2017-12	35	179	18,667,012	78.2%	95	319	5,215,938	21.8%	130	498	23,882,950
합계	376	–[13]	113,904,827	51.8%	1,245	–	105,970,165	48.2%	1,621	–	219,874,992

〈그림 3〉 2017년 월별 국적별 관객 수



10) 2018.2.8. 기준 극장 상영 중, 누적관객 수 14,262,220명
11) 2018.2.8. 기준 누적관객 수 4,451,137명
12) 2018.2.8. 기준 극장 상영 중, 누적관객 수 7,204,473명
13) 상영편수는 해당 월에 상영된 모든 편수의 수치로, 누적 합산하지 않음

〈표 8〉 2017년 전체영화 관객 수 상위 2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국적	최대 상영점유율	개봉 1주 평균 상영점유율	관객 수(명)	매출액(원)	배급사
1	택시운전사	08. 02	15세	한국	48.2%	44.3%	12,186,327	95,853,645,649	쇼박스
2	신과 함께 – 죄와 벌*	12. 20	12세	한국	47.0%	44.5%	8,539,600	68,351,379,932	롯데
3	공조	01. 18	15세	한국	33.8%	24.2%	7,817,631	63,783,138,326	CJ E&M
4	스파이더맨 : 홈 커밍	07. 05	12세	미국	63.0%	60.0%	7,258,678	59,125,813,820	소니
5	범죄도시	10. 03	청불	한국	31.0%	19.1%	6,879,844	56,318,038,149	메가박스/키위
6	군함도	07. 26	15세	한국	55.8%	54.1%	6,592,151	50,510,565,168	CJ E&M
7	청년경찰	08. 09	15세	한국	32.1%	28.0%	5,653,270	44,381,150,516	롯데
8	더 킹	01. 18	15세	한국	33.9%	32.7%	5,317,383	43,487,099,535	NEW
9	미녀와 야수	03. 16	전체	미국	47.1%	41.4%	5,138,330	42,133,769,579	디즈니
10	킹스맨 : 골든 서클	09. 27	청불	영국	47.6%	44.0%	4,945,484	40,987,484,736	폭스
11	토르 : 라그나로크	10. 25	12세	미국	48.6%	47.3%	4,853,778	39,227,691,395	디즈니
12	꾼	11. 22	15세	한국	40.8%	38.9%	4,018,035	31,312,029,795	쇼박스
13	강철비**	12. 14	15세	한국	38.0%	33.6%	4,014,295	31,994,962,566	NEW
14	남한산성	10. 03	15세	한국	29.6%	28.7%	3,849,087	31,225,083,792	CJ E&M
15	미이라	06. 06	15세	미국	40.7%	38.8%	3,689,325	30,504,689,978	UPI
16	분노의 질주 : 더 익스트림	04. 12	15세	미국	43.4%	41.5%	3,653,238	29,981,156,348	UPI
17	너의 이름은.	01. 04	12세	일본	23.0%	19.8%	3,637,599	29,251,748,156	메가박스
18	슈퍼배드 3	07. 26	전체	미국	22.2%	19.7%	3,324,874	24,217,091,019	UPI
19	아이 캔 스피크	09. 21	12세	한국	34.0%	31.8%	3,279,296	25,526,451,186	롯데
20	캐리비안의 해적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05. 24	12세	미국	42.9%	39.2%	3,049,894	24,975,495,122	디즈니

※ 확장판, 감독판 등의 관객 수와 매출액을 합산한 수치임
※ 기존의 스크린 수로는 상영 쏠림 등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영 점유율로 대체함
※ 최대 상영 점유율은 상영기간 중 최대 상영 점유율임
※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은 개봉 이후 7일간의 평균 상영 점유율임
* 2018.2.8. 기준 극장 상영 중, 누적관객 수 14,262,220명
** 2018.2.8. 기준 누적관객 수 4,451,137명

〈표 9〉 2017년 한국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감독	개봉일	등급	최대 상영점유율	개봉 1주 평균 상영점유율	관객 수(명)	매출액(원)	제작사	배급사
1	택시운전사	장훈	08. 02	15세	48.2%	44.3%	12,186,327	95,853,645,649	더램프㈜	쇼박스
2	신과 함께 – 죄와 벌*	김용화	12. 20	12세	47.0%	44.5%	8,539,600	68,351,379,932	리얼라이즈픽쳐스㈜, ㈜덱스터스튜디오	롯데
3	공조	김성훈	01. 18	15세	33.8%	24.2%	7,817,631	63,783,138,326	㈜제이케이필름, 씨제이이앤엠, ㈜영화사 이창,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	CJ E&M
4	범죄도시	강윤성	10. 03	청불	31.0%	19.1%	6,879,844	56,318,038,149	㈜홍필름,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키위
5	군함도	류승완	07. 26	15세	55.8%	54.1%	6,592,151	50,510,565,168	㈜외유내강	CJ E&M
6	청년경찰	김주환	08. 09	15세	32.1%	28.0%	5,653,270	44,381,150,516	㈜무비락, ㈜도서관엽스튜디오, 베리굿스튜디오㈜	롯데
7	더 킹	한재림	01. 18	15세	33.9%	32.7%	5,317,383	43,487,099,535	㈜우주필름	NEW
8	꾼	장창원	11. 22	15세	40.8%	38.9%	4,018,035	31,312,029,795	㈜영화사두둥	쇼박스
9	강철비**	양우석	12. 14	15세	38.0%	33.6%	4,014,295	31,994,962,566	㈜와이웍스엔터테인먼트, ㈜모팩앤알프레드	NEW
10	남한산성	황동혁	10. 03	15세	29.6%	28.7%	3,849,087	31,225,083,792	㈜싸이런픽쳐스	CJ E&M

※ 확장판, 감독판 등의 관객 수와 매출액을 합산한 수치임
※ 기존의 스크린 수로는 상영 쏠림 등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영 점유율로 대체함
※ 최대 상영 점유율은 상영기간 중 최대 상영 점유율임
※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은 개봉 이후 7일간의 평균 상영 점유율임
* 2018.2.8. 기준 극장 상영 중, 누적관객 수 14,262,220명
** 2018.2.8. 기준 누적관객 수 4,451,137명

〈표 10〉 2017년 외국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최대 상영점유율	개봉 1주 평균 상영점유율	관객 수(명)	매출액(원)	배급사
1	스파이더맨 : 홈 커밍	07. 05	12세	63.0%	60.0%	7,258,678	59,125,813,820	소니
2	미녀와 야수	03. 16	전체	47.1%	41.4%	5,138,330	42,133,769,579	디즈니
3	킹스맨 : 골든 서클	09. 27	청불	47.6%	44.0%	4,945,484	40,987,484,736	폭스
4	토르: 라그나로크	10. 25	12세	48.6%	47.3%	4,853,778	39,227,691,395	디즈니
5	미이라	06. 06	15세	40.7%	38.8%	3,689,325	30,504,689,978	UPI
6	분노의 질주 : 더 익스트림	04. 12	15세	43.4%	41.5%	3,653,238	29,981,156,348	UPI
7	너의 이름은.	01. 04	12세	23.0%	19.8%	3,637,599	29,251,748,156	메가박스
8	슈퍼배드 3	07. 26	전체	22.2%	19.7%	3,324,874	24,217,091,019	UPI
9	캐리비안의 해적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05. 24	12세	42.9%	39.2%	3,049,894	24,975,495,122	디즈니
10	덩케르크	07. 20	12세	41.1%	34.2%	2,788,732	24,550,541,348	워너

※ 확장판, 감독판 등의 관객 수와 매출액을 합산한 수치임
※ 기존의 스크린 수로는 상영 쏠림 등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영 점유율로 대체함
※ 최대 상영 점유율은 상영기간 중 최대 상영 점유율임
※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은 개봉 이후 7일간의 평균 상영 점유율임

3) 제작·수입·개봉편수 및 등급별 현황

매년 개봉편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에 개봉일이 등록되고, 개봉작으로 판단 가능한 극장 상영 기록이 있는 영화를 개봉영화로 집계하였으나, 2012년 이후 온라인 VOD 서비스를 겨냥한 형식적인 극장 개봉 편수가 증가하면서 개봉편수가 급증할 뿐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작품의 개봉편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통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보다 정확한 상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질적 극장 개봉에 대한 기준[14]을 적용하여 형식적 극장 개봉 편수를 제외한 통계를 산출하였다. 2016년 결산보고서까지 집계된 기준과 동일한 등급별 통계는 〈표 17〉부터 〈표 20〉까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년의 전체 개봉편수는 1,621편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질적 개봉편수는 총 620편으로 전체 개봉편수의 38.2%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개봉편수 중 858편이 청소년 관람불가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실질적 개봉편수 중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가 220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높은 가격으로 온라인 VOD로 서비스하고자 극장 개봉 기록을 발생시킨 성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은 전체 개봉 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관객 수나 매출액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표 11〉 2017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외국영화 수입편수, 개봉편수

등급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제작편수	개봉편수		수입편수	개봉편수		제작편수/수입편수	개봉편수	
		전체	실질개봉		전체	실질개봉		전체	실질개봉
전체관람가	41	27	26	151	124	111	192	151	137
12세이상관람가	51	38	37	199	166	136	250	204	173
15세이상관람가	82	75	70	424	333	150	506	408	220
청소년관람불가	262	236	31	663	622	59	925	858	90
제한상영가[15]	0	0	0	0	0	0	0	0	0
계	436	376	164	1,437	1,245	456	1,873	1,621	620

※ 상기 등급별 제작, 수입 편수는 2017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편수'를 바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2017년 한 해 동안의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외국영화 수입편수'로 보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 활용 시 판단이 필요함
※ 수입영화 중 재개봉영화의 경우, 국내 판권 만료 등의 이유로 수입사가 변경되어 재수입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은 수치에 포함시킴
※ 상기 등급별 제작, 수입 편수는 2017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완료 작품 중 40분 이상 작품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내용 등의 수정으로 인한 재심과 3D판, 더빙판, 감독판, 무삭제판, Screen X, 확장판 등에 대한 등급분류 수치는 제외하였음

14) 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의 상영회차 약 40회 이상 상영된 작품을 실질적 개봉작으로 보고 집계하였다.
15)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를 받은 작품은 상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제한상영가를 받은 작품이 전무함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다.

〈표 12〉 2017년 등급별 실질개봉작 및 형식적 개봉작 편수 및 비중

구분	구분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합계	
		편수	비중	편수	비중	편수	비중	편수	비중	편수	비중
한국영화	실질개봉	26	17.2%	37	18.1%	70	17.2%	31	3.6%	164	10.1%
	형식적 개봉	1	0.7%	1	0.5%	5	1.2%	205	23.9%	212	13.1%
	전체	27	17.9%	38	18.6%	75	18.4%	236	27.5%	376	23.2%
외국영화	실질개봉	111	73.5%	136	66.7%	150	36.8%	59	6.9%	456	28.1%
	형식적 개봉	13	8.6%	30	14.7%	183	44.9%	563	65.6%	789	48.7%
	전체	124	82.1%	166	81.4%	333	81.6%	622	72.5%	1,245	76.8%
전체	실질개봉	137	90.7%	173	84.8%	220	53.9%	90	10.5%	620	38.2%
	형식적 개봉	14	9.3%	31	15.2%	188	46.1%	768	89.5%	1001	61.8%
	전체	151	100%	204	100%	408	100%	858	100%	1,621	100%

2017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관객 중 15세이상관람가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12세이상관람가가 19.0%로 뒤를 이었다.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개봉편수 비율에 비해 관객 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외국영화는 12세이상관람가 관객점유율이 44.8%로 가장 높았고, 15세이상관람가 영화의 관객점유율이 25.6%였다. 한국영화에 비해 전체관람가 영화의 점유율이 20.5%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영화에 비해 등급별 관객점유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13〉 2017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 수(명)	관객 수 점유율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26	15.9%	2,244,791	2.0%	16,747,554,151	1.9%
12세이상관람가	37	22.6%	21,093,255	19.0%	165,718,250,660	18.8%
15세이상관람가	70	42.7%	73,536,532	66.2%	582,753,485,189	66.2%
청소년관람불가	31	18.9%	14,287,296	12.9%	115,594,981,194	13.1%
계	164	100.0%	111,161,874	100.0%	880,814,271,194	100.0%

〈표 14〉 2017년 외국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 수(명)	관객 수 점유율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111	24.3%	20,906,294	20.5%	160,368,689,815	19.5%
12세이상관람가	136	29.8%	45,614,591	44.8%	373,436,920,829	45.4%
15세이상관람가	150	32.9%	26,081,212	25.6%	212,101,251,273	25.8%
청소년관람불가	59	12.9%	9,224,200	9.1%	76,645,774,552	9.3%
계	456	100.0%	101,826,297	100.0%	822,552,636,469	100.0%

〈표 15〉 2017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관객 수 점유율

등급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관객 수(명)	점유율	관객수(명)	점유율	관객수(명)
전체관람가	2,244,791	9.7%	20,907,153	90.3%	23,151,085
12세이상관람가	21,093,255	31.6%	45,616,089	68.4%	66,707,846
15세이상관람가	73,536,532	73.8%	26,100,862	26.2%	99,617,744
청소년관람불가	14,287,296	60.8%	9,230,932	39.3%	23,511,496
계	111,161,874	52.2%	101,855,036	47.8%	212,988,171

〈표 16〉 2017년 전체영화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 수(명)[16]	관객 수 점유율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137	22.1%	23,151,085	10.9%	177,116,243,966	10.4%
12세이상관람가	173	27.9%	66,707,846	31.3%	539,155,171,489	31.7%
15세이상관람가	220	35.5%	99,617,744	46.8%	794,854,736,462	46.7%
청소년관람불가	90	14.5%	23,511,496	11.0%	192,240,755,746	11.3%
계	620	100.0%	212,988,171	100.0%	1,703,366,907,663	100.0%

상영등급별 전체 관객 수에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관람가 관객의 90.3%가 외국영화 관객이었다. 외국영화의 경우, 〈슈퍼배드 3〉, 〈보스 베이비〉, 〈모아나〉 등 가족 단위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가족영화로서 전체관람가 등급의 애니메이션이 소비되는 반면 한국영화는 애니메이션이 비주류 장르인 데다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 〈터닝메카드W: 블랙미러의 부활〉 등 저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체관람가 관객 수 점유율이 9.7%로 매우 낮았다. 12세이상관람가에서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를 앞세운 외국영화가 68.4%로 우위를 점했고, 15세이상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에서는 한국영화가 각각 73.8%, 60.8%를 기록해 등급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규모의 한국영화가 한국 대작영화와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6) 등급별 관객 수와 매출액은 개봉작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전체 관객 수, 매출액과는 수치가 상이함.

전체 개봉편수 기준 등급별 통계

〈표 17〉 2017년 한국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 수(명)	관객 수 점유율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27	7.2%	2,244,792	2.0%	16,747,557,151	1.9%
12세이상관람가	38	10.1%	21,093,510	19.0%	165,720,290,660	18.8%
15세이상관람가	75	19.9%	73,536,920	66.1%	582,756,362,189	66.2%
청소년관람불가	236	62.8%	14,302,780	12.9%	115,677,628,694	13.1%
계	376	100.0%	111,178,002	100.0%	880,901,838,694	100.0%

〈표 18〉 2017년 외국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 수(명)	관객 수 점유율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124	10.0%	20,907,153	20.5%	160,375,661,315	19.5%
12세이상관람가	166	13.3%	45,616,089	44.8%	373,444,757,829	45.4%
15세이상관람가	333	26.7%	26,100,862	25.6%	212,187,030,673	25.8%
청소년관람불가	622	50.0%	9,230,932	9.1%	76,689,977,252	9.3%
계	1,245	100.0%	101,855,036	100.0%	822,697,427,069	100.0%

〈표 19〉 2017년 전체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 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 수(명)[17]	관객 수 점유율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151	9.3%	23,151,945	10.9%	177,123,218,466	10.4%
12세이상관람가	204	12.6%	66,709,599	31.3%	539,165,048,489	31.6%
15세이상관람가	408	25.2%	99,637,782	46.8%	794,943,392,862	46.7%
청소년관람불가	858	52.9%	23,533,712	11.0%	192,367,605,946	11.3%
계	1,621	100.0%	213,033,038	100.0%	1,703,599,265,763	100.0%

〈표 20〉 2017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상영등급별 관객 수 점유율

등급	한국영화		외국영화		전체
	관객 수(명)	점유율	관객 수(명)	점유율	관객 수(명)
전체관람가	2,244,792	9.7%	20,907,153	90.3%	23,151,945
12세이상관람가	21,093,510	31.6%	45,616,089	68.4%	66,709,599
15세이상관람가	73,536,920	73.8%	26,100,862	26.2%	99,637,782
청소년관람불가	14,302,780	60.8%	9,230,932	39.2%	23,533,712
계	111,178,002	52.2%	101,855,036	47.8%	213,033,038

17) 등급별 관객 수와 매출액은 개봉작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전체 관객 수, 매출액과는 수치가 상이함.

4) 국적별 점유율

2017년 전체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전년 대비 1.9%p 감소한 51.8%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영화는 관객 점유율에서 2011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외국영화에 우위를 점했다. 미국영화는 8,861만 명을 동원해 전년 대비 1.1%p 감소한 40.3%의 관객 점유율을 나타냈다.

일본영화는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364만 명을 동원한 데 힘입어 861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3.9%의 관객 점유율을 보였다. 유럽영화는 648만 명으로 2.9%의 관객 점유율을 보였고, 〈베이비 드라이버〉(영국)가 82만 명을 모은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중화권은 25만 명으로 0.1%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고, 애니메이션 〈나의 붉은 고래〉(중국)가 5만 8천 명을 동원한 것이 최다 관객 수 기록이었다.

국적별 관객 점유율 또한 실질적 개봉기준[18]을 적용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일본영화의 형식적 개봉작이 477편으로 가장 많았으나, 편수 대비 관객 점유율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일본 형식적 개봉작이 대부분 한 자리수의 관객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표 21〉 2017년 국적별 점유율

국적		구분	편 수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한국		상영작	532	902,654,810,238	51.4%	113,904,827	51.8%
		전체개봉작	376	880,901,838,694	51.7%	111,178,002	52.2%
		실질개봉작	164	880,814,271,194	51.7%	111,161,874	52.2%
		형식개봉작	212	87,567,500	37.7%	16,128	35.9%
미국	직배	상영작	66	607,549,248,836	34.6%	74,381,773	33.8%
		전체개봉작	57	598,401,192,336	35.1%	73,275,739	34.4%
		실질개봉작	53	598,376,265,136	35.1%	73,272,743	34.4%
		형식개봉작	4	24,927,200	10.7%	2,996	6.7%
	수입	상영작	279	113,658,884,432	6.5%	14,225,349	6.5%
		전체개봉작	266	103,886,325,670	6.1%	13,045,497	6.1%
		실질개봉작	106	103,824,312,670	6.1%	13,029,704	6.1%
		형식개봉작	160	62013000	26.7%	15,793	35.2%
	소계	상영작	345	721,208,133,268	41.1%	88,607,122	40.3%
		전체개봉작	324	702,287,518,006	41.2%	86,321,236	40.5%
		실질개봉작	160	702,200,577,806	40.0%	86,302,447	39.3%
		형식개봉작	164	86,940,200	37.4%	18,789	41.9%
중화권*		상영작	82	1,886,176,700	0.1%	250,925	0.1%
		전체개봉작	80	1,887,126,200	0.1%	251,084	0.1%
		실질개봉작	50	1,867,358,800	0.1%	247,908	0.1%
		형식개봉작	30	19,767,400	8.5%	3,176	7.1%

18) 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의 상영회차인 약 40회 이상 상영된 작품

국적	구분	편 수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유럽	상영작	227	49,880,908,913	2.8%	6,477,273	2.9%
	전체개봉작	214	49,377,094,813	2.9%	6,411,578	5.7%
	실질개봉작	135	49,361,475,313	2.9%	6,409,005	3.0%
	형식개봉작	79	15,619,500	6.7%	2,573	5.8%
일본	상영작	586	67,034,931,459	3.8%	8,606,710	3.9%
	전체개봉작	555	65,470,126,359	3.8%	8,396,713	3.9%
	실질개봉작	78	65,456,603,359	3.8%	8,394,089	3.9%
	형식개봉작	477	13,523,000	5.8%	2,624	5.8%
기타	상영작	77	13,907,113,935	0.8%	2,028,135	0.9%
	전체개봉작	72	3,675,561,691	0.2%	474,425	0.2%
	실질개봉작	33	3,666,621,191	0.2%	472,848	0.2%
	형식개봉작	39	8,940,500	3.8%	1,577	3.5%
총계	상영작	1,848	1,756,572,074,513	100.0%	219,874,992	100.0%
	전체개봉작	1,621	1,703,599,265,763	100.0%	213,033,038	100.0%
	실질개봉작	620	1,703,366,907,663	100.0%	212,988,171	100.0%
	형식개봉작	1,001	232,358,100	100.0%	44,867	100.0%

* 중화권은 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함

5) 배급사별 점유율

CJ E&M은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전체 배급사 관객 점유율에서 15년째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신과 함께-죄와 벌〉의 흥행으로 롯데는 지난해 7위에서 5계단 상승한 2위를 차지했다. 쇼박스는 천만 영화 〈택시운전사〉와 범죄 영화 장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배급편수가 들어 한 계단 하락한 3위를 기록했다. 프랜차이즈 영화의 흥행으로 디즈니는 4위에 올랐다. 메가박스(주)플러스엠은 〈범죄도시〉 등 중소규모의 한국영화 흥행에 힘입어 7.6%의 관객 점유율로 지난해 9위에서 3계단 올라선 6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메가박스(주)플러스엠은 중견 배급사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표 22〉 2013-2017년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1	CJ	42	21.4	CJ	31	24.9	CJ	26	22.9	CJ	24	17.4	CJ	25	15.1
2	NEW	21	18.4	롯데	30.5	12.1	쇼박스	11	17.1	쇼박스	10	13.6	롯데	18.5	11.4
3	롯데	37.5	14.9	소니	16	11.3	디즈니	9	11.6	디즈니	10	12.3	쇼박스	7	10.7
4	쇼박스	13	13.7	워너	12	10.8	폭스	16	9.4	워너	13	10.3	디즈니	13	9.1
5	소니	18	9.5	폭스	14	8.9	UPI	32	8.6	폭스	14	9.6	UPI	22	9.0
	기타	903.5	22.1	기타	1084.5	32.0	기타	1,181.0	30.4	기타	1,594	36.8	기타	1,762.5	44.7
	계	1,035	100.0	계	1,188	100.0	계	1,275	100.0	계	1,665	100.0	계	1,848	100.0

CJ E&M은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으나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전체 관객 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10.8% 감소한 3,327만 명을 기록해 전국 단위로 배급사별 순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영화가 대작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2009년과 2012년 27편이었던 CJ E&M의 한국영화 상영편수도 2017년 13편으로 줄었다. CJ E&M 배급작 중에서는 설 연휴 직전에 개봉한 〈공조〉가 782만 명을 모아 흥행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여름 성수기와 추석 흥행을 겨냥했던 〈군함도〉(659만 명)와 〈남한산성〉(385만 명)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관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대작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롯데는 2015~2016년 국내 배급사 중 외국영화 배급에서 가장 높은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영화보다 외국영화 배급에서 성과를 내왔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과 함께-죄와 벌〉(854만 명), 〈청년경찰〉(565만 명), 〈아이 캔 스피크〉(328만 명, ㈜리틀빅픽쳐스 공동배급) 등이 흥행에 성공해 한국영화 관객 수가 전년 대비 1,161만 명(131.4%) 증가한 2,044만 명을 기록했고, 여기에 외국영화 관객 수 464만 명을 더해 전체 관객 수 2,508만 명, 전체 관객 점유율 11.4%로 전체 배급사 순위 2위에 올랐다. 롯데의 한국영화 관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261만 명), 〈공각기동대 : 고스트 인 더 쉘〉(76만 명) 등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는 바람에 외국영화 배급사 순위에서는 6위 CJ E&M(4.40%)에 이어 관객 점유율 4.37%로 7위에 오르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7.1%와 13.6%의 관객 점유율로 전체 배급사 순위에서 2위를 수성했던 쇼박스는 2017년 10.7%의 점유율로 한 계단 하락한 3위를 기록했다. 쇼박스는 외국영화 없이 한국영화 7편 만을 배급했고, 올해 유일한 천만 영화 〈택시운전사〉(1,219만 명)를 필두로 〈꾼〉(402만 명), 〈프리즌〉(293만 명), 〈살인자의 기억법〉(266만 명) 등을 흥행시키며 범죄영화 열풍을 이끌었다.

디즈니는 여성주의적 시선을 담아낸 〈미녀와 야수〉(514만 명)와 〈모아나〉(231만 명)뿐 아니라 〈토르: 라그나로크〉(485만 명),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305만 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274만 명) 등의 프랜차이즈 영화를 포함한 13편을 배급했고, 2,010만 명(9.1%)의 관객을 모아 4위에 자리했다. 디즈니는 현지시간으로 2017년 12월 14일 이십세기폭스의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디즈니의 이십세기폭스 인수가 성사되면 마블 캐릭터의 판권을 디즈니가 대부분 확보하게 되는 것이어서 향후 배급사 순위에도 변동이 전망된다.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는 〈미이라〉(369만 명),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365만 명), 〈슈퍼배드 3〉(332만 명) 등 22편을 배급해 1,983만 명, 9.0%의 관객 점유율로 5위에 올랐다. 특히 블룸하우스 프로덕션이 제작한 공포영화 〈겟 아웃〉(214만 명)과 〈해피 데스데이〉(138만 명)는 북미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는데, 이는 대작 영화로의 상영 쏠림과 범죄 영화로의 장르 쏠림이 심화되면서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영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메가박스㈜플러스엠의 약진도 주목된다. 메가박스㈜플러스엠은 12편을 배급했고, 〈범죄도시〉(688만 명), 〈박열〉(236만 명), 〈부라더〉(149만 명) 등의 한국영화와 〈너의 이름은.〉(364만 명) 등의 외국영화

를 흥행시켜 전년 대비 166.6% 증가한 1,679만 명을 기록했다. 메가박스(주)플러스엠은 7.6%(4.7%p ↑)의 관객 점유율로 지난해 9위에서 3계단 올라선 6위를 차지했다. 한국영화 배급사 순위에서는 1,300만 명, 11.4%의 관객 점유율로 5위에 오르며 중견 배급사로서의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국내 투자배급사 '빅4'의 아성에도 도전하고 있다.

NEW는 18편을 배급했고 1,542만 명을 모아 관객 점유율 7.0%로 전체 순위 7위에 올랐다. 〈헬로우 고스트〉(2010), 〈부러진 화살〉(2011),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등 중소규모의 한국영화 배급을 통해 중견 배급사로 성장한 이후 〈7번방의 선물〉(2012), 〈변호인〉(2013), 〈부산행〉(2016) 등의 '천만 영화'를 배급하며 메이저 투자배급사로 올라선 NEW는 이후 대작 중심으로 배급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더 킹〉이 532만 명을 모은 것이 최고 성적이었고, 〈강철비〉(401만 명)가 뒤를 이었다. 기대작이었던 〈악녀〉(121만 명)의 부진과 〈옥자〉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상영 보이콧 논란까지 겹치면서 전체 관객 수는 전년 대비 23.4% 감소했다.

〈표 23〉 2017년 전체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배급사	상영 편수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1	씨제이이앤엠㈜	25	263,098,044,056	15.0%	33,271,533	15.1%
2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8.5	200,479,539,229	11.4%	25,077,449	11.4%
3	㈜쇼박스	7	185,361,051,703	10.6%	23,484,068	10.7%
4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13	165,046,563,951	9.4%	20,102,591	9.1%
5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22	159,172,689,221	9.1%	19,833,774	9.0%
6	메가박스㈜플러스엠	12	134,031,547,481	7.6%	16,788,983	7.6%
7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8	122,826,260,434	7.0%	15,419,185	7.0%
8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15	121,367,030,287	6.9%	14,731,587	6.7%
9	이십세기폭스코리아㈜	13	114,817,899,420	6.5%	14,011,204	6.4%
10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11	77,973,228,984	4.4%	9,611,177	4.4%
	기타	1693.5	212,398,219,747	12.1%	27,543,441	12.5%
	계	1,848	1,756,572,074,513	100.0%	219,874,992	100.0%

〈표 24〉 2017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배급사	상영 편수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1	씨제이이앤엠(주)	13	227,810,364,152	25.2%	28,611,098	25.1%
2	(주)쇼박스	7	185,361,051,703	20.5%	23,484,068	20.6%
3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8.5	162,451,246,611	18.0%	20,442,325	17.9%
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0	113,459,387,473	12.6%	14,196,508	12.5%
5	메가박스(주)플러스엠	7	103,597,533,073	11.5%	12,999,763	11.4%
6	CGV아트하우스	6.5	27,668,837,908	3.1%	3,485,559	3.1%
7	오퍼스픽쳐스	4	14,773,624,597	1.6%	1,888,817	1.7%
8	(주)리틀빅픽쳐스	9.5	13,921,032,151	1.5%	1,790,668	1.6%
9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2	13,642,140,856	1.5%	1,724,592	1.5%
10	씨네그루(주)키다리이엔티	3.5	9,376,884,008	1.0%	1,212,067	1.1%
	기타	461	30,592,707,708	3.4%	4,069,363	3.6%
	계	532	902,654,810,238	100.0%	113,904,827	100.0%

〈표 25〉 2017년 외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배급사	상영 편수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1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12	164,696,270,651	19.3%	20,055,968	18.9%
2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22	159,172,689,221	18.6%	19,833,774	18.7%
3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2	108,540,936,018	12.7%	13,173,704	12.4%
4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13	107,724,889,431	12.6%	13,006,995	12.3%
5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11	77,973,228,984	9.1%	9,611,177	9.1%
6	씨제이이앤엠(주)	12	35,287,679,904	4.1%	4,660,435	4.4%
7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0	38,028,292,618	4.5%	4,635,124	4.4%
8	메가박스(주)플러스엠	5	30,434,014,408	3.6%	3,789,220	3.6%
9	판씨네마(주)	12	20,594,499,931	2.4%	2,566,068	2.4%
10	(주)이수C&E	15	14,739,634,068	1.7%	1,969,854	1.9%
	기타	1,193	96,725,129,041	11.3%	12,667,846	12.0%
	계	1,316	853,917,264,275	100.0%	105,970,165	100.0%

6) 재개봉 영화

2017년에도 다수의 재개봉 영화가 상영되었다. 2016년과 같이 당해연도 개봉작이 아닌 작품 중 전년도 이월작품을 제외하고, 총 40회차[19] 이상 상영한 작품을 재개봉 작품으로 보고 분류하였다.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3.3% 감소한 87편이 재개봉 영화로 집계되었고, 전체 재개봉 영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29.9% 감소한 약 95만 명을 기록했다.

〈표 26〉 2013–2017년 재개봉 작품 극장 흥행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재개봉 편수	34편	65편	45편	90편	87편
한국영화	6편 (17.6%)	12편 (18.5%)	12편 (26.7%)	6편 (6.7%)	11편 (12.6%)
외국영화	28편 (82.4%)	53편 (81.5%)	33편 (73.3%)	84편 (93.3%)	76편 (87.4%)
전체 재개봉작 관객 수(명)	446,321	376,681	792,136	1,347,895	945,277
한국영화(명)	34,319 (7.7%)	10,564 (2.8%)	14,881 (1.9%)	6,508 (0.5%)	20,694 (2.2%)
외국영화(명)	412,002 (92.3%)	366,237 (97.2%)	777,255 (98.1%)	1,341,387 (99.5%)	924,583 (97.8%)
전체 재개봉작 매출액(원)	3,797,165,900	2,420,830,365	6,282,683,205	10,547,398,147	7,784,946,098
한국영화(원)	235,677,400 (6.2%)	36,402,600 (1.5%)	47,124,600 (0.8%)	49,223,600 (0.5%)	152,828,200 (2.0%)
외국영화(원)	3,561,488,500 (93.8%)	2,384,427,765 (98.5%)	6,235,558,605 (99.2%)	10,498,174,547 (99.5%)	7,632,117,898 (98.0%)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중 비중

2017년 재개봉 영화 중 〈이프 온리〉(16만 명)와 〈다크 나이트〉(9만 명)가 관객 수 1, 2위를 기록했고, 〈원스〉(4만 명)가 3위에 올랐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확장판 3편도 모두 10위권에 올랐다. 주로 멜로·로맨스 장르의 재개봉작이 대다수였던 2016년에 비해 2017년 재개봉작들은 범죄, 판타지, 액션 등 다양한 장르가 개봉되었으며, 10위권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러브 액츄얼리〉는 2013년 이후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매해 재개봉되고 있다.

19) 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의 상영회차인 약 40회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개봉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재개봉일이 별도 입력된 영화들 중에도 상영회차가 40회 미만인 작품은 재개봉작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재개봉 홍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 해 동안 40회 이상 상영한 해당작은 재개봉 영화에 포함했다.

〈표 27〉 2017년 전체 재개봉 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최초개봉일	재개봉일	등급	국적	스크린 수	관객수(명)	매출액(원)	배급사
1	이프 온리	04. 10. 29	17. 11. 29	15세	미국	168	159,627	1,276,866,400	㈜유니코리아 문예투자
2	다크 나이트	08. 08. 06	17. 07. 12	15세	미국	153	89,164	742,802,900	㈜해리슨앤컴퍼니
3	원스	07. 09. 20	17. 11. 01	전체	아일랜드	147	40,936	325,585,400	㈜제이앤씨미디어
4	첫키스만 50번째	04. 04. 15	17. 04. 15	15세	미국	299	37,619	298,244,200	팝엔터테인먼트
5	헤드윅	02. 08. 09	17. 06. 28	15세	미국	171	37,002	295,554,431	㈜엣나인필름
6	반지의 제왕 : 반지원정대(확장판)	17. 01. 11	17. 01. 11	12세	미국	74	35,758	470,027,900	㈜디스테이션
7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4. 07. 31	17. 04. 20	12세	미국	77	33,129	292,578,500	소니
8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확장판)	17. 01. 25	17. 01. 25	12세	미국	56	30,349	370,268,000	㈜디스테이션
9	반지의 제왕 : 두 개의 탑 (확장판)	17. 01. 18	17. 01. 18	12세	미국	58	27,440	350,183,800	㈜디스테이션
10	러브레터	99. 11. 20	17. 12. 13	전체	일본	279	26,557	207,828,700	㈜제이앤씨미디어

※ 2017년 동원 관객 수 기준
※ 스크린 수는 재개봉 이후 상영 기간 중 최대 스크린 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별도 재개봉일이 없는 경우는 2017년 최초 상영일자로 재개봉일 기재

〈표 28〉 2017년 재개봉 한국영화

순위	영화명	최초개봉일	재개봉일	등급	스크린 수	관객수(명)	매출액(원)	배급사
1	클래식	03. 01. 30	17. 11. 02	12세	70	6,990	56,433,600	㈜시네마서비스
2	번지점프를 하다	01. 02. 02	17. 11. 02	15세	72	3,852	31,427,000	이언픽쳐스
3	뷰티 인사이드	15. 08. 20	17. 07. 14	12세	648	3,593	29,001,900	NEW
4	내 머리 속의 지우개	04. 11. 05	17. 11. 02	12세	52	1,942	15,572,700	CJ E&M
5	박서방	60. 10. 05	17. 03. 06	12세	1	1,661	3,518,000	–
6	건축학개론	12. 03. 22	17. 07. 02	12세	35	1,001	7,098,000	롯데
7	남자가 사랑할 때	14. 01. 22	17. 11. 02	15세	47	739	5,606,000	NEW
8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 왕국 대모험	15. 12. 10	17. 01. 11	전체	544	355	1,818,000	NEW
9	만추	11. 02. 17	17. 06. 02	15세	3	264	1,619,000	CJ E&M
10	나무없는 산	09. 08. 27	17. 07. 01	전체	5	191	479,000	CJ E&M
11	방황의 날들	07. 09. 07	17. 07. 08	15세	5	106	255,000	위드시네마

※ 2017년 동원 관객 수 기준
※ 스크린 수는 재개봉 이후 상영 기간 중 최대 스크린 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별도 재개봉일이 없는 경우는 2017년 최초 상영일자로 재개봉일 기재

전체 재개봉 편수는 감소했지만, 한국영화의 재개봉 편수는 총 11편으로 다소 늘었다. 〈클래식〉(2003년 개봉), 〈번지점프를 하다〉(2001년 개봉) 등의 2000년대 멜로 영화들이 기획전을 통해 재상영된 결과이다. 1960년대 개봉작인 〈박서방〉은 고전영화 상영관 1곳에서 상영해 1,6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한국영화의 재개봉 성적은 좋지 않은 편이나, 구작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영화를 접하려는 관객들의 관심을 반영한 상영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영화 재개봉은 대개 최초 개봉 당시의 국내 판권이 만료된 작품들을 재수입하여 다시 개봉하거나, 디지타이징이나 리마스터링을 거친 상영본을 활용해 재개봉하는 유형이 다수다. 반면, 한국영화 재개봉은 장르나 배우에 대한 관심도를 바탕으로 재상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17년 재개봉영화의 편당 평균 관객 수는 10,865명으로, 2016년 편당 평균 관객 수 14,976명에 비해 27.4% 감소해 재개봉 영화들의 전반적 관객동원력이 약화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 시장집중도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계 내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한 논란과 대형 블록버스터 중심의 시장질서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결산부터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부문을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 작년에 처음 살펴본 내용은 ① 극장체인별 시장점유율 ② 배급사별 시장점유율 ③ 흥행 상위영화 시장점유율 ④ 흥행 상위영화 상영배정 집중도 ⑤ 극장체인-배급사 간 상영배정 연계정도의 5개 항목이었다. 올해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을 조금 수정 및 가감하여 총 3개 항목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본래적 의미의 시장집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영화산업 상영시장과 배급시장의 집중도 상황을 관련 지표를 통해 파악한다. 둘째는 본래적 의미의 시장집중도와는 다른 차원의 내용이지만 흔히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지칭되는 영화시장의 '상업적인 상영 쏠림 현상'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다. 셋째는 극장흥행의 결과가 얼마나 소수의 영화들에 집중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는 상영 쏠림 현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차원에서 한국 영화소비자들의 선택의 편향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국 영화시장의 전반적 상황의 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시장집중도[20]

가) 상영시장의 시장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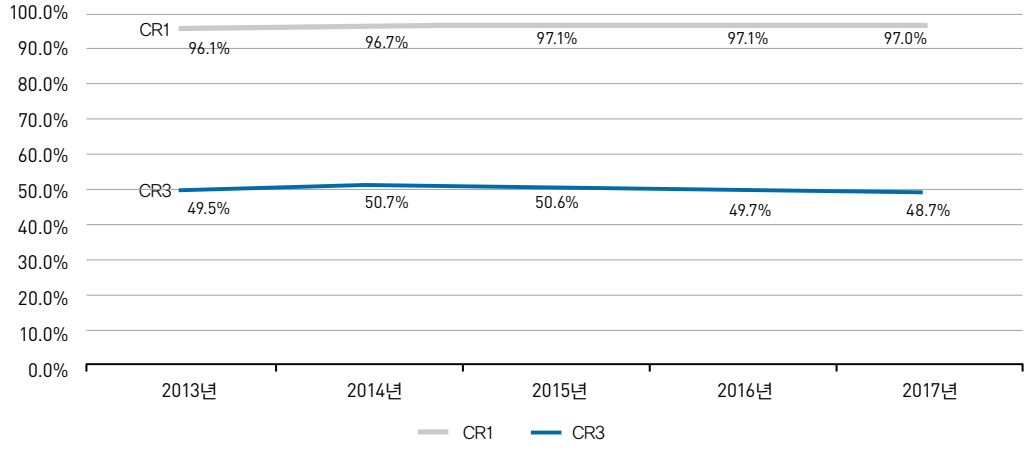
한국 영화상영시장의 양상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극장시장이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제로 재편된 후에는 개별 독립극장들의 시장 내 입지는 거의 미미해졌다. 가장 규모가 큰 CGV(CR1)가 거의 50%대의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합한 3사의 시장점유율(CR3)은 96~7%대로 절대적이다. 당연히 HHI지수도 2017년 3,610으로 계산되어서 매우 집중된 시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시장구도는 향후에도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영시장은 한국영화 상영시장을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양상이 동일할 것이라는 데에 업계의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표 29〉 2013–2017년 전체영화 상영시장 시장집중도(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극장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대 체인	CGV(CR1)	49.5%	50.7%	50.6%	49.7%	48.7%
	롯데시네마	28.4%	28.6%	29.9%	30.1%	30.0%
	메가박스	18.1%	17.4%	16.6%	17.3%	18.3%
	3대 체인 소계(CR3)	96.1%	96.7%	97.1%	97.1%	97.0%
독립 극장		3.9%	3.3%	2.9%	2.9%	3.0%
HHI지수		3,591	3,695	3,732	3,680	3,610

20)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CR(Concentration Ratio; 상위기업집중률)과 HHI(Herfindahl–Hirschman; 허핀달–허쉬만)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CRk는 '관련시장(relevant market)' 내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부터 작은 순으로 나열하여 k개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을 더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제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CR1과 CR3를 사용하고 있는데,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이 75% 이상이면 각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HHI지수는 관련시장 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더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제에서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 기준에 따르면 HHI지수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1,200 이상에서 2,500 미만이면서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2,500 이상이면서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안전지대가 된다. 다시 말하면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증가분이 250 이상이거나, 2,500 이상이면서 증가분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평적 합병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 HHI지수가 1,500 이하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unconcentrated market), 1,500에서 2,500 사이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 2,500 이상이면 고집중된 시장(highly concentrated market)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기준수치가 조금 다르다.

〈그림 4〉 2013–2017년 전체영화 상영시장 상위기업집중률 변화 추이



나) 배급시장의 시장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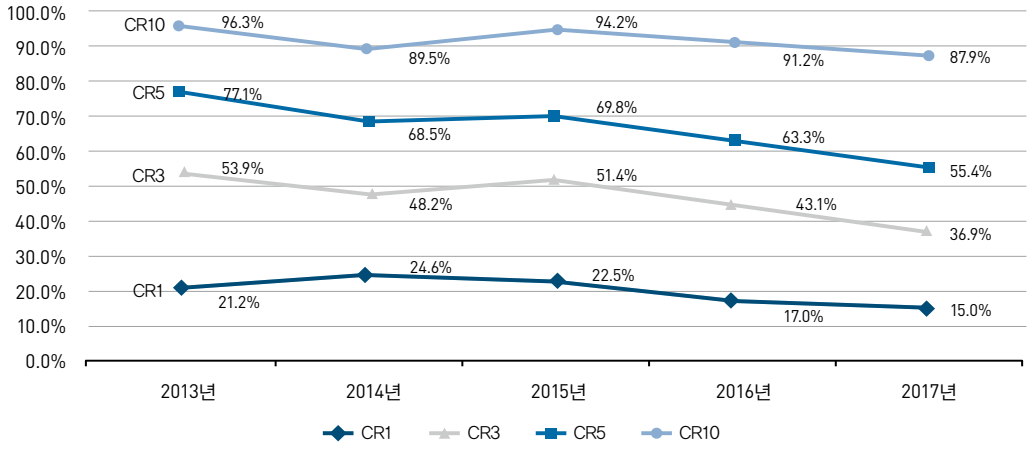
극장산업은 많은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산업이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참여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상영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배급시장은 플레이어가 많고 특히 할리우드 직배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017년 배급시장 시장점유율 1위 기업(CR1)은 CJ E&M으로 15.0%를 차지했다. 2, 3위인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CR3) 36.9%이며, 월트디즈니와 유니버설픽쳐스까지 더한 CR5는 55.4%로 나타났다. CR1부터 CR10까지 모든 지표가 2016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배급사들의 라인업이 비교적 골고루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단적으로 점유율 10위를 차지한 배급사의 점유율도 4.4%로 나타나서 최근 4년간의 수치보다 월등히 높다. HHI지수도 864로 나와서 처음으로 1,000 이하로 떨어졌다.

〈표 30〉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시장 시장집중도(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위 배급사 점유율(CR_1)	21.2%	24.6%	22.5%	17.0%	15.0%
매출액 상위 3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_3)	53.9%	48.2%	51.4%	43.1%	36.9%
매출액 상위 5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_5)	77.1%	68.5%	69.8%	63.3%	55.4%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_{10})	96.3%	89.5%	94.2%	91.2%	87.9%
HHI지수	1,373	1,221	1,268	1,054	864

〈그림 5〉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시장 상위기업집중률 변화 추이



배급시장은 상영시장과 달리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집중도를 별도로 살펴본다. 우리가 시장집중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해당 시장을 별도의 거래분야로 획정(劃定)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시장집중도를 별도로 살펴본다는 것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배급이 다른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영화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는 거의 완벽한 대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구분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관련시장의 획정과 독점력의 판단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21] 그리고 한국 영화시장에서 제작/투자부터 배급, 상영까지 수직결합을 이룬 메이저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시장집중도를 포함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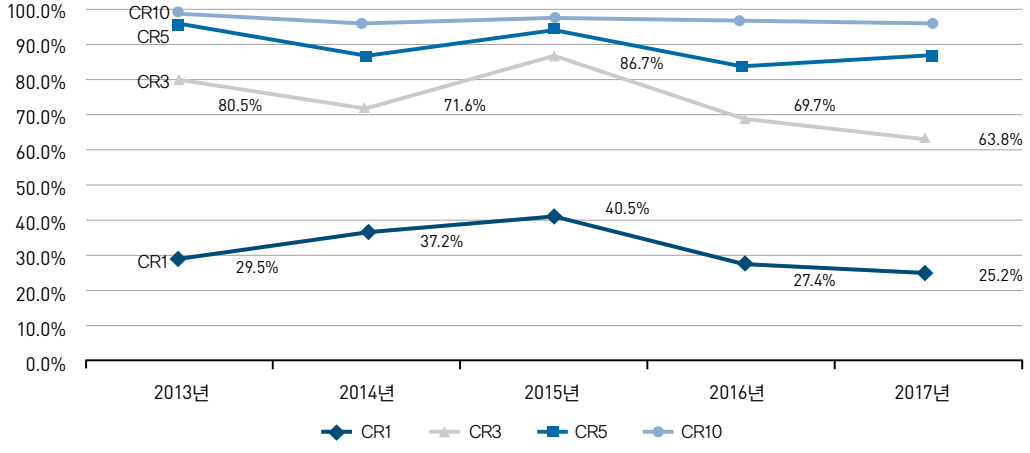
최근의 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영화 배급시장에 할리우드 직배사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시장에 비해 한국영화 배급에서 시장집중도가 더 높다. 실제로 CR1이 25.2%, CR3이 63.8%로 나타나고 있으며, HHI는 1,692로 2016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소 집중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도 외국영화를 포함한 전체시장의 추이와는 다른 양상이다.

21)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할수록 시장점유율은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관련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시장점유율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많은 공정거래법 소송에서 독점력에 대한 실체적 판단 이전의 시장 획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표 31〉 2013–2017년 한국영화 배급시장 시장집중도(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위 배급사 점유율(CR_1)	29.5%	37.2%	40.5%	27.4%	25.2%
매출액 상위 3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_3)	80.5%	71.6%	86.7%	69.7%	63.8%
매출액 상위 5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_5)	96.1%	86.5%	94.3%	83.8%	87.8%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_{10})	99.3%	95.7%	98.0%	97.4%	96.6%
HHI지수	2,368	2,149	2,881	1,838	1,692

〈그림 6〉 2013–2017년 한국영화 배급시장 상위기업집중률 변화 추이



〈표 32〉 2013–2017년 전체영화 배급사별 매출액 기준 점유율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1	CJ E&M	21.2%	CJ E&M	24.6%	CJ E&M	22.5%	CJ E&M	17.1%	CJ E&M	15.0%
2	NEW	18.1%	롯데	11.9%	쇼박스	17.0%	쇼박스	13.6%	롯데	11.4%
3	롯데	14.6%	소니	11.6%	디즈니	12.0%	디즈니	12.7%	쇼박스	10.6%
4	쇼박스	13.5%	워너	11.3%	폭스	9.6%	폭스	10.6%	디즈니	9.4%
5	소니	9.7%	폭스	9.0%	UPI	8.8%	폭스	9.8%	UPI	9.1%
6	워너	7.9%	쇼박스	7.5%	NEW	7.8%	NEW	9.3%	메가박스	7.6%
7	UPI	4.9%	NEW	7.3%	롯데	7.5%	롯데	7.6%	NEW	7.0%
8	폭스	4.3%	UPI	2.6%	워너	5.8%	UPI	6.9%	워너	6.9%
9	아이러브시네마	1.4%	판씨네마	1.8%	CGV 아트하우스	2.0%	메가박스	2.9%	폭스	6.5%
10	씨너스	0.8%	CGV 무비꼴라쥬	1.8%	메가박스	1.3%	와우픽쳐스	1.6%	소니	4.4%
	기타	3.7%	기타	10.6%	기타	5.8%	기타	8.1%	기타	12.1%

〈표 33〉 2013–2017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매출액 기준 점유율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1	NEW	29.5%	CJ E&M	37.2%	CJ E&M	40.5%	CJ E&M	27.4%	CJ E&M	25.2%
2	CJ E&M	28.1%	롯데	19.7%	쇼박스	31.5%	쇼박스	25.3%	쇼박스	20.5%
3	쇼박스	22.9%	쇼박스	14.7%	NEW	14.7%	NEW	17.0%	롯데	18.0%
4	롯데	13.2%	NEW	11.3%	롯데	3.9%	롯데	7.5%	NEW	12.6%
5	아이러브시네마	2.4%	CGV 무비꼴라쥬	3.6%	CGV 아트하우스	3.7%	워너	6.6%	메가박스	11.5%
	기타	3.9%	기타	13.5%	기타	5.6%	기타	16.2%	기타	12.2%

2) 상영 배정의 쏠림 현상(소위 스크린 독과점)

영화진흥위원회는 소수 영화에 대한 상영 쏠림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스크린점유율이 아닌 상영점유율을 사용한다. 멀티플렉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특정 상영관에 다수 영화가 편성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스크린점유율을 이용할 경우 중복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상영점유율은 일일 전체 상영횟수 대비 한 영화의 상영횟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쏠림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 일별 상영점유율을 평균해 보면 점유율 1위 영화는 평균 31.8%의 상영횟수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을 보면 미세한 증가세는 있으나 대략 30% 정도로 파악된다. 2위 영화의 최근 5년간 평균은 19% 정도이며 3위 영화의 평균은 13% 정도이다. 1위에서 3위까지의 합계를 보면 2017년에는 64.5%로 작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최근 5년 평균값은 62.4%이다. 다시 말해 현재 우

리나라 영화시장은 1위 영화가 평균적으로 전국 극장의 30% 정도를 가져가고 있으며, 동시에 전극 극장의 60% 정도가 단 세 편의 영화에 약 3:2:1의 비율로 돌아가고 나머지 40% 정도가 다른 영화들에 돌아가는 시장인 셈이다.

〈표 34〉 2013–2017년 상영점유율 순위별 분포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위	28.1%	28.2%	30.1%	31.7%	31.8%
2위	20.2%	18.9%	19.2%	18.0%	19.6%
3위	13.6%	13.8%	13.6%	12.1%	13.1%
1~3위 소계	61.9%	60.9%	62.9%	61.8%	64.5%
4위 이하 전체	38.1%	39.1%	37.1%	38.2%	3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별 상영점유율 1위 영화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2017년에 1위 영화가 점유율 20% 이상에서 60% 이상까지를 기록한 일수는 다음과 같다. 40% 이상을 기록한 일수는 76일로 1년 365일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표 35〉 상영점유율 1위 영화의 점유율별 일수

점유율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일수	336일	173일	76일	22일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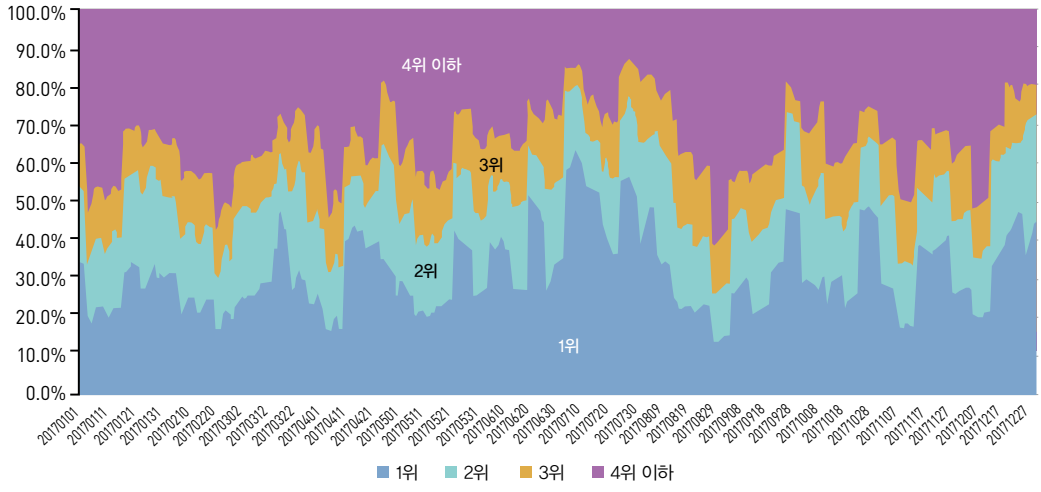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의 일별 상영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7〉에서 1위가 31.8%, 2위가 19.6%, 3위가 13.1%, 그리고 4위 이하가 35.5%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소수 영화에 대한 상영 쏠림이 유달리 심했던 시기는 대략 4월 말, 7월 초, 7월 말에서 8월 초, 12월 말 정도로 나타난다. 7월 말의 경우 상위 세 편의 영화가 차지한 상영점유율이 이틀간 86%를 넘기도 했다. 7월 초와 7월 말은 각각 〈스파이더맨: 홈 커밍〉과 〈군함도〉라는 한 편의 점유율이 매우 컸던 반면, 4월 말(〈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특별시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과 12월 말(〈강철비〉, 〈신과 함께–죄와 벌〉, 〈1987〉)은 여러 편이 같이 높은 점유율을 형성한 결과이다.

반면 상영 쏠림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나타나는데, 가장 낮은 경우 상위 세 편의 상영점유율 합이 38.5%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1위 영화의 상영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7월 둘째 주 〈스파이더맨: 홈 커밍〉이 기록한 63%이며, 한국영화 중에서는 〈군함도〉가 55%대를 기록했다.

〈그림 7〉 2017년 일별 상영점유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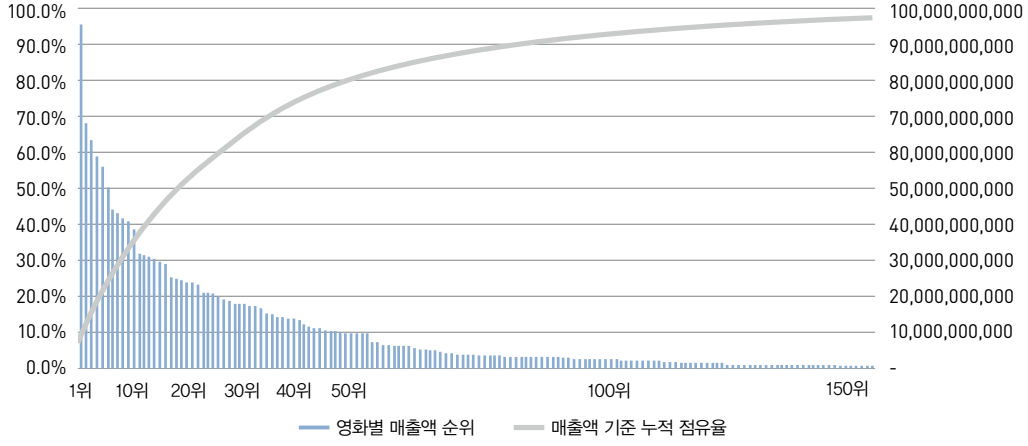
3) 극장흥행 결과의 쏠림 현상

2017년 극장흥행 1위를 차지한 〈택시운전사〉의 점유율은 5.6%이다. 1위에서 10위까지의 누적점유율은 33.2%, 20위까지는 50.7%, 30위까지가 63.1%로, 상위 소수 상품들의 매출액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2 대 8 법칙을 보여준다.

〈표 36〉 흥행순위별 매출액 기준 누적점유율(전체영화)

흥행순위	1위	10위	20위	30위	40위	50위	100위	150위
누적 점유율	5.6%	33.2%	50.7%	63.1%	72.6%	79.5%	93.2%	97.1%

〈그림 8〉 흥행순위별 매출액 현황 및 누적점유율(전체영화)



〈표 37〉 2013–2017년 흥행 상위영화 매출액 점유율(전체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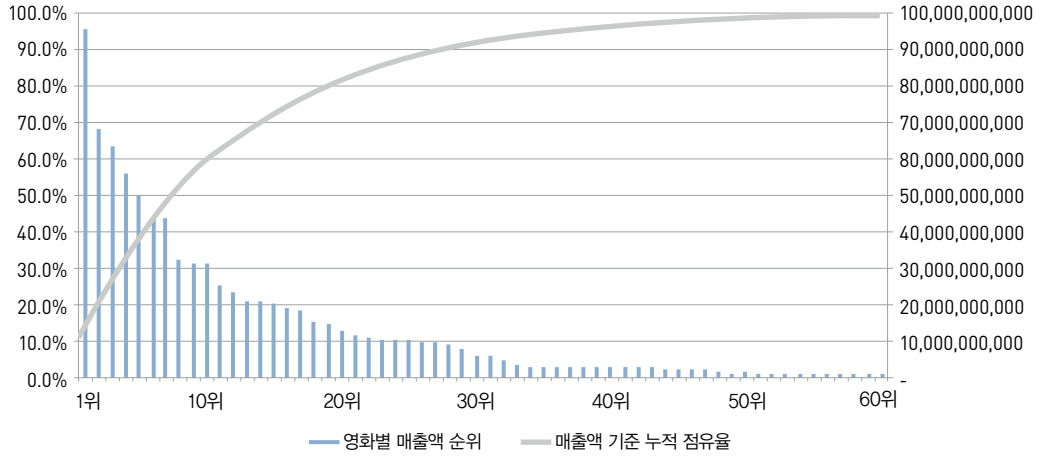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1	7번방의 선물	5.9%	명량	8.2%	베테랑	6.2%	부산행	5.3%	택시운전사	5.6%
2	아이언맨3	4.6%	겨울왕국	5.0%	암살	5.8%	검사외전	4.4%	신과 함께 – 죄와벌	4.0%
3	설국열차	4.3%	인터스텔라	4.9%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5.2%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	4.2%	공조	3.7%
4	관상	4.3%	해적 : 바다로 간 산적	4.0%	국제시장	4.1%	밀정	3.5%	스파이더맨 : 홈 커밍	3.5%
5	베를린	3.4%	수상한 그녀	3.8%	내부자들	3.3%	터널	3.3%	범죄도시	3.3%
6	은밀하게 위대하게	3.2%	트랜스포머 : 사라진 시대	2.7%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	3.0%	럭키	3.2%	군함도	3.0%
7	변호인	2.6%	변호인	2.5%	사도	2.9%	곡성	3.2%	청년경찰	2.6%
8	더 테러 라이브	2.6%	국제시장	2.5%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2.8%	인천상륙작전	3.2%	더 킹	2.6%
9	숨바꼭질	2.6%	엣지 오브 투모로우	2.3%	쥬라기 월드	2.8%	닥터 스트레인지	2.7%	미녀와 야수	2.5%
10	감시자들	2.5%	군도 : 민란의 시대	2.2%	연평해전	2.7%	덕혜옹주	2.5%	킹스맨 : 골든 서클	2.4%
11	기타	64.0%	기타	61.9%	기타	61.2%	기타	64.5%	기타	66.8%

한국영화만 놓고 보면 흥행의 쏠림은 더 높아진다. 전체영화로 보면 흥행순위 30위까지의 매출액 누적점유율이 63.1%인 데 비해 한국영화는 30위까지가 91.4%에 달하고, 60위까지가 99.1%여서 그 이후로는 매출 비중의 의미가 없다.

〈표 38〉 흥행순위별 누적점유율(한국영화)

흥행순위	1위	10위	20위	30위	40위	50위	60위	100위
누적점유율	10.9%	58.7%	80.5%	91.4%	95.6%	98.1%	99.1%	99.9%

〈그림 9〉 흥행순위별 매출액 현황 및 누적점유율(한국영화)



〈표 39〉 2013–2017년 흥행 상위영화 매출액 점유율(한국영화)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영화명	점유율
1	7번방의 선물	10.1%	명량	16.6%	베테랑	12.0%	부산행	10.0%	택시운전사	10.9%
2	설국열차	7.4%	해적 : 바다로 간 산적	8.1%	암살	11.2%	검사외전	8.3%	신과 함께 – 죄와 벌	7.8%
3	관상	7.3%	수상한 그녀	7.7%	국제시장	7.9%	밀정	6.6%	공조	7.2%
4	베를린	5.8%	변호인	5.1%	내부자들	6.4%	터널	6.2%	범죄도시	6.4%
5	은밀하게 위대하게	5.4%	국제시장	5.0%	사도	5.6%	럭키	6.1%	군함도	5.7%
6	변호인	4.5%	군도 : 민란의 시대	4.5%	연평해전	5.2%	곡성	6.0%	청년경찰	5.0%
7	더 테러 라이브	4.4%	타짜 – 신의 손	4.0%	검은 사제들	4.8%	인천 상륙작전	5.9%	더 킹	4.9%
8	숨바꼭질	4.4%	역린	3.6%	히말라야	4.5%	덕혜옹주	4.8%	강철비	3.6%
9	감시자들	4.3%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3.6%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놈의 딸	3.5%	마스터	4.3%	꾼	3.6%
10	신세계	3.8%	신의 한 수	3.5%	스물	2.7%	아가씨	3.8%	남한산성	3.5%
11	기타	42.8%	기타	38.3%	기타	36.2%	기타	38.0%	기타	41.4%

다. 독립·예술영화[22)]

1) 독립·예술영화 극장흥행

2017년 개봉한 독립·예술영화 편수는 499편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다. 상영작 관객 수는 9,785,795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개봉편수에서 독립·예술영화 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7%로 30%에 못 미쳤던 2015-2016년에 비해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상영작 관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전년과 동일하다.

〈표 40〉 최근 5년간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및 관객 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봉편수 (편)	독립·예술영화	333	367	349	434	499
	전년 대비 증감	43.5%	10.2%	-4.8%	24.4%	15.0%
	전체	905	1,095	1,176	1,520	1,625
	독립·예술영화 비율	36.8%	33.5%	29.7%	28.6%	30.7%
전국 관객 수 (명) (상영작 기준)	독립·예술영화	3,723,352	14,283,284	8,307,266	9,676,476	9,785,795
	전년 대비 증감	0.8%	283.6%	-41.8%	16.5%	1.1%
	전체	213,324,223	215,056,852	217,288,819	217,024,355	219,874,992
	독립·예술영화 비율	1.7%	6.6%	3.8%	4.5%	4.5%

※ 2013년도는 2014년도 판 한국영화연감 참고, 2014년도부터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식통계 기준 적용

2017년 독립·예술영화 개봉 편수, 상영작 관객 수, 상영작 매출액별로 한국영화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각각 21.4%, 21.7%, 21.7%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23.7%, 18.3%, 18.2%의 점유율과 비교해 볼 때, 편수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 관객 수와 매출액의 점유율은 늘어났다.

〈표 41〉 2017년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관객 수, 매출액 한국영화 점유율

개봉편수			전국 관객 수(명)			매출액(원)		
전체	한국	점유율	전체	한국	점유율	전체	한국	점유율
499	107	21.4%	9,785,795	2,119,612	21.7%	73,020,782,638	15,809,592,788	21.7%

2017년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1위는 일본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로, 465,265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2위는 한국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W: 블랙미러의 부활〉이 차지했다. 그 뒤를 〈러빙 빈센트〉(영국), 〈눈의 여왕 3: 눈과 불의 마법대결〉(러시아), 〈내 사랑〉(아일랜드)이 이었다. 관객 수 10만 명을 넘긴 독립·예술영화 편수는 19편으로, 2016년 20편에 비해서는

22)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영화 또는 예술영화 인정신청을 하여, 해당 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각각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로 구분하였음

줄어들었으나, 2015년 14편, 2014년 16편에 비하면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예술영화가 10만 명을 동원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 부문에서 애니메이션의 강세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2017년은 좀 더 뚜렷이 드러났다. 2017년 독립·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상영작의 관객 수는 2,891,102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독립·예술영화 전체 상영작 1,275편 가운데 애니메이션은 101편으로 편수 점유율은 7.9%에 불과하다. 2016년 독립·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상영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편수 8.4%, 관객 수는 25.5%였다. 독립·예술영화 부문에서 이 같은 애니메이션의 강세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미국 작품 외에는 예술영화로 자동승인 받는 제도의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예술영화로 보기 어려운 작품이 상위권에 오르는 등의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정책적 목적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위 10위권 영화를 살펴보면, 2위 〈터닝메카드W: 블랙미러의 부활〉, 3위 〈러빙 빈센트〉, 4위 〈눈의 여왕 3: 눈과 불의 마법대결〉, 6위 〈빅풋 주니어〉, 8위 〈딥〉 등 모두 애니메이션이다. 2016년의 4편에 비해 편수도 늘어났고, 3편이 상위권(2, 3, 4위)에 포진하고 있다. 국적 면에서는 일본영화가 2편, 한국영화가 2편이고, 나머지 영국, 미국, 러시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영화가 1편씩으로 다양하다. 등급 면에서는 2016년에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2편 있었고 12세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던 데 반해, 2017년에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10위권에 1편도 진입하지 못했다.

〈표 42〉 2017년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국적	스크린 수	관객 수(명)	매출액(원)	배급사
1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17. 10. 02	12세	일본	218	465,265	3,703,660,800	NEW
2	터닝메카드W : 블랙미러의 부활	17. 01. 18	전체	한국	570	429,933	3,215,588,500	씨네그루 ㈜키다리이엔티
3	러빙 빈센트*	17. 11. 09	15세	영국	272	384,542	3,061,472,861	판씨네마㈜
4	눈의 여왕 3 : 눈과 불의 마법대결	17. 01. 04	전체	러시아	526	366,442	2,694,247,700	㈜이수C&E
5	내 사랑	17. 07. 12	12세	아일랜드	233	336,106	2,457,103,625	오드
6	빅풋 주니어	17. 08. 09	전체	벨기에	437	320,545	2,260,352,900	㈜이수C&E
7	공범자들	17. 08. 17	15세	한국	228	260,514	2,035,223,800	㈜엣나인필름
8	딥	17. 10. 03	전체	스페인	441	230,068	1,772,272,000	㈜이수C&E
9	문라이트	17. 02. 22	15세	미국	173	178,141	1,408,700,595	CGV아트하우스
10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17. 10. 12	12세	일본	206	175,518	1,344,808,900	㈜디스테이션

* 2018.2.8. 기준 극장 상영 중, 누적관객 수 403,995명

〈표 43〉 2017년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한국영화)

순위	영화명	감독	개봉일	등급	스크린 수	관객 수(명)	매출액(천원)	제작사	배급사
1	터닝메카드W : 블랙미러의 부활	홍헌표, 김석원	17. 01. 18	전체	570	429,933	3,215,588,500	㈜희원엔터테인먼트	씨네그루 ㈜키다리이엔티
2	공범자들	최승호	17. 08. 17	15세	228	260,514	2,035,223,800	한국탐사 저널리즘센터	㈜엣나인필름
3	눈길	이나정	17. 03. 01	15세	495	130,440	975,750,100	KBS	㈜엣나인필름, CGV아트하우스
4	저수지 게임	최진성	17. 09. 07	15세	289	125,402	984,605,100	프로젝트 부	㈜스마일이엔티
5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홍주연, 홍현정	17. 04. 26	전체	234	123,344	878,090,400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CGNTV)	커넥트픽쳐스㈜
6	여교사	김태용	17. 01. 04	청불	393	116,851	947,192,460	㈜외유내강	필라멘트픽쳐스
7	더 테이블	김종관	17. 08. 24	12세	272	103,054	830,762,100	볼미디어㈜	㈜엣나인필름
8	김광석	이상호	17. 08. 30	15세	223	98,231	772,483,500	㈜씨네포트	㈜비엠컬쳐스
9	밤의 해변에서 혼자	홍상수	17. 03. 23	청불	133	57,056	439,416,092	㈜영화제작전원사	㈜영화제작전원사, ㈜콘텐츠판다
10	*산상수훈	유영의	17. 12. 07	전체	71	40,225	288,011,000	㈜그란	이언픽쳐스, ㈜그란

* 2018.2.8. 기준 극장 상영 중, 누적관객 수 403,995명

〈표 44〉 2017년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외국영화)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스크린 수	관객 수(명)	매출액(원)	국적	배급사
1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17. 10. 25	12세	218	465,265	3,703,660,800	일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	러빙 빈센트	17. 11. 09	15세	272	384,542	3,061,472,861	영국	판씨네마㈜
3	눈의 여왕 3 : 눈과 불의 마법대결	17. 01. 04	전체	526	366,442	2,694,247,700	러시아	㈜이수C&E
4	내 사랑	17. 07. 12	12세	233	336,106	2,457,103,625	아일랜드	오드
5	빅풋 주니어	17. 08. 09	전체	437	320,545	2,260,352,900	벨기에	㈜이수C&E
6	딥	17. 10. 03	전체	441	230,068	1,772,272,000	스페인	㈜이수C&E
7	문라이트	17. 02. 22	15세	173	178,141	1,408,700,595	미국	CGV아트하우스
8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17. 10. 12	12세	206	175,518	1,344,808,900	일본	㈜디스테이션
9	예수는 역사다	17. 07. 13	전체	217	172,414	1,242,169,400	미국	(재)CBS
10	마이펫 오지	17. 02. 16	전체	393	124,318	913,514,950	스페인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2) 독립·예술영화 인정현황

2017년 독립영화 자동승인[23] 작품은 총 21편이었고, 심사 신청을 한 121편 중 102편이 독립영화로 인정을 받아 84.3%의 인정 비율을 기록하였다.

예술영화의 경우 자동승인[24] 작품은 511편에 달해 심사신청작 404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심사 신청작 404편 중 인정작은 319편으로 79%의 인정 비율을 기록했다.

〈표 45〉 2017년 독립·예술영화 자동승인 및 심사 인정 현황

독립영화			예술영화		
자동승인		21	자동승인		511
심사신청	인정	102	심사신청	인정	319
				심사제외	5
	불인정	19		심사보류	5
				인정취하	1
				불인정	74
독립영화 승인/인정		123	예술영화 승인/인정		830

2017년 예술영화 830편 중 55.8%가 자동승인을 통해 예술영화로 인정받았다. 자동 승인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 예술영화로 보기 힘든 작품들이 대거 눈에 띈다. 또한 2017년에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양자 모두로 인정받은 영화가 79편에 달하는 등,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인정에 있어서도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독립·예술영화의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인정 제도가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3) 독립영화 자동승인 대상은 위원회의 독립·저예산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

24) 2017년 기준, 예술영화 자동승인 대상은 ① 영진위 제작지원·배급지원 작품 ②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실험영화 등 시장점유율 1% 이내인 영화 형식의 작품. 단,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미국 작품은 제외 ③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기준 전국 기준 시장점유율 1% 이내인 국가의 작품. 단, 개봉 당시 100개관 이상 동시 개봉인 경우 제외(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1% 이내 국가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제외 모든 국가)이다.

라.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

2017년 디지털 온라인 시장 총 매출 규모는 4,36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5.7% 성장하였다. IPTV 및 디지털케이블 TV(이하 TV VOD)의 매출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하였다. 새로운 OTT의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VOD 시장은 전년에 비해 10.8% 성장하였다.

〈표 46〉 2013–2017년 전체 디지털 온라인 시장 매출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25]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TV	1,737	32.6	2,254	29.7	2,609	15.7	3,347	28.3	3,543	5.9
인터넷 VOD	729	18.0	499	−31.5	582	16.7	679	16.7	752	10.8
패키지 상품	210	−8.7	218	3	158	−27.4	99	−37.3	67	−32.3
합계	2,676	24.0	2,971	11.0	3,349	12.7	4,125	23.2	4,362	5.7

※ 인터넷 VOD에는 모바일과 N스크린 서비스의 매출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에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는 디지털 온라인 시장 매출 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 TV VOD는 3,543억 원으로 전체 시장에서 81.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인터넷 VOD 매출액은 7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성장했다. 2017년에도 TV VOD의 시장 주도는 이어져, 매출액 3,543억, 시장점유율 81.2%를 차지했다. 전체 디지털 온라인 시장 내 점유율 또한 17.2%로 증가했다. 패키지 상품 매출액은 67억 원으로 매출규모와 점유율이 지속적 하락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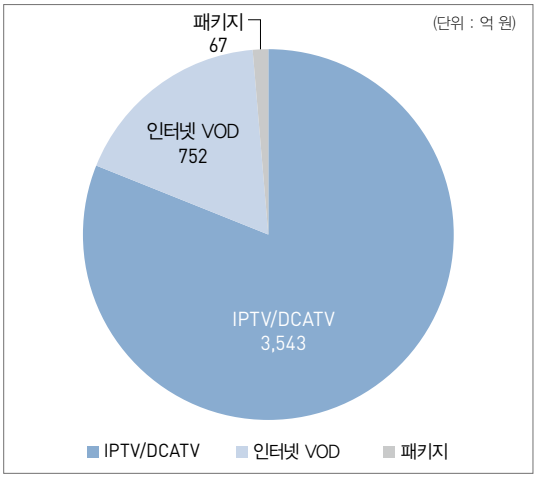
25)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영화 디지털 온라인 유통이 인터넷 VOD라는 표현으로 모두 수렴될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플랫폼을 구분하고자 한다.

구분	설명
IPTV 및 디지털케이블 TV(TV VOD)	KT 올레 tv, 디지털케이블 TV 등 셋톱박스를 이용, TV를 통해 서비스하는 VOD 서비스 플랫폼 (일부 모바일 매출액 포함)
인터넷 VOD	네이버 N스토어 등의 PC 및 모바일 기반 VOD 서비스 플랫폼 / 위디스크 등 웹하드 사이트. 매출액은 영화 온라인 배급사의 데이터에 기초하며,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을 참고하여 추정 산출한다. 넷플릭스는 해외 판권으로 판매되므로 디지털 온라인 시장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패키지 상품	DVD 및 블루레이 매출액

1)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2016년 12월 기준 IPTV 가입자는 1,289만 가구[26], 디지털케이블 TV 가입자는 2017년 10월 기준 779만 가구[27]로 집계되었다. IP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13.5%가량 증가하였으며 향후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플랫폼별 매출비중



〈표 47〉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시장 매출 규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억 원)	1,737	2,254	2,609	3,347	3,543
전년 대비 증감(%)	32.6	29.7	15.7	28.3	5.9

2017년 TV VOD 전체 영화 매출 순위 1위는 〈범죄도시〉 (110.3억 원)가 차지했다. 11월 중순 VOD를 출시한 〈범죄도시〉는 극장 흥행에서는 관객 수 688만 명으로 5위를 차지한 반면, TV VOD 시장에서는 약 118만 건의 이용건수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결산 기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28] 극장동시상영 서비스의 이용이 소비자들 사이에 안착되고, 콘텐츠의 화제성이 꾸준히 이어지면 VOD 소비에도 높은 영향을 끼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해 〈청년경찰〉, 〈프리즌〉 등 범죄 액션 영화가 2017년 TV VOD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극장에서 29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프리즌〉은 TV VOD 시장에서 더욱 강세를 보여 7위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극장에서 최다 관객을 동원한 〈택시운전사〉는 TV VOD 시장에서도 약 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외국영화 부문에서는 〈보스베이비〉, 〈모아나〉 등 애니메이션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26) 「2017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17.11.
27) 「2017년 10월 케이블TV방송 가입자 현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18.1.
28) 한국영화산업 결산 기준 역대 최고 매출 영화는 2014년 〈겨울왕국〉(109.9억 원)이었다.

2016년과 매출액 상위 작품을 비교해보면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작품이 〈곡성〉, 〈부산행〉 등 4편이었으나 2017년은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작품이 6편으로, 상위권 작품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48〉 2017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전체영화 매출 순위

순위	영화명	매출(억 원)	이용 건수
1	범죄도시	110.3	1,179,557
2	택시운전사	63.4	757,798
3	청년경찰	58.5	770,004
4	공조	56.8	957,848
5	보스 베이비	55.8	855,204
6	모아나	51.3	749,103
7	프리즌	48.9	738,040
8	더 킹	46.7	717,845
9	미이라(2017)	46.2	666,581
10	킹스맨 : 골든 서클	44.3	449,680

〈표 49〉 2017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한국영화 매출 순위

순위	영화명	매출(억 원)	이용 건수
1	범죄도시	110.3	1,179,557
2	택시운전사	63.4	757,798
3	청년경찰	58.5	770,004
4	공조	56.8	957,848
5	프리즌	48.9	738,040
6	더 킹	46.7	717,845
7	마스터	43.9	654,574
8	군함도	40.5	547,214
9	판도라	34.6	508,044
10	보안관	28.0	475,624

〈표 50〉 2017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외국영화 매출 순위

순위	영화명	매출(억 원)	이용 건수
1	보스 베이비	55.8	855,204
2	모아나	51.3	749,103
3	미이라(2017)	46.2	666,581
4	킹스맨 : 골든 서클	44.3	449,680
5	분노의 질주 : 더 익스트림	30.7	439,322
6	콩 : 스컬 아일랜드	30.5	376,712
7	닥터 스트레인지	30.4	508,700
8	신비한 동물사전	29.8	450,913
9	스파이더맨 : 홈 커밍	27.9	433,882
10	혹성탈출 : 종의 전쟁	2,714	336,795

2) 인터넷 VOD[29)]

인터넷 VOD 시장은 일반유형의 OSP 매출과 특수유형의 OSP(웹하드) 매출이 골고루 증가세를 보였다. 특수유형의 OSP 매출은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 소폭 성장해 인터넷 VOD 시장에서 27.7%의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 의견에 따르면 웹하드 시장 자체가 다시 성장했다기보다는 TV VOD와 마찬가지로 상위 순위 콘텐츠의 매출 견인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VOD 시장의 72.3%를 차지하는 일반유형의 OSP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성장했다. OTT 사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를 지속 확보하느냐가 향후 인터넷 VOD 매출 성장 여부를 가름할 것이다. 2016년 최초 서비스 이후, 관심이 높았던 넷플릭스 매출은 해외 판권 판매로 집계되어 인터넷 VOD 매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51〉 인터넷 VOD 시장 매출 규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억 원)	729	499	582	679	752
일반유형 OSP(억 원)	339	291	371	534	544
특수유형 OSP(억 원)	390	208	211	145	208
전년 대비 증감(%)	18.0	-31.5	16.7	16.7	10.7

네이버 N스토어의 2017년 한국영화 매출 상위 순위 작품을 보면 TV VOD 시장 순위와 같이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극장에서 흥행한 범죄 액션 영화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리얼〉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 10위권 내에 든 것이 TV VOD 시장과 차이를 보인다. 외국 영화의 경우 2016년 12월에 개봉한 〈라라랜드〉가 1위를 기록했고 〈보스 베이비〉, 〈모아나〉 등 애니메이션이 TV VOD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위 순위를 기록했다. TV VOD에서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상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인터넷 VOD에서는 〈50가지 그림자: 심연〉, 〈플립〉, 〈히든 피겨스〉 등 멜로, 드라마 영화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지는 차이다.

29) 인터넷 VOD 매출액은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콘텐츠유통사 제공 데이터를 기초로 추정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통계로 이해하기보다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표 52〉 2017년 N스토어 영화 이용 순위

한국영화

순위	영화명
1	범죄도시
2	청년경찰
3	더 킹
4	택시운전사
5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
6	공조
7	아이 캔 스피크
8	마스터
9	리얼
10	판도라

외국영화

순위	영화명
1	라라랜드
2	보스 베이비
3	모아나
4	50가지 그림자 : 심연
5	너의 이름은
6	신비한 동물사전
7	닥터 스트레인지
8	플립
9	슈퍼배드 3
10	히든 피겨스

한편 인터넷 VOD 통계 자료 응답 업체 기준, 일반유형 OSP 매출 중 TVOD(단건구매) 매출과 SVOD(월정액제) 매출의 비율은 대략 47:53으로 나타났다.

3) 패키지 시장

패키지 시장 매출은 전년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냈다. 패키지 상품 매출 상위권을 살펴보면 외국 영화로는 〈닥터 스트레인지〉, 〈모아나〉, 〈라라랜드〉 등이 있었고, 한국영화로는 〈밀정〉, 〈부산행〉 등이 있었다. 영화 애호가들을 위한 한정판 블루레이 등 소수 마니아를 위한 상품이 기획, 출시되고 있지만 TVOD와 인터넷 VOD를 통해서도 영화를 소장할 수 있고 부가 영상을 감상할 수 있어 패키지 시장의 축소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표 53〉 패키지 시장 매출 규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억 원)	210	218	158	99	67
전년 대비 증감(%)	-8.7	3	-27.4	-37.3	-32.3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극장 매출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기회로 주목을 받아왔다. 2009년 이래로 꾸준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2017년 다소 더딘 성장을 보였다. TV VOD 시장의 주된 매출 상승 요인이었던 극장 동시상영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가입자는 포화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기존과 같이 최신작 구매를 통한 TV VOD 매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다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작 영화, 온라인 최초개봉 영화 등 다양한 소비 패턴의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태동기를 거친 OTT 서비스는 2017년에도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안착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2016년 1월 출시한 OTT 서비스인 옥수수(oksusu)는 2017년 10월까지 월 순방문자 수 660만 명을 기록했고[30], 푹(Pooq)의 유료가입자 수는 2017년 11월 62만 명을 넘었다[31]. 1개월 무료 이용권 제공, 기간 한정 무료 영화 제공 등 VOD 서비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통한 매출 성장의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2018년 1월 카카오 페이지도 영화 VOD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어, 2018년 온라인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온라인 유통 콘텐츠의 제작 증가와 IPTV 최초개봉영화 등 부가판권 전용 콘텐츠의 증가 또한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 〈옥자〉의 개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망과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멀티플렉스의 상영 보이콧으로 극장 배급은 소규모에 그쳤고, 〈옥자〉로 인한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폭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32] 온라인 플랫폼들의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이 2017년 극장과 디지털 온라인 시장 판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업계도 동의하고 있다. 2018년에도 넷플릭스의 〈킹덤〉뿐 아니라, KT와 SK에서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와 시장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정확한 계측과 영화 온라인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성장 기반이 된다. 따라서 '영화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의 데이터 연동 확대로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30) 〈넘버원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 매일경제, 2017.12.12.
31) 〈푹TV "B2B 제휴로 동력 확보"〉 디지털타임스, 2017.11.20.
32) 〈넷플릭스 '옥자효과' 끝났나 … 사이트 방문자 다시 '뚝'〉, 연합뉴스, 2017.7.27.

마. 해외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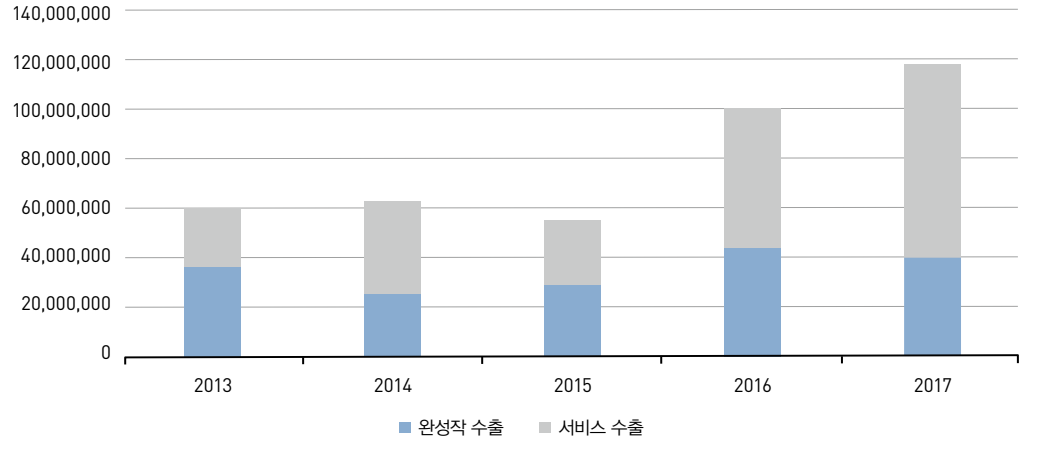
2017년 완성작 수출과 서비스 수출 금액을 합친 한국영화 해외 매출액은 118,788,879달러로 전년 대비 17.5% 늘어났다. 완성작 수출액은 전년 대비 7.2%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출액은 36.5% 늘어나 서비스 수출액이 완성작 수출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기록하면서 해외매출 총액 증가를 견인했다.

〈표 54〉 2013–2017년 해외 매출액(완성작 수출액+서비스 수출액)

(단위 : USD)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외 매출액		59,459,856	63,084,427	55,500,500	101,090,140	118,788,879
	완성작 수출액	37,071,445	26,380,475	29,374,098	43,893,537	40,726,157
	서비스 수출액	22,388,411	36,703,952	26,126,402	57,196,603	78,062,722
전년 대비 증감(%)		58.8	6.1	–12.0	82.1	17.5

〈그림 11〉 2013–2017년 해외매출액(완성작 수출액+기술서비스 수출액) 추이



1) 완성작 수출

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은 총 40,726,157달러로 전년 대비 7.2% 하락했다. 계약금액은 34,771,671달러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해 2005년 7599만 달러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현지 배급 수익[33] 금액이 전년 대비 56.8%나 하락하는 바람에 완성작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4천만 달러를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33) 전년까지는 현지 배급에 따른 수익을 '추가수익(overage)'라고 지칭하였으나 올해부터 현지 배급사에 의한 배급 및 상영에 따른 추가수익뿐 아니라 한국회사 직접 배급에 따른 수익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현지 배급 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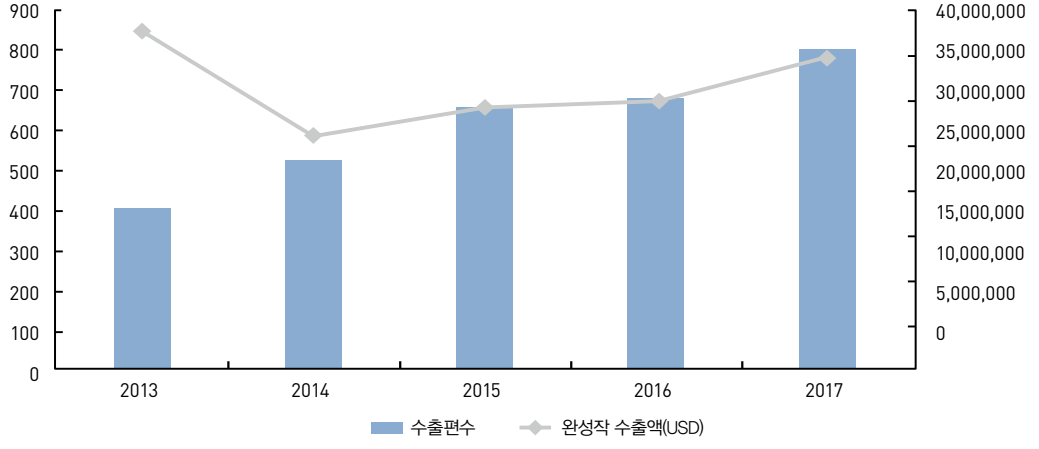
〈표 55〉 2013–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현황

(단위 : USD)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완성작 수출액	37,071,445	26,380,475	29,374,098	43,893,537	40,726,157
계약금액 (MG+Flat+기타)	34,156,895	18,636,519	16,823,335	30,106,468	34,771,671
현지배급수익 (Overage+직배+기타)	2,914,550	7,743,956	12,550,763	13,787,069	5,954,486
전년 대비 증감(%)	83.7	-28.8	11.3	49.4	-7.2
수출 편수(편)*	403	529	650	679	802
평균 수출가**	84,756	35,230	25,882	44,339	43,356

* 수출 편수에는 현지배급수익 발생 작품 수는 포함하지 않음.
** 평균 수출가 = 계약금액 / 수출 편수

〈그림 12〉 2013–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편수·수출액(계약총액기준)



2017년 해외 판매 한국영화 수출편수는 총 802편으로 전년 대비 123편 늘어났으며 수출편수 증가에 비해 계약금액 증가가 미치지 못하면서 평균 수출가는 43,356달러로 전년 대비 2.2% 하락했다.

올해 수출 실적 가운데 두드러진 경향은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OTT 사업자의 한국영화 구매자로서의 활약이다. 2016년 〈부산행〉과 〈판도라〉의 전 세계 배급권을 넷플릭스가, 〈아가씨〉의 미국 배급권을 아마존 산하의 아마존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강철비〉, 〈염력〉 등이 국내 개봉 전에 넷플릭스에 팔렸다.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전액을 투자한 〈옥자〉는 칸영화제 상영과 국내 개봉 시 여러 논란을 불러온 바 있는데, 영화산업에 날로 확장되고 있는 OTT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에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들은 기존 바이어들과 달리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권역의 모든 판권을 한 번에 구매하기 때문에 극장 개봉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출 방식일 수 있다.

2016년에는 〈부산행〉, 〈아가씨〉 등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 받은 영화들이 수출 지역 숫자뿐 아니라 현지 개봉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7년에는 수출 지역 숫자에서는 〈신과 함께〉, 〈군함도〉, 〈악녀〉 등이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신과 함께〉, 〈염력〉 등 그간 한국영화에서 다소 부족한 장르로 평가받았던 SF영화들이 수출액에서는 돋보인다.

권역별 한국영화 수출액은 중남미 시장과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중남미 권역 수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해, 기타로 분류된 전세계를 대상으로 OTT사업자 대상 수출 계약이 포함된 기타 권역이 없었다면 2017년 한국영화 수출금액은 대폭 하락을 면치 못했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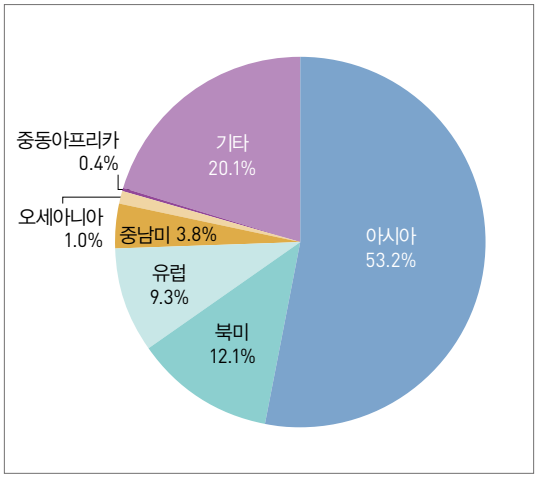
〈표 56〉 2016–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 현황

권역	수출액(USD)				전년 대비 증감
	2016년	비중(%)	2017년	비중(%)	
아시아	27,624,619	62.9	21,684,201	53.2	–21.5
북미	10,524,496	24.0	4,933,250	12.1	–53.1
유럽	4,130,957	9.4	3,801,695	9.3	–8.0
중남미	847,820	1.9	1,540,452	3.8	81.7
오세아니아	504,645	1.1	411,274	1.0	–18.5
중동	210,500	0.5	158,500	0.4	–24.7
기타(전세계)	50,500	0.1	8,196,785	20.1	16131.3
계	43,893,537	100	40,736,157	100	–7.2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중 동남아 지역 수출액을 집계해 본 결과, 총 6,948,900달러로 아시아 수출액에서는 32.0%, 전체 수출액 중에서는 17.1%를 차지했다. 중남미 지역은 계약건수도, 수출금액도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으며 다양한 영화가 수출되고 있어 향후가 기대된다.

한국영화가 가장 많이 판매된 주요 10개국 수출현황에서는 전통의 강자 일본이 2013년 이후 4년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는 일본 수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 13.5%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년도 각각 1, 2위를 차지한 미국, 중국의 급격한 하락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 수출액은 4,895,393달러로 평년 수준을 기록했으며, 극장 추가수익의 강세와 더불어 〈검은 사제들〉, 〈마스터〉와 같은 인기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고액에 계약되었다. 한편 미국 수출액은 3,102,633달러로 67.7%, 중국 수출액은 3,172,200달러로 54.9% 하락했다. 중국의 경우 한한령 등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감소로 볼 수 있지만, 대만, 홍콩까지 감소한 것은 한국영화 경쟁력 감소로 봐야 할 것이다. 인도가 새로 10위에 들어왔는데 이는 리메이크 판권의 구매로 인한 것이다.

〈그림 13〉 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액 비중



〈표 57〉 2016–2017년 주요 15개국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현황

순번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
		수출액(USD)	비중(%)	수출액(USD)	비중	
1	일 본	4,314,248	9.8	4,895,393	12.0	13.5
2	대 만	3,931,811	9.0	3,326,513	8.2	–15.4
3	중 국	7,037,540	16.0	3,172,200	7.8	–54.9
4	미 국	9,614,673	21.9	3,102,633	7.6	–67.7
5	싱가포르	2,422,395	5.5	2,213,700	5.4	–8.6
6	프랑스	1,114,731	2.5	1,684,491	4.1	51.1
7	필리핀	1,941,235	4.4	1,648,000	4.0	–15.1
8	베트남	985,977	2.2	1,482,346	3.6	50.3
9	홍 콩	4,408,203	10.0	1,233,829	3.0	–72.0
10	인도(신규진입)	257,000	0.6	967,500	2.4	276.5
11	태 국	515,943	1.2	856,415	2.1	66.0
12	말레이시아	889,868	2.0	760,000	1.9	–14.6
13	호주(신규진입)	474,645	1.1	378,774	0.9	–20.2
14	독일	720,880	1.6	260,770	0.6	–63.8
15	기 타(전세계판권 포함)	5,264,388	12.0	14,743,593	36.2	180.1
	합 계	43,893,537	100	40,726,157	100	–7.2

완성작 수출금액을 판권 유형별로 나누어 본 결과, 전판권 계약이 2016년 대비 46.7% 증가하면서 전체 계약의 71.1%를 차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역시 OTT사업자와의 전판권 계약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표 58〉 2016–2017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계약 판권 유형

판권 유형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USD)	비 중(%)	금 액(USD)	비 중(%)	
전판권(All Rights)*	16,842,920	55.9	24,710,624	71.1	46.7
부가판권**	11,742,759	39.0	8,325,077	23.9	–29.1
리메이크	1,110,000	3.7	1,631,900	4.7	47.0
극장판권	410,789	1.4	104,070	0.3	–74.7
합 계	30,106,468	100	34,771,671	100	15.5

* 일부 별도 조건부 계약 건도 포함.
** 비디오, DVD/Blu-Ray, VOD, 인터넷, PPV, 기내판권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
※ 본 유형별 분석은 계약 당시의 실적(MG+Flat+기타)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서비스 수출 부문[34)]

2017년 한국 영상 분야 서비스 수출은, VFX 업체의 중국 대작 수주가 유난히 돋보였다. 한한령은 완성작 수출(중국 지역 수출액 55% 감소), 로케이션 유치(중국 작품 수 '06 13편 → '07 0편) 두 부문에서는 뚜렷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기술 서비스 수출에서는 예외였다. 이에 힘입어 서비스 수출 금액은 총 78,062,722 달러로 2011년 첫 조사 이래 최대 수치를 경신하였는데 이중 기술 서비스 부문(VFX ·DI, 3D, 사운드, 특수효과 등)이 90%를 차지하였다.

〈표 59〉 2013–2017년 영상 분야 서비스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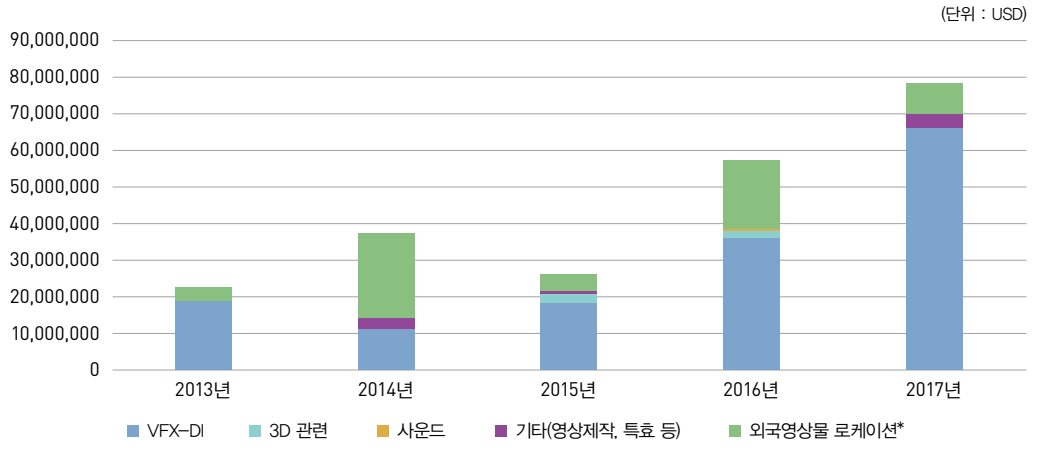
(단위 : USD)

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
기술 서비스		18,950,929	14,042,809	21,372,505	38,613,215	70,184,428	81.8
	VFX·DI	18,845,429	10,995,259	18,179,820	36,096,838	65,953,928	82.7
	3D 관련	–	–	2,541,312	1,884,117	0	–100.0
	사운드	89,000	102,600	54,000	231,400	30,500	–86.8
	기타(특효 등)	16,500	2,944,950	597,373	400,860	4,200,000	947.8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3,472,483	22,661,143	4,753,897	18,583,388	7,878,294	–57.6
합 계		22,423,412	36,703,952	26,126,402	57,196,603	78,062,722	36.5

* 외국영상물이 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할 경우, 국내에서 집행한 금액임.

34)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 부문의 실적은 2017년도 해외 수주 실적이 있는 총 5개 분야(VFX ·DI, 3D ·3D컨버팅, 사운드믹싱, 기타, 외국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와 부산영상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영상물의 국내집행금액을 집계하였다. 수주 실적이 예상되지만 금액을 밝히지 않은 업체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4〉 2013–2017년 영상 분야 서비스 수출 부문별 추이



〈표 60〉 2013–2017년 영상 분야 기술서비스 권역/국가별 수주 현황

권 역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중국	7,519,493	39.7	8,398,734	59.8	17,023,565	79.7	37,634,215	97.5	54,772,263	78.0
	홍콩	6,849,346	36.1	1,185,000	8.4	3,754,940	17.6	952,000	2.5	13,850,000	19.7
	일본	1,004,100	5.3	3,632,303	25.9	–	–	–	–	202,000	0.3
	기타	27,000	0.1	70,200	0.5	100,000	0.5	27,000	0.1	92,665	0.1
북미	미국	1,224,990	6.5	454,667	3.2	472,000	2.2	–	–	–	–
유럽		2,326,000	12.3	301,905	2.1	22,000	0.1	–	–	1,267,500	1.8
합 계		18,950,929	100	14,042,809	100	21,372,505	100	38,613,215	100	70,184,428	100

2017년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 집행금액은 7,878,294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년 〈옥자〉와 〈센스8 시즌2〉 등 OTT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 로케이션 촬영으로 인해 급증했던 수치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8%가량 감소한 것이다. 로케이션 촬영 편수는 2015년 25편, 2016년 41편에 이어 올해는 23편을 기록, 역시 2015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61〉 2015–2017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단위 : USD)

권 역	국 가	2015년		2016년		2017년	
		집행금액	비중(%)	집행금액	비중(%)	집행금액	비중(%)
북미	미국	182,979	3.85	16,984,196	91.40	6,318,130	80.20
	캐나다	2,872	0.06	–	–	–	–
아시아	중국	3,677,395	77.36	1,562,207	8.41	–	–
	대만	21,640	0.46	9,614	0.05	141,300	1.79
	홍콩	1,280	0.03	–	–	36,050	0.46
	베트남	6,120	0.13	–	–	164,700	2.09
	필리핀	–	–	–	–	287,100	3.64
	말레이시아	–	–	–	–	130,815	1.66
	태국	26,860	0.57	13,898	0.07	–	–
	일본	772,364	16.25	12,708	0.07	12,915	0.16
	기타	–	–	–	–	119,700	1.52
유럽	프랑스	–	–	–	–	664,461	8.43
	기타	61,206	1.29	765	0.004	774	0.01
오세아니아 및 중남미		1,181	0.02	–	–	2,349	0.03
합 계		4,753,897	100.0	18,582,623	100.0	7,878,294	100.0

※ 자료 : 서울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블랙 팬서〉 등 총 4편을 촬영하여 2016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다. 집행금액은 전년보다 1,000만 달러 정도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이 워낙 많이 감소한 탓에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경우 TV시리즈 〈탱크–시즌2〉 등의 촬영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집행금액 2위, 작품 수 13편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우 2017년에는 단 한 작품도 한국에서 촬영하지 않았다. 이는 2016년 하반기 한한령 이후 한국 로케이션을 고려했던 중국영화와 드라마들이 계획을 취소하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작품의 집행금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장르별로는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웹드라마가 줄어든 대신 홍콩, 대만 등의 예능프로그램 로케이션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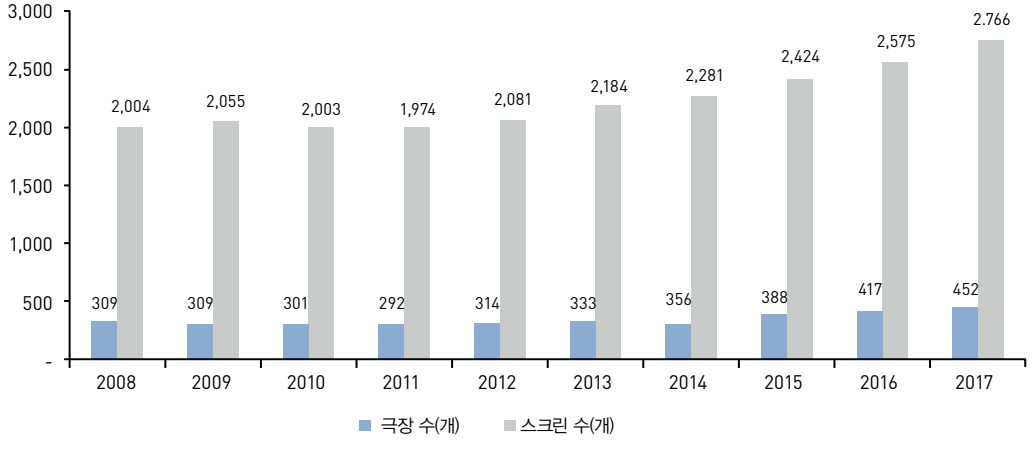
바.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35)]

2017년 전국 극장 수는 전년도 417개에서 8.4% 증가한 452개로 집계됐다. 2017년 스크린 수는 전년 대비 7.4% 늘어난 191개로 2,766개가 되었다. 좌석 수도 437,782개로 2016년 대비 16,746개 늘어나 4.0%가 증가했다. 3D, IMAX, 4D 상영이 가능한 스크린은 각각 1,045개, 18개, 42개로 '특수상영관'이 전체 스크린 중 39.9%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62〉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연도	총 관객(만 명)	극장 수(개)	스크린 수(개)	좌석 수(개)
2017	21,987	452	2,766	437,782
2016	21,702	417	2,575	421,036
2015	21,729	388	2,424	398,702
2014	21,506	356	2,281	372,361
2013	21,335	333	2,184	349,669
2012	19,489	314	2,081	358,659
2011	15,979	292	1,974	341,905
2010	14,681	301	2,003	349,640
2009	15,696	305	2,055	360,796
2008	15,083	309	2,004	362,657

〈그림 15〉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35) 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직영 및 위탁 경영 지점과 기타 7개관 이상 모든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집계하고 있다.

2017년에 전국의 신설 극장은 총 47곳인데, 휴폐관 극장이 8곳, 기존 극장이 신규 오픈한 곳이 4곳으로 총 35개가 증가하였다. 신규 극장 중에는 경기도가 총 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전라남도가 7곳, 경상북도가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인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극장수가 전년 대비 50.0%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눈여겨 볼 점은 경상북도 경주의 씨네Q 경주보문, 구미의 씨네Q 구미봉곡점의 신설이다. 배급사 NEW가 극장사업에 뛰어들면서 신규 개설한 것으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경주 약 26만 명, 구미 약 42만 명) 첫 문을 열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신설 극장 중 작은영화관[36]은 총 6곳으로 강원도 정선군의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전라남도 진도군의 '진도아리랑 시네마', 완도군의 '빙그레시네마',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시네마', 태안군의 '태안 작은영화관', 경상북도 영천군의 '영천 별빛영화관'이다.

〈표 63〉 2017년 신규 개설 극장

번호	광역단체	기초단체	영화관명	대기업 운영여부	총 스크린 수	총 좌석 수	개관일	비고
1	서울시	강북구	롯데시네마 수유	직영	6	852	17. 04. 26	
2	서울시	강서구	메가박스 마곡	직영	6	815	17. 09. 25	
3	서울시	도봉구	메가박스 창동	위탁	5	680	17. 01. 20	
4	서울시	중구	CGV 동대문	직영	6	676	17. 12. 19	
5	부산시	기장군	CGV 정관	위탁	9	654	17. 12. 23	
6	부산시	기장군	메가박스 정관	위탁	6	578	17. 12. 07	
7	부산시	사하구	CGV 하단	위탁	7	888	17. 03-03	
8	부산시	중구	롯데시네마 대영	직영	6	982	17. 03. 16	(구)대영시네마
9	인천시	남구	롯데시네마 인천터미널	직영	4	563	17. 11. 25	
10	인천시	서구	메가박스 청라지젤	위탁	7	784	17. 10. 25	
11	인천시	연수구	CGV 연수역	직영	9	1,498	17. 07. 14	
12	인천시	연수구	메가박스 송도	직영	8	1,542	17. 04. 28	
13	광주시	동구	CGV 광주충장로	위탁	5	719	17. 01. 26	
14	경기도	고양시	메가박스 고양스타필드	직영	9	1,222	17. 08. 17	
15	경기도	광주시	CGV 경기광주	위탁	8	1,202	17. 09. 30	
16	경기도	성남시	롯데시네마 위례	직영	7	1,000	17. 09. 01	
17	경기도	시흥시	CGV 배곧	직영	6	853	17. 12. 29	
18	경기도	시흥시	메가박스 시흥배곧	위탁	6	1,227	17. 06. 15	
19	경기도	용인시	CGV 용인	위탁	8	1,398	17. 12. 21	(구)롯데시네마 용인

3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50석 내외 2개관 규모) 상설 상영관을 말한다.

번호	광역단체	기초단체	영화관명	대기업 운영여부	총 스크린 수	총 좌석 수	개관일	비고
20	경기도	평택시	CGV 평택소사	직영	6	750	17. 02. 22	
21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	1	286	17. 03. 15	
22	강원도	원주시	롯데시네마 원주무실	위탁	8	1,079	17. 06. 29	
23	강원도	정선군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	2	101	17. 05. 19	작은영화관
24	강원도	춘천시	메가박스 남춘천	위탁	7	1,134	17. 03. 16	
25	충청북도	청주시	메가박스 오창	위탁	8	1,013	17. 12. 13	
26	충청남도	부여군	스타박스	~	2	166	17. 01. 18	
2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시네마	~	2	99	17. 04. 12	작은영화관
2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시네마	~	2	99	17. 09. 25	작은영화관
29	충청남도	홍성군	메가박스 홍성내포	위탁	5	657	17. 09. 27	
30	전라북도	군산시	롯데시네마 군산나운	직영	7	1,027	17. 11. 01	
31	전라남도	광양시	CGV 광양	직영	4	670	17. 04. 28	
32	전라남도	광양시	CGV 광양아울렛	위탁	7	1,204	17. 01. 24	
33	전라남도	나주시	CGV 나주	위탁	6	665	17. 09. 28	
34	전라남도	순천시	CGV 순천신대	직영	9	1,449	17. 12. 29	(구)메가박스 신대(순천)
35	전라남도	여수시	메가박스 여수웅천	위탁	8	1,064	17. 12. 20	
3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빙그레시네마	~	2	98	17. 09. 26	작은영화관
3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아리랑 시네마	~	2	98	17. 07. 20	작은영화관
38	경상북도	경주시	씨네Q 경주보문	직영	6	767	17. 08. 24	
39	경상북도	구미시	씨네Q 구미봉곡	직영	5	502	17. 12. 07	
40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	~	1	76	17. 10. 12	작은영화관
41	경상북도	포항시	메가박스 남포항	직영	6	663	17. 09. 26	
42	경상북도	포항시	인디플러스 포항	~	1	262	17. 02. 22	
43	경상남도	김해시	CGV 김해장유	위탁	6	968	17. 01. 25	
44	경상남도	사천시	메가박스 삼천포	위탁	3	90	17. 07. 19	
45	경상남도	양산시	메가박스 양산	직영	6	933	17. 05. 01	
46	경상남도	통영시	CGV 통영	위탁	6	735	17. 08. 02	2014 영업종료후 17년 재개관
47	제주도	제주시	CGV 제주노형	직영	6	857	17. 09. 13	(구)롯데시네마 제주

〈표 64〉 2017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단위 : 개)

지역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서울	86	83	3	3.6%	555	533	22	4.1%	94,953	92,300	2,653	2.9%
부산	30	27	3	11.1%	216	200	16	8.0%	35,622	38,386	-2,764	-7.2%
대구	23	23	0	0.0%	143	143	0	0.0%	22,406	22,888	-482	-2.1%
인천	25	23	2	8.7%	161	146	15	10.3%	26,022	23,697	2,325	9.8%
광주	15	13	2	15.4%	112	106	6	5.7%	17,846	18,029	-183	-1.0%
대전	10	10	0	0.0%	66	66	0	0.0%	11,692	11,692	0	0.0%
울산	6	6	0	0.0%	38	38	0	0.0%	6,466	6,320	146	2.3%
세종	2	2	0	0.0%	12	12	0	0.0%	1,843	1,843	0	0.0%
경기	100	92	8	8.7%	638	588	50	8.5%	99,818	92,370	7,448	8.1%
강원	19	17	2	11.8%	101	83	18	21.7%	14,203	12,010	2,193	18.3%
충북	13	13	0	0.0%	94	94	0	0.0%	15,661	16,020	-359	-2.2%
충남	21	18	3	16.7%	103	95	8	8.4%	13,264	13,061	203	1.6%
전북	24	24	0	0.0%	107	107	0	0.0%	15,656	15,702	-46	-0.3%
전남	18	12	6	50.0%	97	68	29	42.6%	13,482	9,588	3,894	40.6%
경북	26	21	5	23.8%	129	110	19	17.3%	19,628	17,497	2,131	12.2%
경남	29	27	2	7.4%	162	153	9	5.9%	25,059	25,080	-21	-0.1%
제주	5	6	-1	-16.7%	32	33	-1	-3.0%	4,161	4,548	-387	-8.5%
총계	452	417	35	8.4%	2,766	2,575	191	7.4%	437,782	421,036	16,746	4.0%

2017년 전국 극장 452개 중 79.9%에 해당하는 361개가 멀티플렉스 극장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3대 체인 및 기타 7개관 이상의 극장을 포괄하는 만큼 스크린 수는 전체의 94.2%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멀티플렉스의 관객 점유율은 총 관객 수의 97.7%, 총 매출 점유율은 98.4%에 이른다.

〈표 65〉 2017년 멀티플렉스 비중

지역	극장 수(개)			스크린 수(개)			관객 수(천 명)			극장 매출(천 원)		
	전체 극장수	멀티플렉스 극장수	비중(%)	전체 스크린수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비중(%)	전체 관객수	멀티플렉스 관객수	비중(%)	전체 극장매출	멀티플렉스 극장매출	비중(%)
서울	86	68	79.1%	555	531	95.7%	58,092	57,045	98.2%	482,744,673	475,784,484	98.6%
부산	30	27	90.0%	216	210	97.2%	16,417	16,159	98.4%	130,792,947	129,241,360	98.8%
대구	23	19	82.6%	143	139	97.2%	11,616	11,439	98.5%	94,150,240	93,328,373	99.1%
인천	25	20	80.0%	161	148	91.9%	11,352	10,924	96.2%	90,622,508	88,347,647	97.5%
광주	15	13	86.7%	112	110	98.2%	8,105	8,062	99.5%	61,985,564	61,596,814	99.4%
대전	10	9	90.0%	66	65	98.5%	7,582	7,574	99.9%	60,713,473	60,656,480	99.9%
울산	6	4	66.7%	38	35	92.1%	4,684	4,372	93.3%	37,509,589	35,712,073	95.2%

지역	극장 수(개)			스크린 수(개)			관객 수(천 명)			극장 매출(천 원)		
	전체 극장수	멀티플렉스 극장수	비중(%)	전체 스크린수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비중(%)	전체 관객수	멀티플렉스 관객수	비중(%)	전체 극장매출	멀티플렉스 극장매출	비중(%)
세종	2	2	100.0%	12	12	100.0%	943	943	100.0%	7,223,380	7,223,380	100.0%
경기	100	92	92.0%	638	627	98.3%	51,184	51,047	99.7%	411,943,844	411,091,014	99.8%
강원	19	11	57.9%	101	85	84.2%	5,412	4,648	85.9%	40,774,765	36,898,134	90.5%
충북	13	12	92.3%	94	92	97.9%	5,718	5,624	98.4%	43,291,727	42,815,242	98.9%
충남	21	11	52.4%	103	84	81.6%	7,131	6,821	95.7%	54,786,221	53,075,077	96.9%
전북	24	11	45.8%	107	76	71.0%	6,684	5,923	88.6%	50,404,432	46,490,919	92.2%
전남	18	13	72.2%	97	87	89.7%	4,519	4,256	94.2%	31,987,815	30,573,578	95.6%
경북	26	20	76.9%	129	122	94.6%	6,583	6,474	98.3%	50,709,470	50,133,885	98.9%
경남	29	24	82.8%	162	150	92.6%	11,589	11,274	97.3%	89,041,609	87,114,723	97.8%
제주	5	5	100.0%	32	32	100.0%	2,263	2,263	100.0%	17,889,816	17,889,816	100.0%
총계	452	361	79.9%	2,766	2,605	94.2%	219,874	214,848	97.7%	1,756,572,073	1,727,972,999	98.4%

※ 극장 수와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전국 극장 전수조사"에 근거.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상영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멀티플렉스의 관객 수와 매출액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 기준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은 CJ CGV(이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총 3개이다.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 수는 354개로 전국 극장 수의 78.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을 제외한 기타 멀티플렉스 극장은 총 7곳으로 전년 대비 2곳이 증가했다. 3대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는 2,545개로 전체 2,766개 스크린의 9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66〉 2017년 3대 멀티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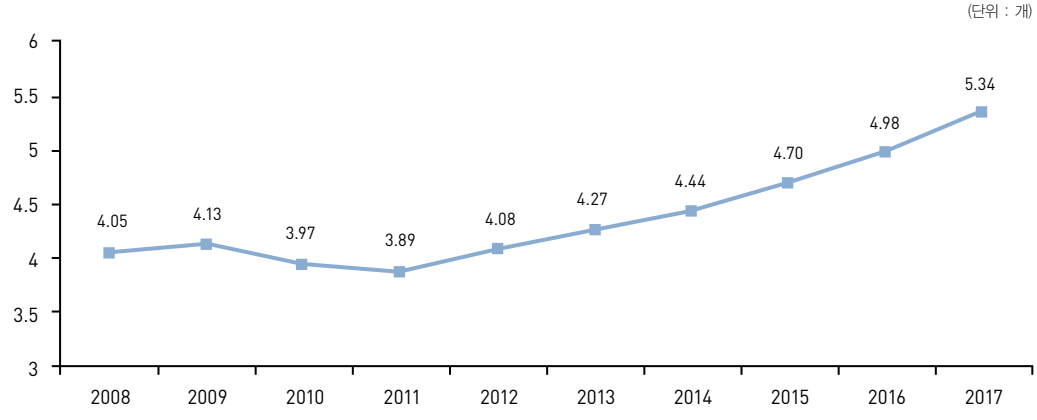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극장 수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스크린 수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좌석 수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운영 형태			
															직영 극장 수	직영 비중	위탁 극장 수	위탁 비중
멀티플렉스	3대 멀티플렉스	CGV	133	996	165,293	145	12	9.0%	1,085	89	8.9%	177,087	7,058	7.1%	99	68.3%	46	31.7%
		롯데시네마	112	793	134,054	114	2	1.8%	810	17	2.1%	135,371	1,317	1.0%	92	80.7%	22	19.3%
		메가박스	85	590	90,189	95	10	11.8%	650	60	10.2%	96,218	6,029	6.7%	39	41.1%	56	58.9%
		소계	330	2,379	389,536	354	24	7.3%	2,545	166	7.0%	408,676	19,140	4.9%	230	65.0%	124	35.0%
	기타 멀티플렉스		5	49	8,975	7	2	40.0%	60	11	22.4%	9,862	887	9.9%	–	–	–	–
	중계		335	2,428	398,511	361	26	7.8%	2,605	177	7.3%	418,538	20,027	5.0%	–	–	–	–
비 멀티플렉스			82	147	22,525	91	9	11.0%	161	14	9.5%	19,244	–3,281	–14.6%	–	–	–	–
극장 총계			417	2,575	421,036	452	35	8.4%	2,766	191	7.4%	437,782	16,746	4.0%	–	–	–	–

※ 집계 대상 멀티플렉스는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체인 극장 및 기타 7개관 이상 극장임(씨네Q 포함)
※ 집계 대상 극장은 전국 상설 영화관으로, 특수 목적의 비상설 상영 시설 및 자동차극장은 제외함
※ 기준일 당시 휴관 및 폐관극장은 제외함
※ 스크린 수, 좌석 수의 경우 기준일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 시점의 수치로 대체함

2017년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37]는 5.34개로 지난해 4.98개보다 0.36개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인구 10만 명당 7.7개 스크린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6.5개, 부산광역시가 6.2개로 뒤를 이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극장과 스크린이 0개인 곳은 63곳으로 강원도 6곳, 경기도 5곳, 경상남도 7곳, 경상북도 12곳, 광주 1곳, 대구 2곳, 대전 1곳, 부산 5곳, 울산 1곳, 인천 1곳, 전라남도 12곳, 충청남도 4곳, 충청북도 6곳이었다. 2016년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극장과 스크린이 0개가 72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9곳이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극장이 없었지만 2017년 신설된 곳은 서울 도봉구(인구 344,166명), 부산 사하구(인구 333,301명), 강원 정선군(인구 38,173명), 충남 예산군(인구 80,338명), 충남 태안군(인구 63,932명), 전남 나주시(인구 110,110명), 전남 광양시(인구 155,857명), 전남 완도군(인구 52,109명), 전남 진도군(인구 31,765명), 경북 영천시(인구 100,615명)로 총 10곳[38]이었다. 이중, 도봉구와 사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2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였다.

〈그림 16〉 2008–2017년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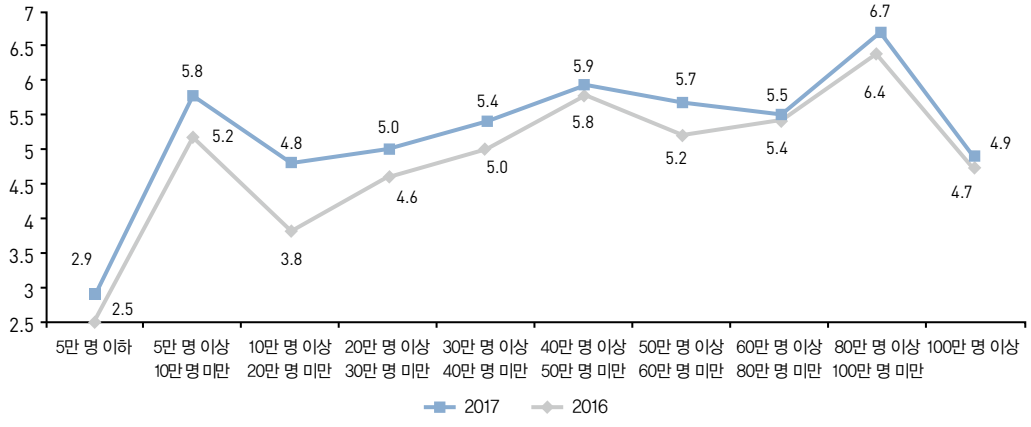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별 10만 명당 스크린 수 평균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구 10만 명 이상 20만 명 미만 구간으로 2016년 3.8개에서 2017년 4.8개가 되었다. 그 뒤는 인구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구간이 0.6개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37) 상세내용은 [부록]의 2017년 전국 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자료 참조
38) 충남 보령시는 2016년 있던 극장 1곳이 2017년 폐업하며 총 0곳이 됨

〈그림 17〉 2016년,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 규모별 10만 명당 평균 스크린 수

(단위 : 개)



사. 한국영화 성(性)인지 통계[39)]

최근 성인지적 관점이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영화산업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심각한 성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산업의 성불균형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 중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성인지 통계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는 것일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매년 발표해 온 〈한국 영화산업 결산〉은 2017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를 포함한다. 영화현장과 관객들의 성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성인지 통계는 지난 5년간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총제작비 10억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인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감독, 제작자, 작가, 촬영 등 핵심 창작의 여성 인력을 파악하고 여성 주연 영화의 개봉 규모와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영화산업의 성인지 통계는 기존 영화산업 통계를 분석하여 여성이 영화산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그리고 성별 불균형은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여성의 위상을 알려 성불균형을 교정하고 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산업의 성불평등은 크게 재현을 문제 삼는 온 스크린(on-screen)과 제작인력 구성을 쟁점화하는 오프 스크린(off-screen)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 성불평등의 심각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두 영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영화협회에서 지원받은 장편영화 프로젝트 기금을 분석한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 감독의 성별과 주연의 성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호주 장편 영화 전체에서 여성이 주연이거나 주제로 다뤄지는 영화는 30%인데, 남성 감독의 영화는 여성 캐릭터나 여성 이슈가 24%였던 반면, 여성 감독의 경우는 무려 74%였다. 이 격차는 핵심 창조 인력의 성별 불균형이 여성의 활동과 이야기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Screen Australia, Gender Matters: Women in the Australian Screen Industry, 2015: 7-8).

〈표 67〉은 온 스크린의 여성 주연 영화와 오프 스크린의 여성 핵심 창작 인력 두 영역 모두를 간소하게나마 조사한 결과다.

39)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시작으로 당해연도 한국영화 산업에 대한 성인지 통계를 제공, 분석하고자 한다. 성인지 통계를 통해 한국영화 산업 내에서 성별에 따라 놓인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평등적 관점과 영화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정확도 높은 성인지 통계를 취합하기에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취약하여, 2017년을 기준으로 5개년간 한국 상업영화 작품과 크레딧을 통해 좁은 범위에서나마 성인지 통계를 집계하였다. 향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성인지 통계 및 분석은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유관 논문 〈성평등 영화 정책을 위한 시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의 저자 조혜영 박사가 작성하였다.

우선 핵심 창작인력의 여성비율을 먼저 보면,(〈표 67〉) 5년간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 수가 100개 이상인 조건에 해당하는 영화가 평균 73편인데 여성이 감독한 상업영화는 평균 5편(6.8%)으로 10%를 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수다. 현재 한국 대학교의 영화 관련 학과나 유관기관의 성비가 거의 50:50을 이루고 2017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여성감독의 비율이 47%(52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이 수치는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업 장편영화 중 여성이 감독한 영화의 편수를 보면 2013년에서 2015년에 비해 2016년과 2017년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이 수치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누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영화산업에 자본의 투입이나 관객수가 줄어 위기가 올 때면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늘 여성 인력이고,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해 보아도 2016년에 비해 2017년은 상업영화 총 편수는 늘었지만 촬영을 제외한 감독, 제작자, 작가 3개 직종 모두에서 여성 참여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 여성 감독의 영화 편수와 비율의 상승이 유의미한 변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제작자나 작가의 경우에는 확실히 감독과 촬영감독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제작자나 작가 분야에 막연하게 여성 비율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던 바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 5년간 여성 제작자가 참여한 상업영화는 평균 16.2편(22.2%), 여성 작가가 참여한 상업영화는 22편(30.1%)이었다. 여성 감독이 참여한 상업영화는 평균 5편(6.8%)이었다. 여성 촬영감독이 참여한 영화는 평균 2.4편(3.29%)으로 핵심 창작 인력 중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기술을 요하거나 팀 내 위계가 강한 분야는 늘 여성의 진입이 가장 더디다. 기술 중에서도 하드웨어를 다루거나 신체적 힘을 요구하는 일은 남성의 일이라는 직종과 역할에 대한 성별 편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화 제작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핵심 인력의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바로 영화산업에, 특히 자본이 대거 몰리는 장편상업영화에 유리천장이 공고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상업영화 제작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핵심직종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극히 적은 상태는 영화산업의 전체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비교할 때 여성의 임금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사소한 통계로만 봐도 전체적으로 영화산업의 자원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직종에서의 여성 역할 모델의 희소와 유리천장의 존재는 여성들이 산업을 떠나게 하거나 경력을 지속해 나가는 단계의 진입을 주저하고 재진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감독과 같은 핵심 직종의 낮은 여성 비율은 영화산업 전문가와 대중에게 '감독은 곧 남성'이라는 옳지 않은 편견을 강화하며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을 깨는 사회적 캠페인과 인식재고가 시급하다.

제작 인력 구성에서의 이와 같은 성별 불균형은 여러 면에서 영화산업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회의 공정성과 창작의 다양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남성동성사회의 성별 편향에 갇혀 인력풀을 넓히지 못하고 각 자리에 최선의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다양성이 사라진 산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적인 수익과 손실에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

에 변화를 위해서는 불균형과 편향성을 고치기 위한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67〉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중 여성 핵심 창작 인력 참여 작품 편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상업영화편수[40]	63	67	70	82	83
감독	4 (6.3%)	3 (4.5%)	3 (4.3%)	8 (9.8%)	7 (8.4%)
제작자	11 (17.5%)	14 (20.9%)	16 (22.9%)	23 (28.0%)	17 (20.5%)
작가	15 (23.8%)	18 (26.9%)	22 (31.4%)	29 (35.4%)	15 (18.1%)
촬영	2 (3.25)	1 (1.5%)	2 (2.9%)	3 (3.7%)	4 (4.8%)

※ 공동크레딧의 경우 여성이 한 명 이상인 경우 포함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영화인 정보 입력 성별 기준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편수 중 비중

〈표 68〉은 지난 5년간 총제작비 10억 이상 혹은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인 상업영화 중 감독이 여성인 영화의 관객 수, 매출액, 최대 스크린 수이다. 표를 보면 관객 수 1백만을 넘긴 영화는 2013년 3편, 2014년 1편, 2015년 0편, 2016년 2편, 2017년 2편, 평균 1.6편으로 매우 적다. 그러나 이 흥행 성적이 성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표본이 적기 때문에 관련 수치들이 극단적으로 변화해 경향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2013년에는 4편 중 3편이 1백만을 넘었기 때문에 여성감독이 만든 상업영화의 75%가 1백만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여성감독의 영화 총 3편 중 1백만이 넘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0%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표본이 워낙 적기 때문에 흥행수치와 감독의 성별을 관계 지어 분석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최대 스크린 수다. 표를 보면 최대 스크린 수 1,000개를 넘는 영화는 전무했으며, 119개(〈시인의 사랑〉)부터 915개(〈해빙〉)까지 천차만별이다. 평균은 550개이다. 알다시피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은 스크린 수와 총제작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아래의 데이터를 통해 유의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아직 여성감독의 영화의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남성감독의 영화의 수치와 다각도로(총제작비, 관객 수, 매출액, 최대스크린 수 등) 비교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표의 단면적이고 단기적인 비교와 해석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성불균형과 편향으로 과소 대표된(under-represented) 영화산업의 여성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8명인 여성 감독이 여성 연출자 및 연출 지망생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한두 명의 감독의 흥행 성적을 성별을 근거로 과잉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의 대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성 감독은 흥행에 성공/부진해도, '남성'이라는 성별을 그 근거로 들지 않는다. 하지만 감독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는 흥행성적, 특히 부진의 근거로 성별이 자주 들먹여진다. 여성 감독이 적기 때문에, 즉 과소

40) 한국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대상작품 기준,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수 100개 이상인 작품

대표되어 있어 때 자꾸 성별이 도드라지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감독의 편수를 늘려 과소대표를 해소해야 한다.

〈표 68〉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감독 작품별 관객 수 및 매출액

연도	영화명	감독	관객 수(명)	매출액(원)	최대 스크린 수(개)
2013	결혼전야	홍지영	1,214,836	8,444,337,719	524
	남쪽으로 튀어	임순례	832,894	5,970,851,500	428
	연애의 온도	노덕	1,865,195	13,798,864,446	567
	집으로 가는 길	방은진	1,854,625	13,048,519,745	740
2014	도희야	정주리	106,511	830,948,100	310
	제보자	임순례	1,755,181	13,515,762,802	676
	카트	부지영	814,233	5,926,917,433	544
2015	비밀	박은경, 이동하(남)	50,196	369,339,300	305
	특종 : 량첸살인기	노덕	616,481	4,754,763,118	776
	파울볼	조정래(남), 김보경	31,137	235,292,500	231
2016	나를 잊지 말아요	이윤정	427,197	3,409,535,000	559
	좋아해줘	박현진	848,148	6,572,774,337	637
	순정	이은희	240,484	1,738,293,033	467
	히야	김지연	21,687	173,844,100	124
	비밀은 없다	이경미	250,650	2,027,801,239	502
	미씽 : 사라진 여자	이언희	1,153,109	8,881,616,256	790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홍지영	1,124,815	8,999,085,248	767
	커터	정희성	21,687	173,844,100	199
2017	메소드	방은진	26,577	215,611,800	244
	부라더	장유정	1,492,903	11,783,109,998	889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홍주연, 홍현정	123,206	876,875,400	234
	시인의 사랑	김양희	2,547	97,464,900	119
	싱글라이더	이주영	351,276	2,685,519,021	576
	유리정원	신수원	22,752	160,437,700	332
	해빙	이수연	1,204,600	9,905,406,822	915

앞에서도 밝혔듯이 성인지적 관점은 제작인력의 성비 불균형뿐만 아니라 재현(on screen), 즉 콘텐츠의 차원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영화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인구구성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남녀의 성비는 거의 50:50인데 이야기와 주제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 비율에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폭넓은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에 다양한 동시대 사회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이 집단으로 주연을 맡는 소위 '브로맨스' 영화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여성 혐오적 콘텐츠를 비판 없이 수용한다면 시장도 점차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기존 관객들을 붙잡이 둘 동력도 잃을 수 있다.

〈표 69~73〉은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41] 중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 크레딧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나오는 영화의 수익성을 분석한 것이다. 여성이 주연인 영화는 최근 5년간 분석 대상이 된 작품 총 321편 중 77편으로 약 24%다. 여성인구 50%를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다. 가장 높은 수치인 33.8%를 기록한 해는 2016년이다. 2016년은 여성 감독의 영화도 총 8편(9.8%)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아 흥미로운 특이점을 보여준다. 이것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연적인지는 보다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통계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015년은 여성이 주연인 영화가 18.8%로 평균에 비해 적지만 관객 수와 매출액에 있어 남성 주연의 작품보다 관객 수와 매출액에 있어 남성주연 영화와 거의 비슷한 유일한 해였다. 배우 전지현 주연의 〈암살〉이 관객 수 천만에 가까운 큰 흥행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 해는 여성 주연 영화의 최대 스크린 수 평균 역시 491개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17년은 여성 주연의 영화가 25.8%로 평균보다 높지만 관객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는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총제작비나 개봉규모가 작은 상업영화가 다수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성 주연영화의 평균 스크린 수도 403개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분명 〈수상한 그녀〉(2014, 1,027개), 〈암살〉(2015, 1,519개), 〈아가씨〉(2016, 1,171개), 〈덕혜옹주〉(2016, 964개) 같은 1,000개 내외 혹은 이상의 스크린 수를 확보하는 영화가 나오는 경우에는 관객 수나 매출액이 높았다. 여성 주연의 상업영화 중 최대 스크린 수 약 1,000개 이상의 영화가 최근 5년간 4편(〈수상한 그녀〉, 〈암살〉, 〈아가씨〉, 〈아이 캔 스피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여성 주연 영화가 규모 면에서 남성 주연 영화보다 전체적으로 작게 기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조건 여성 주연의 영화의 총제작비나 스크린 수가 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원의 분배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주연의 영화도 중소 규모부터 대규모의 영화까지 골고루 기획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에도 이득을 줄 것이다.

2017년 결산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성인지 통계의 원 자료는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 통계는 앞으로 더 긴 기간에 걸쳐, 더 전면적으로, 더 다양하게 조사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영

41) 한국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대상작품 기준,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인 작품

화 산업에서 성별에 따른 작품과 인력의 위상도 더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작은 작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통계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통계 조사의 정확성과 제대로 된 해석을 위해선 무엇보다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올해를 시작으로 성인지 통계조사가 더 확장되고 지속되어 성평등 캠페인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표 69〉 2013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2013년					
구분			평균 관객 수(명)	평균 매출액(원)	편수(비중)
대상작품 전체			2,115,740	15,155,560,677	61
여성주연 작품			866,345	6,118,092,205	12(19.7%)
남성주연 작품			2,421,714	17,368,818,262	49(80.3%)
순번	영화명	주연	관객 수(명)	매출액(원)	스크린 수
1	공범	손예진(여), 김갑수(남), 임형준(남)	1,766,285	12,333,110,882	611
2	끝과 시작	엄정화(여), 황정민(남), 김효진(여)	38,809	274,964,000	185
3	남자사용설명서	이시영(여), 오정세(남), 이원종(남)	507,890	3,606,480,257	372
4	더 웹툰 : 예고살인	이시영(여), 엄기준(남)	1,201,033	8,534,322,070	541
5	더 파이브	김선아(여), 마동석(남), 정인기(남), 이청아(여), 박효주(여), 온주완(남)	731,212	5,343,797,000	501
6	몽타주	엄정화(여), 김상경(남), 송영창(남)	2,095,592	15,002,458,500	544
7	미나문방구	최강희(여), 봉태규(남)	334,323	2,247,017,000	385
8	미스터 고	서교(여), 성동일(남)	1,328,890	9,337,990,000	840
9	완전 소중한 사랑	심이영(여), 임지규(남)	20,303	129,614,500	66
10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여), 고수(남)	1,854,625	13,048,519,745	740
11	짓	서은아(여), 서태화(남) 김희정(여), 곽민호(남)	23,052	162,540,500	159
12	캐치미	김아중(여), 주원(남)	494,126	3,396,292,000	517

〈표 70〉 2014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2014년					
구분			평균 관객 수(명)	평균 매출액(원)	편수(비중)
대상작품 전체			1,711,873	13,136,183,843	62
여성주연 작품			1,266,396	9,225,440,547	13(20.9%)
남성주연 작품			1,721,466	13,299,406,401	48(79.1%)
순번	영화명	주연	관객 수(명)	매출액(원)	스크린 수
1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혜자(여), 이레(여), 최민수(남), 강혜정(여), 이천희(남), 이지원(여), 홍은택(남)	306,119	2,327,822,465	205
2	관능의 법칙	엄정화(여), 문소리(여), 조민수(여)	781,516	5,858,771,500	591
3	내 연애의 기억	강예원(여), 송새벽(남), 박그리나(여)	46,775	358,863,117	182
4	도희야	배두나(여), 김새론(여), 송새벽(남)	106,511	830,948,100	310

5	두근두근 내 인생	송혜교(여), 강동원(남), 조성목(남)	1,624,601	12,291,081,634	629
6	설계	신은경(여), 오인혜(여), 강지섭(남)	45,638	347,188,800	257
7	수상한 그녀	심은경(여), 나문희(여), 박인환(남), 성동일(남), 이진욱(남)	8,656,397	62,696,639,249	1027
8	우아한 거짓말	김희애(여), 고아성(여), 김유정(여), 김향기(여), 유아인(남)	1,618,988	11,727,360,300	573
9	조선미녀삼총사	하지원(여), 강예원(여), 가인(여), 고창석(남), 주상욱(남), 최성민(남)	480,361	3,471,341,321	388
10	카트	염정아(여), 문정희(여), 김영애(여), 김강우(남)	814,233	5,926,917,433	544
11	터널 3D	정유미(여), 연우진(남), 송재림(남), 정시연(여)	80,989	620,874,000	264
12	피끓는 청춘	박보영(여), 이종석(남), 이세영(여), 김영광(남)	1,676,040	11,688,382,888	679
13	한공주	천우희(여), 정인선(여), 김소영(여)	224,978	1,784,536,300	226

〈표 71〉 2015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2015년					
구분			평균 관객 수(명)	평균 매출액(원)	편수(비중)
대상작품 전체			1,609,565	12,550,435,349	64
여성주연 작품			1,611,055	12,534,526,162	12(18.8%)
남성주연 작품			1,609,221	12,554,106,700	52(81.2%)
순번	영화명	주연	관객 수(명)	매출액(원)	스크린 수
1	경성학교 : 사라진 소녀들	박보영(여), 엄지원(여), 박소담(여)	356,342	2,749,027,700	489
2	미쓰 와이프	엄정화(여), 송승헌(남), 김상호(남), 라미란(여), 서신애(여)	988,451	7,387,086,869	437
3	뷰티 인사이드	한효주(여), 김대명(남), 도지한(남), 배성우(남), 박신혜(여), 이범수(남), 박서준(남), 김상호(남), 천우희(여), 우에노 주리(여), 이재준(남), 김민재(남), 이현우(남), 조달환(남), 이진욱(남), 홍다미(), 서강준(남), 김희원(남), 이동욱(남), 고아성(여), 김주혁(남), 유연석(남)	2,054,297	16,155,795,131	648
4	세상 끝의 사랑	한은정(여), 조동혁(남), 공예지(여)	4,746	37,203,300	97
5	암살	전지현(여), 이정재(남), 하정우(남)	98,463,132,781	12,705,700	1519
6	어떤 살인	윤소이(여), 신현빈(여)	17,190	137,025,800	179
7	오피스	고아성(여), 박성웅(남)	441,208	3,460,460,230	425
8	워킹걸	조여정(여), 클라라(여), 김태우(남)	151,550	1,201,963,479	308
9	위험한 상견례 2	진세연(여), 홍종현(남)	472,693	3,575,384,754	429
10	은밀한 유혹	임수정(여), 유연석(남), 곽민호(남)	145,547	1,137,666,247	394
11	차이나타운	김혜수(여), 김고은(여)	1,472,006	11,989,400,678	551
12	헬머니	김수미(여), 정만식(남), 김정태(남), 이태란(여), 이성민(남), 이영은(여), 박준금(여)	522,929	4,120,166,972	422

〈표 72〉 2016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2016년					
구분			평균 관객 수(명)	평균 매출액(원)	편수(비중)
대상작품 전체			1,618,759	12,915,932,655	68
여성주연 작품			1,030,714	8,174,651,747	23(33.8%)
남성주연 작품			1,953,991	15,617,017,774	66.1%)
순번	영화명	주연	관객 수(명)	매출액(원)	스크린 수
1	걷기왕	심은경(여)	95,542	710,905,075	462
2	계춘할망	윤여정(여), 김고은(여), 김희원(남)	482,259	3,599,680,348	526
3	국가대표 2	수애(여), 오달수(남), 오연서(여)	709,929	5,482,232,042	562
4	굿바이 싱글	김혜수(여), 마동석(남), 김현수(여), 김용건(남)	2,108,273	16,912,706,195	841
5	귀향	손숙(여), 강하나(여), 최리(여), 임성철(), 정무성(남), 류신(남)	3,586,929	27,248,705,990	876
6	그날의 분위기	문채원(여), 유연석(남)	652,453	5,142,899,612	592
7	날, 보러와요	강예원(여), 이상윤(남), 최진호(남)	1,063,421	8,836,039,063	683
8	남과 여	전도연(여), 공유(남)	203,775	1,651,122,533	449
9	널 기다리며	심은경(여), 윤제문(남), 김성오(남)	635,235	5,234,303,336	551
10	덕혜옹주	손예진(여), 박해일(남)	5,599,229	44,393,828,109	964
11	멜리스	홍수아(여), 임성언(여), 양명헌(남), 김하유(여)	11,484	90,914,800	141
12	목숨 건 연애	하지원(여), 천정명(남), 진백림(남)	47,805	361,668,800	393
13	무수단	이지아(여), 김민준(남), 도지한(남), 김동영(남), 오종혁(남), 박유환(남), 정진(남)	15,882	126,155,400	228
14	미씽 : 사라진 여자	엄지원(여), 공효진(여)	1,153,109	8,881,616,256	790
15	범죄의 여왕	박지영(여), 조복래(남), 김대현(), 허정도(남)	43,823	343,663,400	270
16	비밀은 없다	손예진(여), 김주혁(남)	250,650	2,027,801,239	502
17	섬. 사라진 사람들	박효주(여), 배성우(남), 이현욱(남)	20,163	162,450,200	206
18	시간이탈자	임수정(여), 조정석(남), 이진욱(남)	1,202,384	9,731,838,195	733
19	아가씨	김민희(여), 김태리(여), 하정우(남), 조진웅(남)	4,287,839	35,211,229,991	1171
20	좋아해줘	이미연(여), 최지우(여), 김주혁(남), 유아인(남), 강하늘(남), 이솜(여)	848,148	6,572,774,337	637
21	죽여주는 여자	윤여정(여), 전무송(남), 윤계상(남)	121,444	884,865,300	317
22	최악의 하루	한예리(여), 이와세료(남), 권율(남)	80,754	639,959,190	199
23	해어화	한효주(여), 유연석(남), 천우희(여), 박성웅(남)	485,695	3,768,200,759	572

〈표 73〉 2017년 한국 상업영화 여성 주연 작품 관객 수 및 매출액(영화명 순)

2017년					
구분			평균 관객 수(명)	평균 매출액(원)	편수(비중)
대상작품 전체			1,607,583	12,759,089,302	66
여성주연 작품			404,921	54,024,327,093	17(25.8%)
남성주연 작품			2,024,833	16,083,174,834	49(74.2%)
순번	영화명	주연	관객 수(명)	매출액(원)	스크린 수
1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박지희(여), 강하나(여), 서미지(여), 홍세나(여), 김시은(여), 남상지(여), 최리(여), 정무성(남), 류신(남), 이승현(여), 정인기(남), 김민수(남)	14,490	105,487,200	207
2	그래, 가족	이요원(여), 정만식(남), 이솜(여), 정준원(남)	46,623	350,293,300	361
3	더 테이블	정유미(여), 한예리(여), 정은채(여), 임수정(여)	103,054	830,762,100	272
4	미옥	김혜수(여), 이선균(남), 이희준(남)	238,713	1,898,713,564	635
5	밤의 해변에서 혼자	김민희(여), 정재영(남)	56,995	438,976,092	133
6	비정규직 특수요원	강예원(여), 한채아(여)	149,720	1,150,739,700	497
7	시간 위의 집	김윤진(여), 옥택연(남), 조재윤(남)	128,975	1,020,724,600	454
8	아이 캔 스피크	나문희(여), 이제훈(남)	3,279,296	25,526,451,186	1,140
9	아티스트 : 다시 태어나다	류현경(여), 박정민(남), 문종원(남), 박정민(남)	6,089	45,549,600	119
10	악녀	김옥빈(여), 신하균(남), 성준(남), 김서형(여), 조은지(여)	1,208,081	9,739,662,144	685
11	여교사	김하늘(여), 유인영(여), 이원근(남), 이원근(남)	118,621	961,785,460	393
12	왕을 참하라	강연정(여), 강윤(남)	4,237	32,469,800	54
13	용순	이수경(여), 최덕문(남), 박근록(남), 김동영(남), 장햇살(여), 최여진(여)	13,203	96,957,200	126
14	유리정원	문근영(여), 김태훈(남), 서태화(남)	22,752	160,437,700	332
15	이웃집 스타	한채영(여), 진지희(여), 임슬옹(남)	10,854	78,213,300	256
16	장산범	염정아(여), 박혁권(남)	1,306,438	10,341,783,083	711
17	채비	고두심(여), 김성균(남)	177,430	1,260,479,864	480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정보 기준 주연 크레딧 가장 처음에 여성이 나오는 경우로 한함
※ 수익성 분석 대상작품 중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제외
※ 스크린 수는 상영기간 중 최대 스크린 수

아.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 수익률

매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극장에서 개봉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제작비 '간이조사'[42]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집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가운데 '상업영화'[43]를 별도로 분류하고 매출과 비용을 추정 집계하여 계산한 추정수익률을 발표한다.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부터는 제작비 조사대상 작품을 '실질개봉작'[44]으로 한정하였다. IPTV VOD 상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비디오물'로서 '극장개봉작'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극장개봉 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작비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비디오물'의 특성상 편당 순제작비와 마케팅비를 산출할 수 없는 작품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런 작품을 제작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전체 통계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제작비 조사가 완료되면, 이렇게 집계된 제작비 내역과 스크린수를 기준으로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배급되는 경향의 영화를 별도로 구분하고 수익률을 분석하게 된다. 연초 결산작업 시점에서는 조사 시기상 극장상영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도 있고 1차 정산이 채 완료되지 않은 작품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매출과 기타비용은 추정치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익년 초에 발표되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의 한국영화 추정수익률은 모든 작품의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실 집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의 수익률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제작비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제작비 조사는 전년도에 이어 '실질개봉작'으로 추정되는 작품에 한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수익성 분석 대상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45]을 제작비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74편에 대한 제작비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42) 이를 '간이조사'라 지칭하는 이유는, 감사보고서 또는 서면의 제작비 내역서를 수거하여 집계하는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상의 '집계조사'와 구분하여 부르기 위함이다.

43)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 한하여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으로 제작되었거나 전국 최대 100개 상영관 이상에서 개봉 상영된 작품을 '상업영화'로 지칭한다.

44) 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의 상영회차인 40회 이상인 작품을 '실질 개봉작'으로 본다. 단, 제작비 조사에는 상영횟수가 40회 미만일지라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독립영화 또는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작품을 포함해 174편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표2〉, 〈표11〉, 〈표21〉의 실질개봉작 164편과 차이가 있다.

45) '수익성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한국 상업영화 투자-제작의 유형을 벗어난 작품은 통계산출 시 전체 평균 제작비 및 수익률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제작비 조사는 진행하더라도 수익성 분석 대상작에서 제외시켜왔는데, 2017년에는 이러한 작품을 제작비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외된 작품은 총 다섯 작품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했던 국제공동제작 애니메이션 〈넛잡2〉, 방송용으로 이미 방영 또는 제작된 버전을 추가 편집하여 극장에서 개봉한 〈레이디버그〉, 〈눈길〉,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이 접목된 극장형 어린이 놀이 뮤지컬 〈드래곤빌리지-화이트니스타운을 구하라〉, 해외 공연실황을 담은 〈노트르담 드 파리〉가 이에 해당한다.

2017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제작비 조사 개요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규 개봉하여 극장에서 상영된 376편의 한국영화 중, '실질개봉작' 총 174편 대상(예외작 제외), 해당작품의 제작사 또는 투자배급사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각 작품의 순제작비 총액과 P&A 비용 총액 전수조사 실시
- 166편 순제작비·P&A비 금액 수거, 8편 미수급(수거율 95.4%)
- 미수급 작품 8편 중 5편은 'IPTV VOD' 상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품으로 추정되어 전년도 개봉작 제작비 조사에 의해 집계된 동일 제작배급사의 유사한 방식과 규모로 제작/배급한 영화 제작비를 대체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3편은 독립영화 인정작으로 확인되어 인정심사 신청 시 제출된 제작비 금액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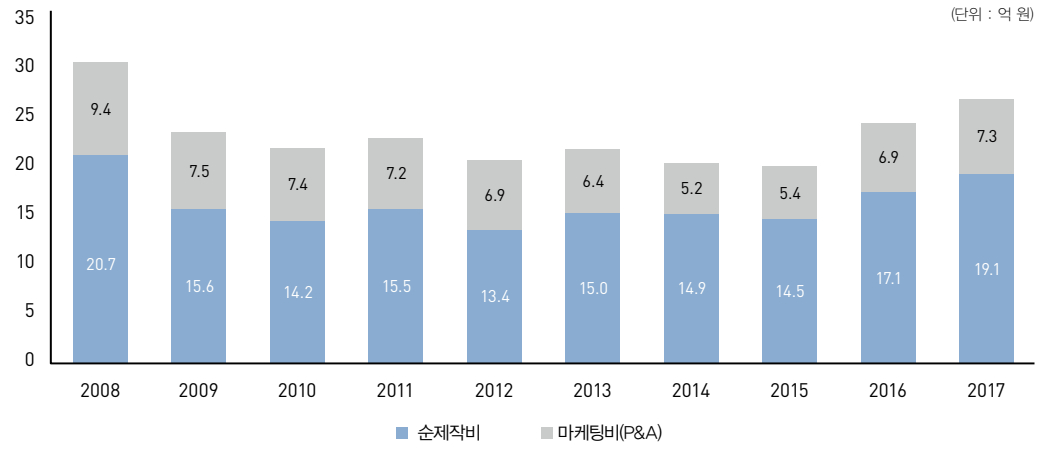
이에 따른 2017년 제작비 조사대상 작품 174편의 순제작비와 마케팅비 총합은 4,582억 원,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2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대상작 편수는 2016년 178편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전년도(24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표 74〉 2008–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구분	편수	순제작비(A)		마케팅비(P&A)(B)		총제작비(A+B)
		평균 순제작비(억 원)	비중(%)	평균 마케팅비(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 (억 원)
2008	108	20.7	68.8	9.4	31.2	30.1
2009	118	15.6	67.5	7.5	32.5	23.1
2010	140	14.2	65.7	7.4	34.3	21.6
2011	150	15.5	68.3	7.2	31.7	22.7
2012	174	13.4	66.0	6.9	34.0	20.3
2013	182	15.0	70.1	6.4	29.9	21.4
2014	217	14.9	74.1	5.2	25.9	20.1
2015	232	14.5	72.9	5.4	27.1	19.9
2016*	178	17.1	71.3	6.9	28.7	24.0
2017*	174	19.1	72.5	7.3	27.5	26.3

※ 2016년부터는 '실질개봉작'에 한하여 집계하였음

〈그림 18〉 2008–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총제작비 구성



P&A를 제외하고 순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전년 대비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75〉과 같이 제작비 조사 대상작을 바탕으로 한국영화 개봉작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순제작비 70억~100억 사이의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100억 이상의 작품편수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순제작비 70억~100억 사이의 고예산 상업영화의 순제작비가 이제는 100억대로 상승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해보인다. 또, 〈표 76〉의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총제작비로 100억 원 이상 소요된 영화가 10편 이상을 유지하며 적지 않은 비중(6.9%)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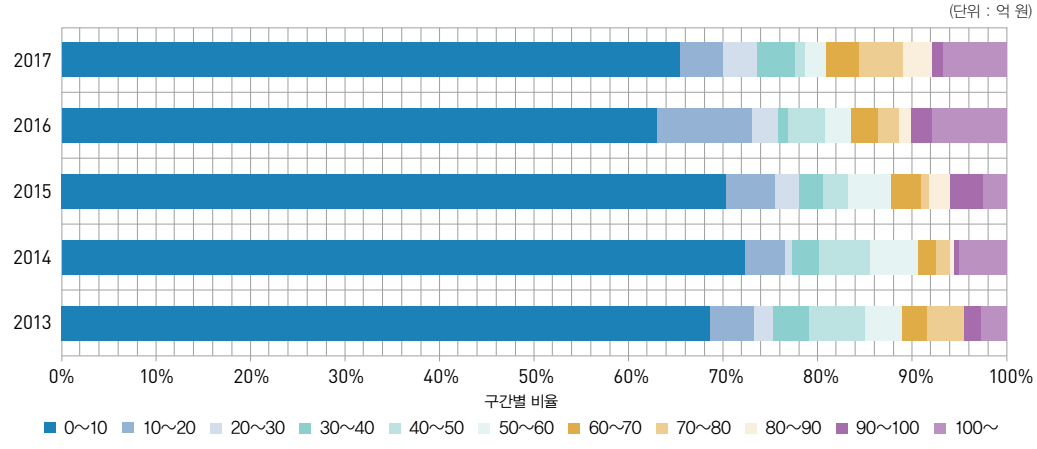
〈표 75〉 2016–2017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순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구간(억 원)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합계
2016	편수(편)	122	13	7	7	7	3	4	4	3	3	5	178
	비율	68.5%	7.3%	3.9%	3.9%	3.9%	1.7%	2.2%	2.2%	1.7%	1.7%	2.8%	100%
2017	편수(편)	117	13	7	6	9	5	5	1	2	1	8	174
	비율	67.2%	7.5%	4.0%	3.4%	5.2%	2.9%	2.9%	0.6%	1.1%	0.6%	4.6%	100%

〈표 76〉 2013–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구간(억 원)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합계
2013	편수(편)	125	8	4	7	11	7	5	7	0	3	5	182
	비율	68.7%	4.4%	2.2%	3.8%	6.0%	3.8%	2.8%	3.8%	0%	1.7%	2.8%	100%
2014	편수(편)	157	9	2	6	12	11	4	3	1	1	11	217
	비율	72.3%	4.1%	0.9%	2.8%	5.5%	5.1%	1.8%	1.4%	0.5%	0.5%	5.1%	100%
2015	편수(편)	162	12	6	7	6	11	7	2	5	8	6	232
	비율	69.8%	5.2%	2.6%	3.0%	2.6%	4.7%	3.0%	0.9%	2.2%	3.4%	2.6%	100%
2016	편수(편)	112	18	5	2	7	5	5	4	2	4	14	178
	비율	62.9%	10.1%	2.8%	1.1%	3.9%	2.8%	2.8%	2.3%	1.1%	2.3%	7.9%	100%
2017	편수(편)	114	8	6	7	2	4	6	8	5	2	12	174
	비율	65.5%	4.6%	3.4%	4.0%	1.1%	2.3%	3.4%	4.6%	2.9%	1.1%	6.9%	100%

〈그림 19〉 2013–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분포 비율



2) 한국 '상업영화' 제작비

전체 개봉작에 대한 전반적인 제작비 조사가 완료되면, 집계된 제작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가운데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배급되는 경향의 영화를 '상업영화'로 별도로 분류하여 매출과 비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2016년부터는 이러한 전체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좀 더 상업성이 높은 영화들을 추출하여 별도의 군으로 분류[46]해 수익성을 분석했다.

46) '최대 개봉관수 300개관 이상이거나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영화를 추출한 것인데, '상업영화'에 대한 기준이 최근의 영화관수 증가와 광역개봉현상의 심화, 제작비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재무적 투자 대상이 될 만한 상업영화'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2016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는 이를 '핵심상업영화군'으로 지칭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B군'으로 달리 지칭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두 영화군을 분리하였고 전체 상업영화를 'A군'으로,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높은 영화군을 'B군'으로 나눠 각각 구간별 편수와 평균 제작비 등을 정리하였다. 이는 같은 군에 속해 있는 영화들 간 제작비 규모 차가 매우 큰 것을 감안한 것인데, 본 보고서에서는 고예산 한국 상업영화의 제작비 증가추세를 반영해, 순제작비 규모별 분석에서 '순제 100억 원 이상' 구간을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전체 한국 상업영화 'A군' 83편의 평균 총제작비는 52.9억 원, 'B군' 56편의 평균 총제작비는 7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인 제작비가 2016년에 비해 높아졌는데, 〈표 77〉에서도 볼 수 있듯, 전체 'A군'의 경우 2017년 평균 총제작비가 전년도 46.7억 원보다 6.2억 원 정도 상승했으며, 'B군'의 평균 총제작비는 전년대비 14.2억 원이 증가하였다.

〈표 77〉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구 분		편수	순제작비(a)		마케팅비(P&A)(b)		총제작비(a + b)
			평균 순제작비(억 원)	비중(%)	평균 마케팅비(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억 원)
2013		63	40.9	69.8	17.7	30.2	58.6
2014		67	35.5	69.8	15.4	30.2	50.9
2015	A군	70	37.4	69.9	16.1	30.1	53.5
	B군	55	45.2	69.7	19.7	30.3	64.8
2016	A군	78	33.3	71.3	13.4	28.7	46.7
	B군	57	43.4	71.4	17.4	28.6	60.8
2017 (간이집계)	A군	83	38.2	72.3	14.6	27.7	52.9
	B군	56	54.5	72.7	20.5	27.3	75.0

※ 2014년 이후부터는 수익성 분석상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작품들(해외공동제작, 공연실황 등)이 제외된 수치이며, 2016년까지의 데이터는 각 년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수급된 실집계금액으로 산출함
※ 2015년 이후부터 평균 제작비는 전년도 투자 수익성 분석 분류기준과 새로 변경된 기준 양쪽 모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A군'와 'B군'으로 나누어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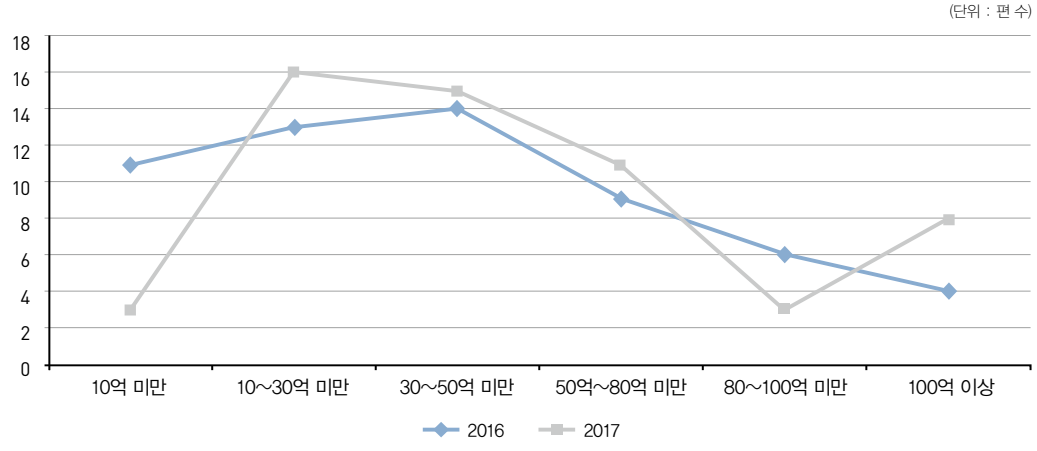
같은 군에 속해 있는 영화들 간에도 총제작비 규모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평균 총제작비 수치만으로는 제작비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 78〉과 같이 2016년과 2017년의 'B군' 작품에 대한 순제작비를 제작비 규모별로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작품 편수와 평균 제작비를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작품 수가 2016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 작품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한 8편으로 확인되었다.

〈표 78〉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B군) 평균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구 분	2016년		2017년(간이집계)		비고
	편수	평균 순제작비(원)	편수	평균 순제작비(원)	
100억 원 이상	4	126억	8	147억	
8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6	89억	3	87억	
50억 원 이상 ~ 80억 원 미만	9	66억	11	60억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14	38억	15	43억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13	20억	16	19억	
10억 원 미만	11	4.8억	3	5.2억	
합계	57	43.4억	56	54.5억	

※ 2016년 데이터는 「2016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수급된 실집계금액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2016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65〉 2016년 데이터(간이집계)와 차이가 있음

〈그림 20〉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B군) 평균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3) 한국 '상업영화' 추정 수익률

2017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계산 방식

매년 초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수록되는 직전년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 개봉영화 제작비 간이조사를 통해 '실질개봉작'의 대략적인 금액의 순제작비와 P&A비용 집계

② '실질개봉작' 중 총제작비(순제작비+P&A비용)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대 100개관 이상에서 상영된 작품을 '상업영화'로 분류

③ '상업영화' 대상,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상의 관객수를 기반으로 여기에 N-1년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상의 관객 1인당 평균부금과 수수료·인센티브의 총매출 대비 비율, 총매출 대비 극장매출 비중을 적용하여 수익률을 추정함

2017년 전체 상업영화 'A군'과 'B군'의 '추정수익률'[47]은 각각 4.7%와 8.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실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산출된 전년도 평균 수익률은 17.6%[4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 추정분석에서는 평균 추정수익률이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표 79〉 2011-2017년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추정치)	
						A군	B군	A군	B군
총매출(a)	293,916	438,458	501,783	424,385	454,884	506,442	499,392	543,045	537,566
총제작비(b)	307,931	325,419	369,485	340,951	374,582	364,122	346,521	438,819	420,194
수수료 등 기타비용(c)	36,769	61,454	70,137	57,433	65,363	78,127	77,188	83,792	82,946
총이익(d=a-b-c)	-50,784	51,585	62,161	26,001	14,939	64,193	75,683	20,434	34,426
평균 수익률(d/b)	-16.5%	15.9%	16.8%	7.6%	4.0%	17.6%	21.8%	4.7%	8.2%
편수	65편	70편	63편	67편	70편	78편	57편	83편	56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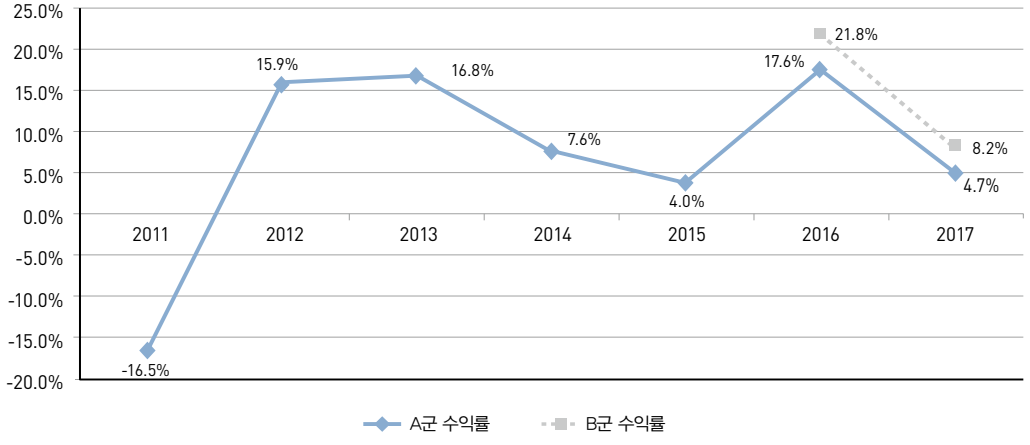
※ 2011-2016년 데이터는 각 년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수급된 실집계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 간이조사에서는 매출발생 시 우선 지급되는 비용(인센티브, 각종 수수료 등 기타 발생비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보고서의 매출액 대비 각종 비용의 비중(15.43%)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였음.

※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까지는 이전년도 수익률을 '총제작비'에 수수료 등 기타 발생비용이 포함된 '총비용'을 기준으로 보정해왔으나, 이번 결산부터는 '수익률'에 대한 정의를 실제 투입된 투자액 대비 거둬들인 수익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총제작비' 기준으로 하여 일괄 보정하였음. 따라서 상기 표의 수익률은 〈2016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67〉 수익률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자세한 수익률 산출방식은 보고서 맨 뒤 참조)

47) 2016년도 수익성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을 추정계산한 값으로 수익성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감사보고서와 상세 조사를 통한 공식 〈2017년 수익성 분석〉 보고서 결과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관객 1인당 부금단가, 극장부금매출과 그 외 매출 간 비중, 인센티브 등 기타비용 발생 정도 증감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그 외 발생요인은 본 보고서 맨 뒤를 참조)

48) 〈2016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추정분석을 통해 발표한 추정수익률(8.8%)과 「2016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에서 집계분석을 통해 발표한 수익률(17.6%)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맨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21〉 2011–2017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추이



한편 83편의 전체 상업영화 'A군' 중 27.7%에 해당하는 23편이, 'B군' 영화는 전체 56편 중 33.9%인 19편이 손익분기점(BEP)을 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수익률 100%를 상회하는 작품은 8편으로 확인되었다.

〈표 80〉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 개봉작 수익률

구 분		2016년		2017년(추정치)		비고
		A군	B군	A군	B군	
대상작 편수		78편	57편	83편	56편	
총제작비(A)	평균 순제작비	33.3억 원	43.3억 원	38.2억 원	54.5억 원	
	평균 마케팅비	13.4억 원	17.4억 원	14.6억 원	20.5억 원	
	합계	46.7억 원	60.8억 원	52.9억 원	75.0억 원	
평균 총매출액(B)		54.9억 원	74.1억 원	55.3억 원	81.2억 원	
평균 수익액(C=B–A)		8.2억 원	13.2억 원	2.5억 원	6.1억 원	
평균 수익률		17.6%	21.8%	4.7%	8.2%	
손익분기점(BEP) 상회 편수		23편	21편	23편	19편	
손익분기점(BEP) 상회 비율		29.5%	36.8%	27.7%	33.9%	
수익률 50% 상회 편수		16편	15편	14편	12편	수익률 100% 상회 포함
수익률 50% 상회 비율		20.5%	26.3%	16.9%	21.4%	수익률 100% 상회 포함
수익률 100% 상회 편수		3편	3편	8편	8편	
수익률 100% 상회 비율		3.8%	5.3%	9.6%	14.3%	
수익률 –50% ↓ 편수		35편	20편	45편	24편	수익률 –90↓포함
수익률 –50% ↓ 비율		44.9%	35.1%	54.2%	42.9%	수익률 –90↓포함
수익률 –90% ↓ 편수		1편	0편	16편	4편	
수익률 –90% ↓ 비율		1.3%	0.0%	19.3%	7.1%	

※ 2016년 데이터는 「2016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수급된 실집계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2016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68〉 2016년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표 81〉를 통해 순제작비 구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우선 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의 작품이 전년도의 두 배인 8편으로 확인되었다. 순제작비 80억 이상의 작품은 11편으로 전년도(10편)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순제 100억 이상의 작품이 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고예산 영화들의 제작비가 더욱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이러한 고예산 영화들이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인 반면, 2017년의 경우, 순제작비 80억 이상 구간의 영화 11편 중 6편만이 손익분기를 넘기며 전년대비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순제작비 30억~50억 원 미만 구간 영화 수치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구간 작품은 15편 중 4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전체 평균 수익률은 0.1%로, 그 수치 자체는 전체 평균 대비 낮은 편이지만, 전년도 적자(-4.6%)에서 흑자로 전환함으로써, 50억 원 이상 영화들의 전반적인 수익률 감소가 전체 평균 수익률 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시켰다. 중예산 수익률 개선 현상은 최근 중예산 영화도 투자할 만하다는 투자배급사의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순제작비 구간별 분석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B군'에서의 '순제 10억 원 미만' 구간의 결과이다. 이 구간은 'B군'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인 '순제작비 30억 이상'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최대 상영 스크린 수 300개 이상'에 속해 대상작에 포함된 작품들이다. 이는 해당 구간의 작품 3편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 작품이 저예산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흥행성적을 올리며 165.9%라는 구간 평균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81〉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구 분	2016년						2017년(추정치)					
	A군			B군			A군			B군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100억 이상	4	4	40.9%	4	4	40.9%	8	5	39.3%	8	5	39.3%
80억 ~ 100억	6	4	82.7%	6	4	82.7%	3	1	23.7%	3	1	23.7%
50억 ~ 80억	9	2	8.9%	9	2	8.9%	11	4	-23.2%	11	4	-23.2%
30억 ~ 50억	14	3	-4.6%	14	3	-4.6%	15	4	0.1%	15	4	0.1%
10억 ~ 30억	18	2	-42.1%	13	2	-34.3%	20	4	-38.0%	16	4	-30.7%
10억 미만	27	8	-17.9%	11	6	12.2%	26	5	-22.2%	3	1	165.9%
전체	78	23	17.6%	57	21	21.8%	83	23	4.7%	56	19	8.2%

※ 2016년 데이터는 「2016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수급된 실집계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2016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69〉 2016년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한편, 총제작비 구간별 분석을 보면, 전반적으로 최상위 제작비 구간의 평균 수익률이 월등히 높고 손익분기 상회 빈도도 높았던 전년도에 비해, 2017년에는 제작비 규모의 증감에 따른 수익률 결과가 2016년도만큼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총제작비 80억~100억 원 미만의 작품들이 전년도에

비해 부진했으며, 총제 10억~30억 원 미만 구간의 작품들은 한 작품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전년도에 이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표 82〉 2016–2017년 한국 '상업영화' 총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구 분	2016년						2017년(추정치)					
	A군			B군			A군			B군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수익률
100억 이상	11	9	68.7%	11	9	68.7%	12	6	32.4%	12	6	32.4%
80억 ~ 100억	7	1	-2.8%	7	1	-2.8%	7	2	-28.7%	7	2	-28.7%
50억 ~ 80억	11	3	-1.2%	11	3	-1.2%	18	6	-0.3%	18	6	-0.3%
30억 ~ 50억	9	1	-31.2%	9	1	-31.2%	9	4	-13.6%	9	4	-13.6%
10억 ~ 30억	19	3	-49.1%	12	3	-37.8%	13	0	-74.5%	8	0	-66.3%
10억 미만	21	6	-26.0%	7	4	7.5%	24	5	-9.0%	2	1	320.4%
전체	78	23	17.6%	57	21	21.8%	83	23	4.7%	56	19	8.2%

※ 2016년 데이터는 「2016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수급된 실집계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2016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70〉 2016년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2017년 평균 수익률은 전체 상업영화 'A군' 4.7%, 'B군' 8.2%로 2012년 한국영화 수익성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 비해 2017년 수익률이 대폭 하락하였는데, '고예산 영화'의 2016년 대비 흥행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6년에는 이러한 '고예산 영화'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 당해년도 전체 평균 수익률(17.6%)을 높이기도 했으며, 2017년에도 여전히 순제작비 80억 원 이상 영화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이 전체 '상업영화' 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예산 영화'의 경우, 제작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대로 흥행이 부진할 경우 일반 상업영화와 손실률이 비슷하더라도 그 손실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마련이다. 2017년에는 총제작비 상위 15편의 작품들 중 손익을 넘긴 작품은 단 6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러한 '고예산 영화'의 수익률이 떨어지며 전체 수익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순제작비 30억~50억 원 규모의 중급영화 수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제작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의 상승률이 전체 수익률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다. 하지만 2017년 전체 평균 수익률의 하락을 완화시키고 흑자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손익분기를 넘긴 작품의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고예산 영화'의 수익/손실 여부가 전체 수익률 결과를 좌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중예산 영화의 상대적 약진 현상을 놓고 2017년 한국 영화산업이 '안정된 구조'로 들어섰다는 평가는 다소 성급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만, 흑자 수익을 내는 중급영화들이 향후에도 2017년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제작자본도 이들의 투자를 더 이상 기피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

본다.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처럼 리스크가 높은 고예산 영화에만 투자를 집중하기보다는 더욱 정보력을 높여 기획력이 좋은 작품 발굴에 힘을 쏟고 투자를 분배하게 될 때 향후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영화산업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공공의 지원이 이러한 중·저예산 영화들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화들이 탄탄한 기획력을 갖춰 시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 – 추정분석과 집계분석 간 차이 발생 원인

-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2017.2.13.발표) 보고서에서 2016년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성을 8.8%('추정분석'으로 칭함)로 발표한 바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 한국 '상업영화' 수익성을 17.6%('집계분석'으로 칭함)로 발표했다.
- 이처럼 2016년도 추정분석과 집계분석의 결과값은 전수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추정치와 모든 작품의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수급된 실제 정산서상의 집계수치 사이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016년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수익성 분석 대상작의 변동**

  2016년 추정분석에서는 극장 개봉영화들 중 총 82편을 '상업영화'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집계분석 당시 수집된 작품별 세부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분석 대상작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분석 대상작에서 제외된 작품이 추정분석에 비해 4작품(방송용 콘텐츠에 추가편집을 더해 극장용으로 개봉한 작품 3편, 해외시장을 겨냥한 국제공동제작 작품 1편)이 늘어나, 총 78편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제외된 4작품 중 1편이 국내보다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한중 공동제작 작품으로 확인되었는데 비교적 제작비 규모가 큰 작품이 제외되면서 최종 평균 수익률에 영향을 주었다.

  ▷ **정산 미도래 작품의 추정분석 시 데이터 정확도**

  연초 결산작업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수조사로 수집되는 작품별 제작비는 조사 시기상 1차 정산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도 상당수이다. 이 경우, 대부분 정산서 상의 실집행금액이 아닌 예산금액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발생된 비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추정분석과 집계분석 간 작품별 제작비 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제작배급과정에서의 증액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되는 작품도 발견되었다. 2017년 작품 역시 정산 미도래로 인해 예산금액이 반영된 작품의 경우 실집계분석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1인당 극장부금단가 및 수수료 등 기타비용**

  추정분석 시 극장부금매출은 분석 대상년도 한국 상업영화 총 관객 수에 전년도 집계분석에 따른 관객 1인당 평균 극장부금매출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년도 관객 1인당 극장부금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하는 경우, 집계분석 시 극장부금 매출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추정분석 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인센티브 포함) 금액은 전년도 집계분석상 총 매출에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연도 총 매출 추정액에 곱하여 추정산정하므로, 이 역시 실제 집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익년 초 발표하는 한국영화 수익성 추정분석은 언제까지나 '추정치'이므로, 실제 집계분석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수익률 데이터를 참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한 2017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분석 수익성도 향후 발표될 수익성 분석 보고서의 실제 집계분석 수익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아래는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한 '극장 외 매출'을 추정하여 적용하는 산술 방식과 총제작비와 총비용에 따른 수익률 산식을 정리한 것이다.

• **2017년도 한국 '상업영화' 극장 외 매출 추정 방식**

① 2017년도 극장부금매출 추정

[산식] 2017년도 한국 '상업영화' 관객 수(1억 2,115만 명) × 2016년도 관객 1인당 부금 단가평균(3,508원) ≒ 4,250억 원 (관객 수는 2018/01/28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

② 추정된 2017년 극장부금매출에 2016년 집계분석 시 집계된 '극장부금매출 : 극장외매출 = 78.26 : 21.74' 비중을 적용하여 2017년 극장 외 매출액 추정

[산식] 극장 외 매출 추정액 = 극장부금매출추정액(4,250억 원) × (21.74÷78.26) ≒ 1,181억 원

• **한국 상업영화 수익성 계산 산식**

= [총매출(극장부금매출 + 극장 외 매출) – 총비용(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순제작비 + P&A비용)]
÷ [총제작비(순제작비 + P&A비용)]

• 아울러, 위원회가 발표하는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은 작품에 투입되는 비용과 발생한 수익의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재무적 영화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투자수익성과는 차이가 있다.

– 작품별로 비용을 넘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재무적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투자수익은 발생 수익의 60%인 경우가 일반적(이 비율을 '투자자의 수익지분'이라고 부르며, 이 비율은 작품별로 투자주관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어서,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률은 한국영화 작품 수익률에 비해 낮게 집계되는 구조다.

〈2016년도 및 2017년도 한국 '상업영화' 매출·비용 추정액 및 집계액〉

구 분			2016년 개봉 '상업영화' 추정액	2016년 개봉 '상업영화' 집계액	2017년 개봉 '상업영화' 추정액
총매출	극장부금매출 Ⓐ		371,276,149,440 (110,433,120명 × 3,362원)	396,356,899,289 (78.26%)	424,986,896,344 (121,147,918명 × 3,508원)
	극장 외 매출 Ⓑ		102,955,744,084 (극장 : 극장 외 = 78.29:21.71)	110,084,787,488 (21.74%)	118,057,949,483 (극장 : 극장 외 = 78.26:21.74)
	소계(Ⓐ+Ⓑ)		474,231,893,524	506,441,686,777	543,044,845,827
총비용	총제작비	순제작비 Ⓒ	265,862,862,980	259,632,026,795	317,226,497,012
		P&A Ⓓ	107,164,711,188	104,489,775,357	121,592,875,808
		소계(Ⓒ+Ⓓ)	373,027,574,168	364,121,802,152	438,819,372,820
	수수료 및 기타비용 Ⓔ		68,289,392,667 (총매출 × 14.4%)	78,126,577,335 (총매출의 15.43%)	83,791,819,711 (총매출 × 15.43%)
	소계(Ⓒ+Ⓓ+Ⓔ)		441,316,966,835	442,248,379,487	522,611,192,531
수익률			8.8%	17.6%	4.7%
분석 대상작 편수			82편	78편	83편

※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추정 수익률(N+1년 초 발표)은 총제작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집계수익률(N+2년 초 발표)은 총비용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영화업계에서는 '총제작비 기준 수익률'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총괄 책임]
산업정책연구팀장 김현수(051-720-4754, myear@kofic.or.kr)

[집필]
1. 극장흥행 : 김성희 객원 연구원, 산업정책연구팀 양소은(051-720-4755, soeunyang@kofic.or.kr)
2. 시장집중도 : 산업정책연구팀 도동준(051-720-4759, djdoh@kofic.or.kr)
3. 독립·예술영화 : 산업정책연구팀 박희성(051-720-4760, heedong21@kofic.or.kr)
4. 디지털 온라인 시장 : 유통지원팀 원은영
5. 해외진출 : 유통지원팀 최지원(051-720-4796, choi@kofic.or.kr), 국제사업팀 유수지, 산업정책연구팀 박희성
6.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 : 산업정책연구팀 김한슬
7. 성인지통계 :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조혜영
8.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 수익률 : 산업정책연구팀 손진아(051-720-4753, ginason@kofic.or.kr), 김현수

[부 록]
산업정책연구팀 김자연(051-720-4752, nature@kofic.or.kr)

3. 부 록

부 록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이월 1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전인환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제작위원회, 엠앤씨에프	㈜모멘텀엔터테인먼트	16. 10. 26
이월 2	순종	김동민, 이주훈	(재)CBS	(재)CBS, ㈜영화사 안다미로	16. 11. 17
이월 3	연애담	이현주	한국영화아카데미	㈜인디플러그	16. 11. 17
이월 4	형	권수경	굿초이스컷픽쳐스㈜	씨제이이앤엠㈜	16. 11. 23
이월 5	나의 살던 고향은	류종헌	후즈닷컴	㈜시네마달	16. 11. 24
이월 6	판도라	박정우	㈜씨에이씨엔터테인먼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6. 12. 07
이월 7	우리 손자 베스트	김수현	㈜인디플러그	㈜인디플러그	16. 12. 08
이월 8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홍지영	㈜수필름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6. 12. 14
이월 9	부릉! 부릉! 브루미즈 : 스피더의 모험 일기	이영준	㈜삼지애니메이션	㈜삼지애니메이션	16. 12. 15
이월 10	마스터	조의석	영화사 집	씨제이이앤엠㈜	16. 12. 21
이월 11	위켄즈	이동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반달	무브먼트	16. 12. 22
이월 12	파파좀비	고현창	㈜인디스토리	㈜인디스토리	16. 12. 29
1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홍	㈜에이디사공육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01. 04
2	여교사	김태용	㈜외유내강	필라멘트픽쳐스	17. 01. 04
3	걱정말아요	소준문, 김대견, 신종훈	㈜레인보우팩토리	㈜레인보우팩토리	17. 01. 05
4	소시민	김병준	영화사 새삶	홀리가든	17. 01. 12
5	문영	김소연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	17. 01. 12
6	7년 – 그들이 없는 언론	김진혁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인디플러그	17. 01. 12
7	더 킹	한재림	㈜우주필름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01. 18
8	공조	김성훈	㈜제이케이필름, 씨제이이앤엠㈜, 영화사 이창,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	17. 01. 18
9	터닝메카드W : 블랙미러의 부활	홍헌표, 김석원	㈜희원엔터테인먼트	씨네그루㈜키다리이엔티	17. 01. 18
10	다른 길이 있다	조창호	영화사 몸	무브먼트, 영화사 몸	17. 01. 19
11	다방의 푸른 꿈	김대현	인디라인	스토리 너머, 아이 엠	17. 01. 26
12	뚜르 : 내 생애 최고의 49일	임정하, 전일우, 박형준, 김양래	미디어길, ㈜영화사 북극곰	㈜리틀빅픽쳐스	17. 02. 01
13	맛있는 워킹걸	화니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2. 02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5세	66	6,304,500	910	98	예술(승인)			
전체	104	31,606,000	3,883	93	예술(승인)			
청불	38	9,082,000	1,251	77	예술(심사)			KAFA
12세	993	15,343,600	2,363	73				
전체	62	1,365,500	201	56	예술(승인), 독립영화			
12세	1,166	2,109,086,900	269,784	9,512				
청불	11	638,000	111	41	예술(심사),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767	362,048,400	43,810	2,223				
전체	194	8,297,000	1,527	112	예술(승인)			
15세	1,501	18,266,731,200	2,212,559	56,076				
15세	12	18,392,700	2,470	195	예술(승인), 독립영화		베를린 파노라마 관객상	
전체	5	662,000	104	40	예술(승인),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542	2,538,805,440	324,526	30,428		문화계정		적립식
청불	393	947,192,460	116,851	6,659	예술(심사)	문화계정		
청불	15	4,320,500	594	189	독립영화			
15세	10	5,585,800	760	75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15세	23	57,651,900	7,530	1,228	예술(승인), 독립영화			
12세	105	129,970,700	17,138	3,352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1,310	43,487,099,535	5,317,383	215,956		문화계정, 영화계정		
15세	1,392	63,783,138,326	7,817,631	285,978		문화계정, 영화계정		첨단영화, 응급의료, 적립식
전체	570	3,215,588,500	429,933	28,292	예술(승인)			
15세	30	17,281,700	2,305	359	예술(심사), 독립영화			개봉지원
전체	4	3,477,500	500	268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개봉지원
12세	227	141,574,700	19,440	5,558	예술(승인), 독립영화			적립식, 국제공동제작, 독립영화 후반, 개봉지원
청불	20	940,000	214	91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14	장기왕 : 가락시장 레볼루션	정다원	오락가락픽쳐스	하준사	17. 02. 02
15	조작된 도시	박광현	㈜티피에스컴퍼니, ㈜영화사심플렉스, 컬쳐메이트	씨제이이앤엠㈜	17. 02. 09
16	그래, 가족	마대윤	㈜청우필름, ㈜26컴퍼니, ㈜데이드림 엔터테인먼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17. 02. 15
17	재심	김태윤	㈜이디오플랜	오퍼스픽쳐스, CGV아트하우스	17. 02. 15
18	레이디버그	장성	㈜삼지애니메이션	㈜삼지애니메이션	17. 02. 22
19	루시드 드림	김준성	㈜로드픽쳐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02. 22
20	싱글라이더	이주영	㈜퍼펙트스톰필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17. 02. 22
21	해빙	이수연	위더스필름㈜, ㈜영화사불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7. 03. 01
22	눈발	조재민	명필름랩	㈜리틀빅픽쳐스	17. 03. 01
23	커피 메이트	이현하	㈜써니엔터테인먼트	㈜스톰픽쳐스코리아	17. 03. 01
24	눈길	이나정	KBS	㈜엣나인필름, CGV아트하우스	17. 03. 01
25	녹화중이야	박민국	노가리필름	노가리필름, ㈜인디플러그	17. 03. 02
26	아티스트 : 다시 태어나다	김경원	㈜영화사소요, ㈜백그림, ㈜실버라이닝 스튜디오	㈜콘텐츠판다	17. 03. 09
27	왕을 참하라	김재수	㈜영화사 조은	㈜박수엔터테인먼트	17. 03. 16
28	비정규직 특수요원	김덕수	㈜스톰픽쳐스코리아, 컴퍼니에이이엔티㈜	㈜이수C&E, ㈜스톰픽쳐스코리아	17. 03. 16
29	옆집소녀	박선욱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03. 21
30	만담강호	오인용	㈜달고나엔터테인먼트, 케이티하이텔㈜	㈜인디스토리	17. 03. 22
31	보통사람	김봉한	㈜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 ㈜영화사장춘	오퍼스픽쳐스	17. 03. 23
32	프리즌	나현	㈜큐로홀딩스	㈜쇼박스	17. 03. 23
33	밤의 해변에서 혼자	홍상수	㈜영화제작전원사	㈜영화제작전원사, ㈜콘텐츠판다	17. 03. 23
34	원라인	양경모	㈜미인픽쳐스, ㈜곽픽쳐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03. 29
35	콜리션	이윤호, 허서형	영화사 행성	THE 픽쳐스	17. 03. 30
36	시간위의 집	임대웅	리드미컬그린㈜, 라이브㈜ 자이온 이엔티㈜, 브릿지웍스엔터테인먼트㈜,	㈜리틀빅픽쳐스, ㈜페퍼민트앤컴퍼니	17. 04. 05
37	어느날	이윤기	㈜인벤트스톤	오퍼스픽쳐스, CGV아트하우스	17. 04. 05
38	원스텝	전재홍	㈜엠씨씨엔터테인먼트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17. 04. 06
39	다시, 벚꽃	유해진	㈜MBC	㈜영화사 진진	17. 04. 06
40	아빠는 딸	김형협	영화사김치㈜	메가박스㈜플러스엠	17. 04. 12
41	지렁이	윤학렬	미디어파크㈜	투썸업픽쳐스	17. 04. 20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5세	17	9,889,000	1,250	416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15세	1,019	20,143,992,587	2,515,501	186,723		문화계정, 영화계정		기획개발, 응급의료
12세	361	350,293,300	46,623	5,294		문화계정, 영화계정		가족영화
15세	935	19,266,319,637	2,421,197	205,206		문화계정		첨단영화, 응급의료
전체	172	310,291,500	41,041	2,158				
15세	461	759,481,000	102,170	8,534		문화계정, 영화계정		응급의료
15세	576	2,685,519,021	351,276	16,746				시나리오
15세	915	9,905,406,822	1,204,600	92,454		문화계정, 영화계정		적립식
15세	69	119,895,800	13,556	1,646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청불	99	52,087,000	6,461	2,496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495	975,750,100	130,440	29,697	예술(심사)			
15세	6	3,544,500	521	150	예술(심사),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15세	119	43,962,800	5,817	2,440	예술(승인), 독립영화	영화계정		개봉지원
청불	54	32,469,800	4,237	420				
15세	497	1,150,739,700	149,720	11,133		영화계정		
청불	17	601,000	118	44				
청불	13	9,597,000	1,211	161	예술(승인), 독립영화			극장용 애니
15세	621	2,956,397,623	383,336	19,928		문화계정		응급의료
청불	1,047	23,790,276,987	2,931,897	89,024		문화계정		
청불	133	439,416,092	57,056	8,556	예술(심사), 독립영화		베를린 초청 및 여우주연상	적립식
15세	613	3,319,035,433	435,048	62,364		문화계정, 영화계정		
청불	22	2,336,000	430	125	예술(심사), 독립영화			
15세	454	1,020,724,600	128,975	21,942		문화계정		해외선재
15세	532	1,846,581,582	234,829	53,244		문화계정, 영화계정		예술영화
12세	33	13,002,000	1,662	478	예술(심사)			
12세	132	54,457,500	6,793	2,562	예술(승인)			
12세	586	5,054,757,395	647,305	99,789		문화계정		
청불	22	14,581,600	1,921	210	예술(심사)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42	더 플랜	최진성	프로젝트 부	㈜엣나인필름	17. 04. 20
43	마리안느와 마가렛	윤세영	㈜기린제작사	㈜팝엔터테인먼트	17. 04. 20
44	특별시민	박인제	㈜팔레트픽처스	㈜쇼박스	17. 04. 26
45	임금님의 사건수첩	문현성	㈜영화사람, 씨제이이앤엠㈜, ㈜더타워픽쳐스	씨제이이앤엠㈜	17. 04. 26
46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홍주연, 홍현정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CGNTV)	커넥트픽쳐스㈜	17. 04. 26
47	극장판 또봇 : 로봇군단의 습격	이달, 고동우	레트로봇㈜	씨제이이앤엠㈜	17. 04. 27
48	슈퍼 빼꼼 : 스파이 대작전	임아론	(합)알지애니메이션스튜디오	메가박스㈜플러스엠	17. 05. 03
49	보안관	김형주	㈜영화사월광, ㈜사나이픽처스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7. 05. 03
50	석조저택 살인사건	정식, 김휘	㈜영화사다	씨네그루㈜키다리이엔티	17. 05. 09
51	컴, 투게더	신동일	비아신 픽처스	스토리 너머, 파인스토리	17. 05. 11
52	길	정인봉	블루블랙㈜	㈜더블앤조이픽쳐스	17. 05. 11
53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	변성현	씨제이이앤엠㈜, 폴룩스픽쳐스㈜	씨제이이앤엠㈜	17. 05. 17
54	마차 타고 고래고래	안재석	㈜광대무변	와이드 릴리즈㈜	17. 05. 18
55	처제의 유혹	박선욱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05. 23
56	노무현입니다	이창재	영화사 풀	CGV아트하우스, 영화사 풀	17. 05. 25
57	쇠파리	안철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 ㈜무비포지	㈜영화사 그램	17. 05. 25
58	고려 아리랑 : 천산의 디바	김소영	822 필름	㈜시네마달	17. 05. 25
59	드래곤빌리지 〈화이트니스타운을 구하라〉	민경호	㈜에픽캔	㈜에픽캔	17. 05. 30
60	대립군	정윤철	리얼라이즈픽쳐스㈜, 이십세기폭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 ㈜베르디미디어, ㈜블러썸픽쳐스	이십세기폭스코리아㈜	17. 05. 31
61	꿈의 제인	조현훈	영화사 서울집	㈜엣나인필름, CGV아트하우스	17. 05. 31
62	파워배틀 와치카 : 와치가면의 역습	이영준, 김래경	㈜삼지애니메이션	㈜삼지애니메이션	17. 06. 01
63	우리들의 일기	임공삼	㈜은하수엔터테인먼트, ㈜에이디엠엔터테인먼트	THE 픽쳐스	17. 06. 01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5세	156	263,526,895	34,225	2,916	예술(승인), 독립영화			
전체	64	200,228,400	28,722	3,813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1,154	10,494,768,945	1,362,634	46,377		문화계정		응급의료
12세	1,054	12,651,193,723	1,635,003	106,010		문화계정		첨단영화, 응급의료
전체	234	878,090,400	123,344	13,206	예술(승인)			
전체	231	1,090,835,800	141,865	7,810		문화계정		
전체	358	712,385,900	99,693	10,035				극장용 애니
15세	1,091	20,844,488,409	2,588,628	191,127		문화계정		응급의료, 적립식
15세	539	2,829,106,886	353,517	53,775		문화계정		
15세	16	17,261,200	2,233	674	예술(심사), 독립영화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72	76,854,600	17,222	1,348	예술(승인), 독립영화			
청불	860	7,587,004,625	939,535	37,913			칸 초청	응급의료
15세	83	74,943,500	8,971	1,772	독립영화			
청불	20	626,000	122	42				
12세	775	14,556,517,612	1,855,149	122,654				
15세	56	36,279,100	4,836	433	독립영화			
전체	21	23,881,000	3,851	1,218	예술(승인), 독립영화			차세대, 독립영화 후반
전체	4	15,445,500	4,413	96	예술(승인)			
15세	809	6,276,963,402	837,500	29,084				
청불	86	200,096,200	24,393	4,364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개봉지원, 해외선재
전체	246	166,656,500	23,630	5,361				
청불	8	3,496,000	478	230	예술(심사), 독립영화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64	바람의 춤꾼	최상진	강 컨텐츠	강 컨텐츠	17. 06. 06
65	악녀	정병길	㈜앞에있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06. 08
66	델타 보이즈	고봉수		㈜인디스토리	17. 06. 08
67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조은성	엠앤씨에프	㈜리틀빅픽쳐스	17. 06. 08
68	용순	신준	㈜아토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7. 06. 08
69	청춘 합창단 – 또 하나의 꿈	이혁종, 안정민	㈜네오스카이인터내셔날	와이드 릴리즈㈜	17. 06. 15
70	하루	조선호	㈜라인필름	CGV아트하우스	17. 06. 15
71	중독노래방	김상찬	영화사 아람㈜, ㈜레드힐엔터테인먼트	㈜리틀빅픽쳐스	17. 06. 15
72	파란나비효과	박문칠	헤이앤컴퍼니	㈜인디플러그	17. 06. 22
73	리얼	이사랑	㈜코브픽쳐스	씨제이이앤엠㈜	17. 06. 28
74	박열	이준익	(유)박열문화전문회사	메가박스㈜플러스엠	17. 06. 28
75	어떤 하루	정가영, 전선호, 최진혁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비엠컬쳐스	17. 06. 28
76	직지코드	우광훈, 데이빗 레드먼	㈜아우라픽처스	㈜엣나인필름	17. 06. 28
77	노후 대책 없다	이동우		서울독립영화제	17. 06. 29
78	재꽃	박석영	딥 포커스	딥 포커스	17. 07. 06
79	그 후	홍상수	㈜영화제작전원사	㈜영화제작전원사, ㈜콘텐츠판다	17. 07. 06
80	덫	윤여창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7. 13
81	비스티걸스	신진우	㈜마고필름	㈜마고필름	17. 07. 13
82	올 리브 올리브	김태일, 주로미	상구네 필름	㈜시네마달	17. 07. 13
83	파밍 보이즈	장세정, 변시연, 강호준	㈜콘텐츠나무	㈜영화사 진진	17. 07. 13
84	불온한 당신	이영	움	무브먼트	17. 07. 20
85	군함도	류승완	㈜외유내강	씨제이이앤엠㈜	17. 07. 26
86	포크레인	이주형	㈜김기덕 필름	㈜김기덕 필름	17. 07. 27
87	택시운전사	장훈	더램프㈜	㈜쇼박스	17. 08. 02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2세	10	12,443,100	2,039	540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개봉지원, 해외선재
청불	685	9,739,662,144	1,208,081	92,140		문화계정, 영화계정	칸 초청, 마르델플라타 초청	
15세	28	28,002,600	3,894	1,030	예술(심사), 독립영화			
전체	41	67,338,200	8,388	2,157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126	97,538,200	13,268	7,674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전체	39	50,951,400	7,269	688				
15세	781	9,072,737,842	1,129,609	91,616				응급의료
청불	175	69,566,300	8,916	1,943	예술(승인)			개봉지원
12세	41	35,941,100	5,214	1,416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개봉지원
청불	970	3,357,330,530	470,107	25,140				응급의료
12세	1,176	18,093,639,795	2,359,206	156,998		문화계정, 영화계정		
15세	5	1,248,000	167	94	예술(심사), 독립영화			
전체	39	71,169,700	10,639	862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18	10,756,500	1,607	498	예술(승인),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35	38,393,000	5,264	1,500	예술(승인), 독립영화			
청불	168	142,319,508	18,648	4,902	예술(심사), 독립영화		칸 초청, 마르델플라타 초청	예술영화, 해외선재
청불	5	1,436,000	228	69	독립영화			
청불	20	2,833,000	488	138	독립영화			
전체	24	13,965,800	2,222	710	예술(승인), 독립영화			
전체	24	20,671,200	3,056	990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개봉지원
15세	14	30,199,500	4,028	436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개봉지원
15세	2,027	50,510,565,168	6,592,151	108,775		과기정통계정	마르델플라타 초청	첨단영화, 응급의료, 적립식
15세	6	1,081,000	170	47	예술(심사), 독립영화			
15세	1,906	95,853,645,649	12,186,327	368,150			마르델플라타 초청	첨단영화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88	여자들	이상덕	콧수염필름즈	㈜인디스토리	17. 08. 03
89	청년경찰	김주환	㈜무비락, ㈜도서관옆스튜디오, 베리굿스튜디오㈜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7. 08. 09
90	장산범	허정	㈜드림캡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08. 17
91	공범자들	최승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엣나인필름	17. 08. 17
92	브이아이피	박훈정	㈜영화사 금월, ㈜페퍼민트앤컴퍼니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17. 08. 23
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조	월요일 아침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17. 08. 24
94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정윤석	오피오티픽쳐스	찬란	17. 08. 24
95	더 테이블	김종관	볼미디어㈜	㈜엣나인필름	17. 08. 24
96	로마의 휴일	이덕희	㈜전망좋은 영화사	메가박스㈜플러스엠	17. 08. 30
97	무현, 두 도시 이야기 : 파이널 컷	전인환	엠앤씨에프	㈜인디스토리	17. 08. 30
98	김광석	이상호	㈜씨네포트	㈜비엠컬쳐스	17. 08. 30
99	소나기	안재훈	㈜연필로명상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리틀빅픽쳐스	17. 08. 31
100	살인자의 기억법	원신연	㈜쇼박스, ㈜더블유픽처스, ㈜그린피쉬, 영화사 이창	㈜쇼박스	17. 09. 06
101	안녕 히어로	한영희	성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시네마달	17. 09. 07
102	저수지 게임	최진성	프로젝트 부	㈜스마일이엔티	17. 09. 07
103	구세주 : 리턴즈	송창용	㈜메가커뮤니케이션즈	㈜박수엔터테인먼트	17. 09. 14
104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조정래	㈜제이오엔터테인먼트코리아	커넥트픽쳐스㈜	17. 09. 14
105	사월의 끝	김광복	코라필름	㈜비엠컬쳐스	17. 09. 14
106	시인의 사랑	김양희	㈜영화사진, ㈜미인픽쳐스	CGV아트하우스	17. 09. 14
107	여배우는 오늘도	문소리	㈜영화사 연두	㈜메타플레이	17. 09. 14
108	이웃집 스타	김성욱	㈜컬처캡코리아	㈜스톰픽쳐스코리아	17. 09. 21
109	아이 캔 스피크	김현석	㈜영화사 시선, ㈜명필름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리틀빅픽쳐스	17. 09. 21
110	분장	남연우	이야기秀CUT	무브먼트	17. 09. 27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5세	40	20,784,800	2,861	1,104	예술(심사), 독립영화			해외선재
15세	1,102	44,381,150,516	5,653,270	237,088		문화계정		
15세	711	10,341,783,083	1,306,438	69,536		문화계정, 영화계정		응급의료
15세	246	2,035,223,800	260,514	32,934	예술(승인), 독립영화			
청불	996	10,956,621,835	1,373,316	44,650				
12세	10	9,113,400	1,498	168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15세	27	18,762,700	2,420	1,140	예술(승인), 독립영화		로테르담 초청, 야마가타 특별언급	개봉지원
12세	272	830,762,100	103,054	6,158	예술(심사), 독립영화			개봉지원, 해외선재
15세	436	993,321,176	134,827	10,999		문화계정, 영화계정		
15세	103	24,539,000	3,439	1,754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223	772,483,500	98,231	6,265	예술(승인), 독립영화			
전체	151	79,438,808	12,403	1,380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1,064	21,375,287,492	2,658,589	177,372				첨단영화, 응급의료
12세	24	33,951,300	5,547	638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개봉지원, 해외선재
15세	289	984,605,100	125,402	7,669	예술(승인), 독립영화			해외선재
15세	124	45,622,000	6,151	2,394		문화계정, 영화계정		
15세	207	105,487,200	14,490	4,712				
청불	6	3,389,900	519	64	예술(심사),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작업
15세	119	97,464,900	12,547	2,337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해외선재
15세	46	138,754,300	16,864	2,534	예술(승인), 독립영화	문화계정		개봉지원, 해외선재
12세	256	78,213,300	10,854	2,367				
12세	1,140	25,526,451,186	3,279,296	93,012		영화계정		가족영화
15세	17	21,236,800	2,914	790	예술(심사), 독립영화			개봉지원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111	땐뽀걸즈	이승문	KBS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	17. 09. 27
112	다시 태어나도 우리	문창용, 전진	소나무필름, ㈜프로섬	㈜엣나인필름	17. 09. 27
113	넛잡 2	캘런 브런커	㈜레드로버, 툰박스 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7. 10. 03
114	남한산성	황동혁	㈜싸이런픽쳐스	씨제이이앤엠㈜	17. 10. 03
115	범죄도시	강윤성	㈜홍필름,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플러스엠, ㈜키위미디어그룹	17. 10. 03
116	희생부활자	곽경택	㈜영화사 신세계, ㈜바른손이앤에이	㈜쇼박스	17. 10. 12
117	착한 형수 2	곽영근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10. 19
118	대장 김창수	이원태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무비스퀘어	씨네그루㈜키다리이엔티, ㈜키위컴퍼니	17. 10. 19
119	가을 우체국	임왕태	BPM 엔터테인먼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HATCH FILM	㈜에스와이코마드	17. 10. 19
120	유리정원	신수원	준필름	㈜리틀빅픽쳐스	17. 10. 25
121	뷰티풀 투모로우	장재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17. 10. 26
122	그리다	장호준 이인의, 박재영		㈜인디스토리	17. 10. 26
123	미스 프레지던트	김재환	㈜단유필름	㈜인디플러그	17. 10. 26
124	내 친구 정일우	김동원	푸른영상	㈜시네마달	17. 10. 26
125	노트르담 드 파리	정성복	㈜패뷸러스	㈜패뷸러스	17. 11. 01
126	일본 엄마 2	김무원, 이리단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11. 02
127	침묵	정지우	㈜용필름	씨제이이앤엠㈜	17. 11. 02
128	부라더	장유정	㈜홍필름, ㈜수필름	메가박스㈜플러스엠	17. 11. 02
129	폭력의 씨앗	임태규	㈜타이거시네마, DGC	찬란	17. 11. 02
130	올드마린보이	진모영	영화사 님아㈜	CGV아트하우스	17. 11. 02
131	내게 남은 사랑을	진광교	㈜와호엔터테인먼트, (재)CBS	㈜비엠컬쳐스	17. 11. 02
132	메소드	방은진	모베터필름㈜	㈜엣나인필름	17. 11. 02
133	미옥	이안규	소중한 영화사	씨네그루㈜키다리이엔티	17. 11. 09
134	채비	조영준	㈜26컴퍼니	오퍼스픽쳐스	17. 11. 09
135	소통과 거짓말	이승원	프로젝트 잉여	무브먼트	17. 11. 09
136	해피뻐스데이	이승원	프로젝트 잉여	무브먼트	17. 11. 09
137	고향이 어디세요	정수웅	다큐서울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17. 11. 09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2세	16	55,753,300	6,996	1,070	예술(승인)			
전체	118	290,883,943	37,364	4,852	예술(승인), 독립영화		베를린 제너레이션대상, 핫독 초청	독립영화 후반작업
전체	526	3,069,388,100	411,787	20,898		문화계정		
15세	1,229	31,225,083,792	3,849,087	142,202		문화계정, 영화계정		첨단영화, 응급의료
청불	1,315	56,318,038,149	6,879,844	298,668		영화계정		
15세	781	2,515,479,835	323,628	23,596		문화계정		
청불	20	1,561,000	261	40				
12세	748	2,879,121,115	381,483	43,488		문화계정		
12세	74	23,270,700	3,099	618	예술(심사), 독립영화			
12세	332	160,437,700	22,752	4,480	예술(승인)	문화계정, 영화계정		예술영화
12세	47	552,273,700	63,279	1,390				
12세	15	5,996,300	861	148	예술(심사), 독립영화			
12세	76	45,874,500	6,749	2,104	예술(승인), 독립영화			
전체	80	76,198,100	11,965	2,972	예술(승인), 독립영화			해외선재
전체	36	115,659,500	9,085	1,686				
청불	20	791,000	133	42				
15세	634	3,930,219,264	494,097	46,456		문화계정, 영화계정		
12세	889	11,783,109,998	1,492,903	109,950		영화계정		
15세	28	13,541,300	1,897	788	예술(심사), 독립영화		산세바스찬 초청, 마르델플라타 초청	개봉지원
전체	58	61,442,800	8,572	1,610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12세	156	180,693,600	27,414	3,312	예술(심사)			
15세	244	215,611,800	26,577	5,866	예술(심사)			
청불	635	1,898,713,564	238,713	18,100		문화계정, 영화계정		
12세	480	1,260,479,864	177,430	19,962		문화계정, 영화계정		가족영화, 해외선재
청불	9	2,227,000	338	93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개봉지원
청불	6	3,161,500	478	142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해외선재
12세	41	11,399,900	1,585	642	예술(승인)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138	7호실	이용승	㈜명필름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7. 11. 15
139	아이엠 호프맨	나현태	52DAYS FILM	52DAYS FILM	17. 11. 16
140	로마서 8:37	신연식	㈜루스이소니도스	㈜ 루스이소니도스	17. 11. 16
141	꾼	장창원	㈜영화사두둥	㈜쇼박스	17. 11. 22
142	역모 – 반란의 시대	김홍선	Picsso, ㈜원픽쳐스	㈜스톰픽쳐스코리아	17. 11. 23
143	지워야 산다	이기호	밀크픽처스	밀크픽처스	17. 11. 23
144	국정교과서 516일 :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백승우	㈜아우라픽처스	㈜아우라픽처스	17. 11. 23
145	푸른노을	박규식	㈜마이더스필름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17. 11. 23
146	아기와 나	손태겸	한국영화아카데미	CGV아트하우스	17. 11. 23
147	반드시 잡는다	김홍선	㈜에이디사공육, 씨네주 유한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11. 29
148	기억의 밤	장항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플러스엠, ㈜키위컴퍼니	17. 11. 29
149	프레스	최정민	씨네마캣 픽쳐스	레드무비	17. 11. 30
150	실종2	조성규	㈜영화공장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17. 11. 30
151	아들에게 가는 길	최위안	리얼곤시네마	㈜에스와이코마드, 글뫼㈜	17. 11. 30
152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	김현호, 윤제완	㈜오콘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12. 07
153	돌아온다	허철	㈜꿈길제작소	㈜더블앤조이픽쳐스	17. 12. 07
154	초행	김대환	봄내필름	㈜인디플러그	17. 12. 07
155	산상수훈	유영의	㈜그란	이언픽쳐스, ㈜그란	17. 12. 07
156	강철비	양우석	㈜와이웍스엔터테인먼트, ㈜모팩앤알프레드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7. 12. 14
157	빈센트	박보상	㈜인터하우스	㈜인터하우스, 노바엔터테인먼트	17. 12. 14
158	침입자	이숭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12. 14
159	련희와 연희	최종구, 손병조	장품 E&M	M&M 인터내셔널	17. 12. 14
160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임대형	영화사 달리기	㈜인디스토리	17. 12. 14
161	신과 함께 – 죄와 벌	김용화	리얼라이즈픽쳐스㈜, ㈜덱스터스튜디오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7. 12. 20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5세	629	2,677,284,639	347,790	21,846				적립식, 국제공동제작
전체	7	20,126,000	2,773	238	예술(승인), 독립영화			
15세	44	36,549,000	4,853	1,142	예술(승인), 독립영화			개봉지원, 해외선재
15세	1,314	31,312,029,795	4,018,035	117,398				적립식
15세	355	218,173,300	30,116	8,200				
청불	19	1,036,000	195	45	예술(심사), 독립영화			
12세	16	3,296,500	502	298	예술(승인), 독립영화			해외선재
12세	24	19,342,200	2,742	436	예술(심사), 독립영화			시나리오
15세	62	17,949,800	2,356	692	예술(심사)			KAFA
15세	565	3,326,439,772	446,780	49,118		문화계정		응급의료
15세	759	10,646,654,660	1,386,611	52,847		영화계정		차세대
15세	4	1,478,000	362	80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후반, 개봉지원
청불	29	11,252,500	1,513	271	예술(심사), 독립영화			
전체	46	44,428,500	6,666	491	예술(승인), 독립영화			
전체	803	5,848,934,600	773,748	36,454		문화계정		극장용 애니, 적립식
12세	58	82,849,300	12,751	1,460	예술(심사), 독립영화			
12세	47	51,719,500	6,691	1,804	예술(심사), 독립영화		로카르노 신인감독상, 마르델플라타 최우수 각본상	개봉지원
전체	71	288,011,000	40,225	2,092	예술(심사)			
15세	1,426	31,994,962,566	4,014,295	133,520		영화계정		첨단영화, 응급의료
12세	5	440,500	120	42	예술(심사), 독립영화			
15세	5	129,500	53	51	독립영화			
15세	6	2,244,500	367	79	예술(심사),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31	24,476,800	3,465	928	예술(승인), 독립영화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1,912	68,351,379,932	8,539,600	91,302		문화계정, 영화계정		응급의료

1. 2017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162	1987	장준환	㈜우정필름	씨제이이앤엠㈜	17. 12. 27
163	광인옥한흠	김상철	파이오니아21	파이오니아21	17. 12. 28
164	나의 연기 워크샵	안선경	궁금단영화	무브먼트	17. 12. 28
시사 1	스타박스 다방	이상우	영화사 온난전선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18. 01. 11
시사 2	그것만이 내 세상	최성현	㈜제이케이필름, 씨제이이앤엠㈜	씨제이이앤엠㈜	18. 01. 17
시사 3	돌아와요 부산항애(愛)	박희준	㈜블랙홀엔터테인먼트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18. 01. 17
시사 4	B급 며느리	선호빈	영화연구소	㈜에스와이코마드, 글뫼㈜	18. 01. 17
시사 5	피의 연대기	김보람	킴 프로덕션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	18. 01. 18
시사 6	1급기밀	홍기선	㈜미인픽쳐스, ㈜미디어모굴	㈜리틀빅픽쳐스	18. 01. 24
시사 7	공동정범	김일란, 이혁상	성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엣나인필름, ㈜시네마달	18. 01. 25
시사 8	누에치던 방	이완민	윈드웰러스 필름㈜, 영화사 잠	서울독립영화제, 무브먼트	18. 01. 31

〈위원회 지원사업 약어〉
가족영화제작지원 – 가족영화,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 국제공동제작, 극장용애니메이션개봉지원 – 극장용애니, 기획개발지원 – 기획개발,
독립영화후반작업기술지원 – 독립영화후반, 독립영화제작지원 – 독립영화, 시나리오마켓 – 시나리오, 예술영화제작지원 – 예술영화,
응급의료지원 – 응급의료, 저예산영화개봉지원 – 개봉지원,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차세대, 첨단영화제작지원 – 첨단영화,
한국영화개봉작적립식지원 – 적립식, 한국영화아카데미제작 – KAFA, 해외배급선재물제작지원 – 해외선재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독립/예술 영화세부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여부	주요 해외영화제 수상 및 초청 실적	위원회 사업 지원여부
15세	1,299	15,256,731,037	1,942,388	27,620		영화계정		첨단영화, 응급의료
전체	18	12,065,500	1,637	81				
15세	12	5,306,000	673	132	예술(승인), 독립영화			개봉지원
15세	0	7026000	903	5	예술(심사),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0	3312000	414	1				
15세	0	15000000	1791	9				
12세	0	862500	177	5	예술(승인), 독립영화			
12세	0	793000	116	3	예술(승인), 독립영화			개봉지원
12세	0	8562000	992	5				
15세	0	2279000	382	7				저예산
15세	0	1611000	244	6	독립영화			저예산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 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1	내 남편의 가정교사	박선욱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01. 03	청불	19	599,000	116	20
2	내 아내의 친구	김정오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1. 05	청불	1	5,000	1	1
3	내 친구, 그의 아내	김정오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1. 05	청불	1	5,000	1	1
4	바람난 애인	김정오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1. 05	청불	1	5,000	1	1
5	더티 로맨스	이상우	이상우 필름	이상우 필름	17. 01. 07	청불	1	106,000	16	7
6	스와핑 하던 날	명석환	마법사필름,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1. 10	청불	20	654,000	125	20
7	스와핑 : 친구부부의 쾌락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1. 17	청불	1	5,000	1	1
8	신혼여행 : 불륜	김정오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1. 17	청불	1	5,000	1	1
9	젊은 형수	김정오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1. 17	청불	1	5,000	1	1
10	여자전쟁 : 여자의 이유	송창수	㈜베르디미디어	TCO㈜더콘텐츠온	17. 01. 17	청불	21	665,000	132	21
11	탐정사무소 – 그놈의 얼굴	이동현	㈜나우콘텐츠	㈜나우콘텐츠	17. 01. 18	15세	1	8,000	1	1
12	위드	박성수	㈜데이드림서울	㈜대양미디어	17. 01. 19	청불	1	8,000	1	1
13	유혹	최우성	㈜루믹스미디어	㈜루믹스미디어	17. 01. 19	청불	20	840,000	165	20
14	러브 슬레이트	김현수	콩미디어	콩미디어	17. 01. 19	청불	20	654,000	125	20
15	딸의 친구	최우성	㈜컨텐츠 빌리지	㈜컨텐츠 빌리지	17. 01. 21	청불	1	2,000	1	1
16	은하	임진승	골든타이드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	17. 01. 24	청불	1	50,000	10	1
17	사랑받지 못한 여자	노진수	㈜케이피필름	㈜모멘텀엔터테인먼트	17. 01. 24	청불	14	2,097,000	327	19
18	아내의 불륜2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1. 25	청불	1	5,000	1	1
19	내 형의 아내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02	청불	1	5,000	1	1
20	시아버지와 두 며느리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02	청불	1	5,000	1	1
21	엄마친구 딸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02	청불	1	5,000	1	1
22	형부와 처제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02	청불	1	5,000	1	1
23	동창회의 목적 : 더 비기닝	정대만	블루스필름	㈜소나무픽쳐스	17. 02. 02	청불	19	761,000	149	20
24	내 삼촌의 여자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09	청불	1	5,000	1	1
25	내 친구의 애인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09	청불	1	5,000	1	1
26	엄마의 불륜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09	청불	1	5,000	1	1
27	일본 엄마	김무원	YJ COMPANY	YJ COMPANY	17. 02. 09	청불	20	657,000	125	20
28	어린 형수 2	김태수	너바나 필름	너바나 필름	17. 02. 10	청불	1	3,000	1	1
29	포토그래퍼	지헌	JK스튜디오	㈜대양미디어	17. 02. 10	청불	1	8,000	1	1
30	가족의 재구성	최재후	조박픽쳐스	조박픽쳐스	17. 02. 14	청불	20	842,000	165	20
31	친구부부 : 욕망의 스와핑	이상우	대호필름,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2. 14	청불	20	655,000	125	20
32	헤픈젤 : 비밀의 몸캠	마의성	굿픽처스	노바엔터테인먼트	17. 02. 15	청불	20	805,000	159	20
33	야한목소리 – 쏠리네	이두희	무비집	㈜콘텐츠윙	17. 02. 16	청불	1	2,000	1	1
34	19금 섹스비디오	박범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2. 21	청불	1	5,000	1	1
35	내 여자의 엄마	석영오		㈜소나무픽쳐스	17. 02. 22	청불	19	758,000	149	20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 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36	내 동생의 여자친구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2. 23	청불	1	5,000	1	1
37	안해	이강림	㈜콘텐츠윙	㈜콘텐츠윙	17. 02. 23	청불	20	845,000	165	20
38	깊은 사정	이마오카 신지	(유)쏘아필름	(유)쏘아필름	17. 02. 27	청불	20	805,000	159	20
39	19금 특별한 정사 – 무삭제 특별판	닥터 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3. 07	청불	1	20,000	4	3
40	특이점이 온 영화	공자관	밀크픽처스	밀크픽처스	17. 03. 07	청불	20	839,000	165	20
41	스캔들 Ⅱ	이동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3. 08	청불	20	671,000	136	20
42	아내의 동창회	이리단	대호필름,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3. 09	청불	20	653,000	125	20
43	청불학원	최무연	㈜로드하우스	㈜로드하우스	17. 03. 14	청불	1	270,000	54	1
44	원나잇스탠드	지길웅	㈜전망좋은 영화사	㈜전망좋은 영화사	17. 03. 28	청불	21	642,000	125	21
45	스캔들 Ⅲ	이동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3. 29	청불	20	649,000	132	20
46	엄마친구 3	명석환	㈜영화사 사계절, 마법사필름	㈜영화사 사계절	17. 03. 30	청불	20	655,000	125	20
47	자유부인 2017	윤대이	골든타이드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	17. 04. 04	청불	1	3,000	1	1
48	어느 여름날 밤에	김헌	이상우 필름	이상우 필름	17. 04. 06	청불	5	597,000	91	31
49	여배우와 동거	이슬	㈜케이피에이기획	㈜케이피에이기획	17. 04. 10	청불	20	596,000	116	20
50	내 친구의 남편	주종백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4. 11	청불	20	1,029,000	202	20
51	사슬 – 두 여자의 유혹	박선욱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04. 11	청불	20	599,000	116	20
52	형님아내 3(아랫집 부인)	이돌	이돌영화사	이돌영화사	17. 04. 13	청불	20	846,000	165	20
53	친구엄마 2017 : 친구가 집에 없던 날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4. 20	청불	1	5,000	1	1
54	가정교사 – 맛있는 섹스 비밀 수업	이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4. 21	청불	20	679,000	140	28
55	착한불륜	에로핑	㈜인포투스	㈜인포투스	17. 04. 25	청불	5	848,000	170	25
56	작은 엄마 : 삼촌의 아내를 탐하다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4. 26	청불	1	5,000	1	1
57	아내의 동영상	강명진	제이프러스미디어	제이프러스미디어	17. 04. 27	청불	20	955,000	189	24
58	맛있는 섹스 그리고 그 여자	이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4. 28	청불	20	649,000	132	20
59	탐하다 : 욕망의 섬	김진성	㈜씨타마운틴픽쳐스	㈜씨타마운틴픽쳐스	17. 05. 01	청불	20	450,000	81	20
60	썸 – 은밀한 이야기	송정규	㈜스토리제이	THE 픽쳐스	17. 05. 02	청불	1	10,000	3	3
61	아내를 바꾸다	김무원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5. 02	청불	20	655,000	125	20
62	착한 장모 : 사위를 사랑하다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5. 04	청불	1	5,000	1	1
63	내 친구의 엄마 : 친구의 엄마와 아내를 탐하다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5. 10	청불	1	5,000	1	1
64	친구엄마 : 젊은 장모를 탐하다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5. 10	청불	1	5,000	1	1
65	티켓 다방	김태수	㈜컨텐츠 빌리지	㈜컨텐츠 빌리지	17. 05. 11	청불	1	3,000	1	1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 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66	여자 하숙집	이리단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5. 11	청불	20	655,000	125	20
67	파도 여인 그리고 탱고	박갑종	㈜갑종무비필름	㈜에스와이미디어	17. 05. 16	청불	1	5,000	1	1
68	속사정	조일준	RGB	THE 픽쳐스	17. 05. 18	청불	20	901,000	177	22
69	초대남	강유민	㈜제이디테크	㈜제이디테크	17. 05. 23	청불	20	1,087,000	215	20
70	너에게만 들려주고 싶어	박병환		㈜액티버스 엔터테인먼트	17. 05. 25	12세	1	2,040,000	255	1
71	작은엄마 2 : 삼촌이 없던 날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5. 31	청불	1	5,000	1	1
72	새엄마 : 나의 섹스 교사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01	청불	1	5,000	1	1
73	새엄마와 그녀의 여동생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01	청불	1	5,000	1	1
74	엄마 친구 : 여자를 배우다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01	청불	1	5,000	1	1
75	예쁜 형수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01	청불	1	5,000	1	1
76	정사 : 내 친구의 애인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01	청불	1	5,000	1	1
77	회사 스와핑 : 사장과 여직원들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01	청불	1	5,000	1	1
78	누나 친구 2	채준우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6. 01	청불	20	655,000	125	20
79	누드모델	오상원	판타스틱룸미디어	판타스틱룸미디어	17. 06. 01	청불	20	891,000	176	21
80	누드모델	박범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6. 06	청불	1	3,000	1	1
81	친구아들 : 첫 여자가 되어주다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6. 08	청불	1	5,000	1	1
82	불륜가족	곽영근	대호필름,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6. 08	청불	20	654,000	125	20
83	사촌여동생	양호열	케이제이픽처스	케이제이픽처스	17. 06. 13	청불	20	826,000	165	20
84	음란 기생	김태수	너바나 필름	㈜컨텐츠 빌리지	17. 06. 14	청불	1	3,000	1	1
85	만화가게 아줌마 : 손님이 없던 날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6. 19	청불	1	5,000	1	1
86	새엄마 2017 :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다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6. 19	청불	1	5,000	1	1
87	유혹의 덫	이민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6. 19	청불	1	2,000	1	1
88	옆집여자	마의성	배드픽쳐스	㈜제이에이와이이 엔터테인먼트	17. 06. 20	청불	20	881,000	175	20
89	이 사랑도 전해질까요	김동현	㈜레드아이스	㈜레드아이스	17. 06. 21	전체	1	3,000	1	1
90	힐링캠프 : 한 세상	국만중	참프로덕션	THE 픽쳐스	17. 06. 22	청불	20	878,000	176	20
91	내 아들의 여자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23	청불	1	5,000	1	1
92	음란한 형제 : 형수와 처제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6. 23	청불	1	5,000	1	1
93	섹스메이트	이슬	㈜네스팅	㈜네스팅	17. 06. 26	청불	17	644,000	127	22
94	맛있는 섹스 그리고 여친	이민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6. 27	청불	1	2,000	1	1
95	불륜의 유혹	이민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6. 27	청불	1	2,000	1	1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 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96	가정부의 목적	박범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6. 29	청불	1	2,000	1	1
97	내 아내의 새엄마	이리단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6. 29	청불	20	652,000	125	20
98	올리고당 더 무비	노진수	㈜농담	㈜농담	17. 07. 04	청불	20	887,000	172	20
99	정사 : 친구 엄마	이동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7. 05	청불	20	725,000	146	21
100	달콤한 섹스	박선욱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07. 06	청불	20	702,000	127	20
101	여친 엄마	이리단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7. 06	청불	20	650,000	125	20
102	내 삼촌의 아내 : 내 여자가 되던 날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7. 10	청불	1	5,000	1	1
103	미스 푸줏간	지길웅	㈜전망좋은 영화사	㈜드림팩트 엔터테인먼트	17. 07. 11	청불	1	3,000	1	1
104	육체인터뷰	에로핑	㈜인포투스	㈜인포투스	17. 07. 14	청불	20	931,000	177	20
105	금지된 애욕	이민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7. 19	청불	20	767,000	154	20
106	엄마의 직업	도봉산	㈜마이애미미디어	㈜마이애미미디어	17. 07. 20	청불	20	855,000	161	20
107	착한 엄마 친구	곽영근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7. 20	청불	20	710,000	127	20
108	붉은 비키니	최무연	㈜로드하우스	㈜로드하우스	17. 07. 25	청불	1	6,000	1	1
109	일대일	정미나	㈜그라운드미디어	㈜그라운드미디어	17. 07. 31	청불	20	932,000	177	20
110	선 섹스 후 사랑	김현철	㈜인터하우스	㈜인터하우스	17. 08. 03	청불	20	851,000	161	20
111	여자 보험왕 : 그녀의 영업비밀	곽영근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8. 03	청불	20	717,000	128	20
112	자매의 S스캔들	김현빈	㈜케이피에이기획	㈜케이피에이기획	17. 08. 03	청불	19	703,000	127	20
113	맛있는 섹스 은밀한 동거	이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8. 08	청불	20	767,000	154	20
114	내 아내의 친구 : 아내가 집에 없던 날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8. 09	청불	1	5,000	1	1
115	내 이웃의 아내 2 : 이웃 부부와 교환하던 날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8. 09	청불	1	5,000	1	1
116	내 친구의 엄마 2 : 그녀가 여자로 보일 때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8. 09	청불	1	5,000	1	1
117	색에 놀다	이영민	㈜티씨엘	㈜티씨엘	17. 08. 11	청불	19	740,000	127	19
118	두 엄마	이도시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8. 14	청불	20	1,794,000	350	22
119	정사2 : 친구 새엄마 – 감독판	이동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8. 16	청불	19	767,000	154	20
120	새엄마의 섹스 교육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8. 17	청불	1	6,000	1	1
121	스와핑 : 형의 여자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8. 17	청불	1	6,000	1	1
122	엄마 친구의 섹스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8. 17	청불	1	6,000	1	1
123	직장 스와핑 : 예쁜 여직원들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8. 17	청불	1	6,000	1	1
124	착한 처형 : 아내를 대신하다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8. 17	청불	1	6,000	1	1
125	3분 파트너	박주영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08. 17	청불	17	707,000	129	21
126	부부 교환의 날 2017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08. 17	청불	1	5,000	1	1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 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127	색시공...주홍글씨의 비밀	김문옥	시네마테크 충무로	시네마테크 충무로	17. 08. 24	청불	1	15,000	5	1
128	정사 : 친구의 엄마	곽영근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8. 24	청불	20	709,000	127	20
129	내 애인의 엄마 : 내 여자가 되던 날	이진		㈜소나무픽쳐스	17. 08. 28	청불	1	5,000	1	1
130	내 친구의 아내 : 만져봐도 될까요?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17. 08. 28	청불	1	5,000	1	1
131	달콤한 여선배	양석우	㈜영화사히트	㈜영화사히트	17. 08. 28	청불	1	3,000	1	1
132	가루지기 : 변강쇠 더 비기닝	정진호	㈜컨텐츠 빌리지	㈜컨텐츠 빌리지	17. 08. 28	청불	1	4,000	2	2
133	친구엄마 : 참을 수 없는 날	이상민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8. 31	청불	1	6,000	1	1
134	학생의 엄마 : 첫 섹스 하던 날	이상민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8. 31	청불	1	6,000	1	1
135	원정여행	국만중	참프로덕션	THE 픽쳐스	17. 08. 31	청불	20	937,000	177	20
136	형수의 직업	노현진	㈜마이애미미디어	㈜마이애미미디어	17. 08. 31	청불	20	913,000	170	20
137	바람난 아내	이민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9. 05	청불	1	2,000	1	1
138	토일렛	이상훈	㈜오예스	㈜오예스	17. 09. 05	청불	1	3,000	1	1
139	가정부의 손맛 – 감독판	이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9. 05	청불	20	804,000	159	20
140	연상녀들 : 내가 가르쳐 줄게	이리단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9. 05	청불	20	756,000	137	21
141	새엄마 새누나	김민식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9. 07	청불	1	6,000	1	1
142	엄마 친구 : 그녀의 섹스고백	최강호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9. 07	청불	1	6,000	1	1
143	처제의 속사정	최석원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레드언더미디어	17. 09. 07	청불	1	2,000	1	1
144	젊은 형수 : 참을 수 없는 맛 – 감독판	박은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9. 11	청불	19	1,047,000	194	23
145	여의사의 은밀한 치료	윤채아, 유남선	에이원 미디어	에이원 미디어	17. 09. 12	청불	1	2,000	1	1
146	여직원들 사무실 교환섹스	윤채아	에이원 미디어	에이원 미디어	17. 09. 12	청불	1	2,000	1	1
147	자매의 사정	윤채아, 유남선	에이원 미디어	에이원 미디어	17. 09. 12	청불	1	2,000	1	1
148	올래?! 천사들의 도시편	노승탁	㈜제이에이와이이 엔터테인먼트	㈜제이에이와이이 엔터테인먼트	17. 09. 13	청불	20	933,000	176	20
149	처음엔 다 그래	박선재	컨버전스티비	컨버전스티비	17. 09. 14	청불	16	950,000	176	16
150	그녀의 깊은 정사 – 감독판	이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9. 14	청불	19	937,000	181	30
151	두근두근	노진수	㈜플랜오십일	㈜플랜오십일	17. 09. 18	청불	21	992,000	187	21
152	착한 형수 : 뜨거운 유혹	이상민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9. 19	청불	1	6,000	1	1
153	친구엄마 : 그녀의 밤기술	이상민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09. 19	청불	1	6,000	1	1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 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154	동창회의 목적 2	성우진	영화사 인연	영화사 인연	17. 09. 19	청불	20	2,263,000	444	22
155	야한여친	박범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09. 20	청불	1	2,000	1	1
156	신어우동	김태수	너바나 필름	㈜컨텐츠 빌리지	17. 09. 21	청불	1	3,000	1	1
157	여선생	김대성	㈜영화사히트	㈜영화사히트	17. 09. 21	청불	20	1,212,000	230	20
158	정사–두자매	박주영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09. 21	청불	15	721,000	123	20
159	작은 엄마	이리단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09. 28	청불	20	824,000	139	20
160	동거 : 친구의 여자친구	안금성	윤스	즐감	17. 09. 28	청불	20	752,000	128	20
161	아름다운 엄마	오재학	영화사 새사람	노바엔터테인먼트	17. 10. 12	청불	20	859,000	154	20
162	여자들 : 섹스의 만족도	김부곤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10. 12	청불	20	779,000	131	20
163	변강쇠VS어우동	정진호	㈜컨텐츠 빌리지	㈜컨텐츠 빌리지	17. 10. 18	청불	1	3,000	1	1
164	딸의 친구 2	계장혁	㈜컨텐츠 빌리지	㈜컨텐츠 빌리지	17. 10. 18	청불	20	1,038,000	185	20
165	젊은남편 젊은아빠	최원준	골든타이드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	17. 10. 19	청불	20	996,000	180	20
166	수상한 종업원	한동호	㈜가온콘텐츠	㈜가온콘텐츠	17. 10. 23	청불	20	702,000	120	20
167	이채담의 지스팟	박주영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10. 26	청불	1	2,000	1	1
168	착한 엄마	이리단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10. 26	청불	20	728,000	123	20
169	젊은 아내 : 남편 교환의 날	이진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0. 27	청불	1	5,000	1	1
170	애정소년 잔혹사	장기원	이상우 필름	이상우 필름	17. 10. 27	청불	1	56,500	17	9
171	내 아내의 초대남들 : 네토라레	노현진	㈜마이애미미디어	㈜마이애미미디어	17. 10. 30	청불	20	913,000	163	20
172	달콤한 채찍	지슬	골든타이드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	17. 11. 02	청불	20	1,007,000	181	20
173	내 친구의 아내 3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1. 09	청불	1	5,000	1	1
174	부부교환의 날 2017 : 친구의 아내를 탐하다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1. 09	청불	1	5,000	1	1
175	착한 엄마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1. 09	청불	1	5,000	1	1
176	친구엄마 : 그녀의 병간호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1. 09	청불	1	5,000	1	1
177	2017복상사		㈜한사리미디어	㈜한사리미디어	17. 11. 09	청불	20	1,009,000	182	20
178	내 학생의 엄마 2	곽영근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11. 09	청불	20	776,000	131	20
179	요정 미인관	에로핑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17. 11. 14	청불	1	3,000	1	1
180	정사의 맛 – 감독판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11. 15	청불	19	881,000	161	26
181	엄마의 맛	박주영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11. 16	청불	15	715,000	122	20
182	모범생	노홍식, 이영진	㈜파란프로덕션	㈜씨엠닉스	17. 11. 17	청불	2	168,000	39	18
183	아내의 101번째 결혼	최석원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레드언더미디어	17. 11. 20	청불	1	5,000	1	1
184	성 심청전	이슬	골든타이드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	17. 11. 21	청불	1	5,000	1	1
185	맛섹 은밀한 경험 감독판	이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11. 22	청불	19	868,000	157	23
186	철없는 아내의 이중생활	최석원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17. 11. 23	청불	1	3,000	1	1

2. 40회 미만 상영 한국영화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 매출액	전국 관객수	상영 횟수
187	사촌누나와 동거	김순수	㈜이놀미디어	㈜이놀미디어	17. 11. 24	청불	1	3,000	1	1
188	어린 형수 3	최우성	핵존슨	㈜컨텐츠 빌리지	17. 11. 28	청불	19	995,000	179	20
189	이수아	손현우	㈜파란프로덕션	㈜콘텐츠윙	17. 11. 29	청불	4	922,000	134	19
190	성판17 : 남자들의 17가지 성적 판타지	송은주	㈜레드아이스	즐감	17. 11. 30	청불	19	799,000	139	21
191	그렌델	윤한민	엑시트 팩토리	㈜씨엠닉스	17. 12. 01	15세	1	3,000	1	1
192	50대 장모님의 불타는 사위사랑	김두민	두리컴	두리컴	17. 12. 04	청불	1	5,000	1	1
193	유부녀 야썰	최석원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씨맥스 커뮤니케이션즈	17. 12. 05	청불	1	5,000	1	1
194	종로3가역 2번 출구	권중목	㈜씨엠닉스	㈜씨엠닉스	17. 12. 07	청불	2	76,000	18	13
195	새엄마 2	이리단	㈜영화사 사계절	㈜영화사 사계절	17. 12. 07	청불	20	764,000	129	20
196	부부교환섹스 2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2. 08	청불	1	5,000	1	1
197	새엄마 2 : 그녀의 남자가 되다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2. 08	청불	1	5,000	1	1
198	젊은 형수님 : 형의 여자를 탐하다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2. 08	청불	1	5,000	1	1
199	신입사원	한동호	㈜가온콘텐츠	㈜가온콘텐츠	17. 12. 12	청불	20	704,000	120	20
200	외출 2	곽영근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12. 14	청불	20	771,000	130	20
201	섹스의 목적 – 감독판	이민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12. 14	청불	23	861,000	163	23
202	두처제 2	박주영	스마일컨텐츠	스마일컨텐츠	17. 12. 15	청불	19	699,000	120	20
203	대물 변강쇠	이동현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12. 19	청불	21	798,000	159	21
204	작은 엄마 2 : 삼촌의 여자들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2. 20	청불	1	5,000	1	1
205	착한 새엄마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2. 20	청불	1	5,000	1	1
206	친구엄마 : 이혼한 그녀의 남자가 되던 날	강정훈	㈜소나무픽쳐스	㈜소나무픽쳐스	17. 12. 20	청불	1	5,000	1	1
207	야경 : 죽음의 택시	오인천	㈜영화맞춤제작소 영화공장, 블리트필름	㈜영화맞춤제작소 영화공장	17. 12. 20	15세	1	1,322,000	165	13
208	월하	오인천	㈜영화맞춤제작소 영화공장, 블리트필름	㈜영화맞춤제작소 영화공장	17. 12. 20	15세	1	1,157,000	149	14
209	엄마친구들	이리단	㈜영화사가을	㈜영화사가을	17. 12. 21	청불	20	770,000	130	20
210	심장박동 조작극	장희민	㈜곤미디어	㈜스토리제이	17. 12. 21	15세	5	387,000	72	31
211	정사 : 바람난 유부녀들 – 감독판	박범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12. 24	청불	1	3,000	1	1
212	불륜의 시대 – 감독판	박은수	㈜케이알씨지	㈜케이알씨지	17. 12. 26	청불	21	754,000	150	21

3. 2017년 국내 영화 시상식 주요부문 수상실적

시상식	개최 시기	수상부문	수상내역	제작사	배급사
백상 예술대상	5/3	영화 대상	박찬욱 《아가씨》	유한회사아가씨에프에스, ㈜모호필름, ㈜용필름	CJ E&M
		영화 작품상	〈곡성〉	㈜사이드미러, 이십세기폭스인터내셔널프로덕션	폭스
		영화 감독상	김지운 《밀정》	㈜다크서클픽처스,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영화사하얼빈	워너
		영화 시나리오상	윤가은 《우리들》	㈜아토	㈜엣나인필름
		영화 신인감독상	연상호 《부산행》	㈜영화사레드피터	NEW
황금 촬영상	8/25 ~27	작품상	〈밀정〉	㈜다크서클픽처스,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영화사하얼빈	워너
		감독상	허진호 《덕혜옹주》	㈜하이브미디어코프, ㈜영화사호필름, ㈜디씨지플러스	롯데
		촬영상–금상	김기태 《사랑하기 때문에》	㈜에이디사공육	NEW
		촬영상–은상	최찬규 《기억의 소리》	이공희필름	이공희필름, 시네마뉴원
		촬영상–동상	김병정 《혼자》	㈜인디스토리	㈜엠라인디스트리뷰션
		신인촬영감독상	안성균 《두 번째 스물》	민영화사	㈜리틀빅픽쳐스
한국 영화평론가 협회상	11/9	최우수 작품상	〈남한산성〉	㈜싸이런픽쳐스	CJ E&M
		감독상	황동혁 《남한산성》	㈜싸이런픽쳐스	CJ E&M
		촬영상	김지용 《남한산성》	㈜싸이런픽쳐스	CJ E&M
		각본상	황성수 《박열》	㈜박열문화전문회사	메가박스
		신인감독상	강윤성 《범죄도시》	㈜홍필름,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청룡 영화상	11/25	최우수 작품상	〈택시운전사〉	더램프㈜	쇼박스
		감독상	김현석 《아이 캔 스피크》	㈜영화사시선, ㈜명필름	롯데
		촬영조명상	박정우, 조형래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	씨제이이앤엠㈜, 플룩스픽쳐스㈜	CJ E&M
		각본상	황동혁 《남한산성》	㈜싸이런픽쳐스	CJ E&M
		신인감독상	이현주 《연애담》	한국영화아카데미	㈜인디플러그
대종상 영화제	10/25	최우수 작품상	〈택시운전사〉	더램프㈜	쇼박스
		감독상	이준익 《박열》	㈜박열문화전문회사	메가박스
		촬영상	박정훈 《악녀》	㈜앞에있다	NEW
		시나리오상	한재림 《더 킹》	㈜우주필름	NEW
		신인감독상	엄태화 《가려진 시간》	㈜바른손이앤에이	쇼박스
한국 영화제작가 협회상	12/29	작품상	〈남한산성〉	㈜싸이런픽쳐스	CJ E&M
		감독상	이준익 《박열》	㈜박열문화전문회사	메가박스
		각본상	유승희 《아이 캔 스피크》	㈜영화사시선, ㈜명필름	롯데
		촬영상	조형래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	씨제이이앤엠㈜, 플룩스픽쳐스㈜	CJ E&M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수			스크린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전국	417	452	35	2,575	2,766	191	5.0	5.34	0.4
서울특별시	83	86	3	533	555	22	5.4	5.6	0.3
서울 종로구	9	9	0	31	31	0	20.3	20.0	-0.3
서울 중구	8	9	1	38	44	6	30.3	35.0	4.7
서울 용산구	2	2	0	19	28	9	8.3	12.2	4.0
서울 성동구	1	1	0	10	10	0	3.3	3.3	-0.1
서울 광진구	4	4	0	33	33	0	9.2	9.2	0.0
서울 동대문구	2	2	0	15	15	0	4.2	4.3	0.1
서울 중랑구	2	2	0	14	14	0	3.4	3.4	0.0
서울 성북구	3	3	0	9	9	0	2.0	2.0	0.0
서울 강북구	2	3	1	15	21	6	4.6	6.5	1.9
서울 도봉구	-	1	1	-	5	5	-	1.5	1.5
서울 노원구	4	5	1	26	27	1	4.6	4.9	0.3
서울 은평구	4	4	0	24	24	0	4.9	4.9	0.0
서울 서대문구	4	4	0	21	21	0	6.7	6.7	0.0
서울 마포구	6	5	-1	29	27	-2	7.6	7.2	-0.4
서울 양천구	2	2	0	17	17	0	3.6	3.6	0.0
서울 강서구	3	4	1	21	27	6	3.5	4.5	1.0
서울 구로구	3	2	-1	25	15	-10	6.0	3.7	-2.3
서울 금천구	2	2	0	14	14	0	5.9	6.0	0.0
서울 영등포구	3	3	0	28	28	0	7.6	7.6	0.0
서울 동작구	2	2	0	8	8	0	2.0	2.0	0.0
서울 관악구	2	2	0	13	13	0	2.6	2.6	0.0
서울 서초구	2	2	0	12	12	0	2.7	2.7	0.0
서울 강남구	7	7	0	47	48	1	8.3	8.6	0.3
서울 송파구	3	3	0	38	38	0	5.8	5.7	-0.1
서울 강동구	3	3	0	26	26	0	5.9	6.0	0.1
부산광역시	27	30	3	200	216	16	5.7	6.2	0.5
부산 중구	4	5	1	23	29	6	50.9	65.6	14.7
부산 서구	-	-	0	-	-	0	-	-	0.0
부산 동구	-	-	0	-	-	0	-	-	0.0
부산 영도구	-	-	0	-	-	0	-	-	0.0
부산 부산진구	5	5	0	40	40	0	10.6	10.8	0.1
부산 동래구	2	2	0	18	18	0	6.6	6.6	0.0
부산 남구	2	2	0	9	9	0	3.2	3.3	0.1
부산 북구	2	2	0	16	16	0	5.2	5.3	0.1
부산 해운대구	7	6	-1	59	47	-12	14.1	11.4	-2.6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수			스크린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부산 사하구	–	1	1	–	7	7	–	2.1	2.1
부사 금정구	2	2	0	14	14	0	5.7	5.7	0.0
부산 강서구	–	–	0	–	–	0	–	–	0.0
부산 연제구	1	1	0	8	8	0	3.9	3.9	0.0
부산 수영구	–	–	0	–	–	0	–	–	0.0
부산 사상구	1	1	0	7	7	0	3.0	3.1	0.0
부산 기장군	1	3	2	6	21	15	3.8	13.0	9.2
대구광역시	***23***	*23*	*0*	***143***	*143*	*0*	*5.8*	*5.8*	*0.0*
대구 중구	9	9	0	51	51	0	64.0	64.6	0.6
대구 동구	3	3	0	19	19	0	5.4	5.4	0.0
대구 서구	1	1	0	7	7	0	3.5	3.6	0.1
대구 남구	–	–	0	–	–	0	–	–	0.0
대구 북구	4	4	0	29	29	0	6.6	6.6	0.0
대구 수성구	3	3	0	15	15	0	3.4	3.4	0.1
대구 달서구	3	3	0	22	22	0	3.7	3.8	0.1
대구 달성군	–	–	0	–	–	0	–	–	0.0
인천광역시	***23***	*25*	*2*	***146***	*161*	*15*	*5.0*	*5.5*	*0.5*
인천 중구	2	2	0	7	7	0	6.1	5.9	–0.1
인천 동구	1	1	0	1	1	0	1.4	1.4	0.0
인천 남구	4	4	0	24	24	0	5.8	5.7	0.0
인천 연수구	2	3	1	15	23	8	4.6	6.9	2.3
인천 남동구	4	4	0	36	36	0	6.8	6.7	–0.1
인천 부평구	4	4	0	30	30	0	5.5	5.6	0.1
인천 계양구	1	1	0	8	8	0	2.4	2.5	0.0
인천 서구	4	5	1	24	31	7	4.7	6.0	1.3
인천 강화군	1	1	0	1	1	0	1.5	1.5	0.0
인천 옹진군	–	–	0	–		0	–	–	0.0
광주광역시	***13***	*15*	*2*	***106***	*112*	*6*	*7.2*	*7.7*	*0.4*
광주 동구	4	6	2	25	31	6	26.1	32.5	6.4
광주 서구	3	3	0	29	29	0	9.4	9.4	0.1
광주 남구	–	–	0	–	–	0	–	–	0.0
광주 북구	2	2	0	17	17	0	3.9	3.9	0.0
광주 광산구	4	4	0	35	35	0	8.7	8.7	0.0
대전광역시	***10***	*10*	*0*	***66***	*66*	*0*	*4.4*	*4.4*	*0.0*
대전 동구	3	3	0	15	15	0	6.4	6.5	0.1
대전 중구	1	1	0	9	9	0	3.6	3.6	0.1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수			스크린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대전 서구	4	4	0	32	32	0	6.5	6.6	0.0
대전 유성구	2	2	0	10	10	0	2.9	2.9	0.0
대전 대덕구	–	–	0	–	–	0	–	–	0.0
울산광역시	***6***	*6*	*0*	***38***	*38*	*0*	*3.2*	*3.3*	*0.0*
울산 중구	2	2	0	15	15	0	6.2	6.3	0.1
울산 남구	2	2	0	20	20	0	5.9	6.0	0.1
울산 동구	1	1	0	2	2	0	1.1	1.2	0.0
울산 북구	–	–	0	–	–	0	–	–	0.0
울산 울주군	1	1	0	1	1	0	0.5	0.5	0.0
세종특별자치시	***2***	*2*	*0*	***12***	*12*	*0*	***4.9***	*4.3*	*-0.7*
세종시	2			12			4.9		0.0
경기도	***92***	*100*	*8*	***588***	*638*	*50*	*4.6*	*5.0*	*0.3*
경기 수원시	8	8	0	59	58	–1	4.9	4.8	–0.1
경기 성남시	7	8	1	47	54	7	4.8	5.6	0.8
경기 의정부시	4	4	0	30	30	0	6.8	6.8	0.0
경기 안양시	6	6	0	45	45	0	7.5	7.7	0.1
경기 부천시	7	7	0	51	51	0	6.0	6.0	0.0
경기 광명시	3	3	0	19	19	0	5.6	5.7	0.1
경기 평택시	4	5	1	26	32	6	5.5	6.6	1.1
경기 동두천시	2	2	0	3	3	0	3.1	3.1	0.0
경기 안산시	6	6	0	39	39	0	5.7	5.8	0.1
경기 고양시	8	9	1	63	72	9	6.1	6.9	0.9
경기 과천시	–	–	0	–	–	0	–	–	0.0
경기 구리시	2	2	0	14	14	0	7.2	7.0	–0.2
경기 남양주시	4	4	0	18	19	1	2.7	2.9	0.1
경기 오산시	2	2	0	12	12	0	5.8	5.6	–0.1
경기 시흥시	2	4	2	12	24	12	3.0	5.7	2.7
경기 군포시	2	2	0	13	13	0	4.6	4.6	0.1
경기 의왕시	–	–	0	–		0	–	–	0.0
경기 하남시	1	1	0	11	11	0	5.2	4.7	–0.5
경기 용인시	3	3	0	24	24	0	2.4	2.4	0.0
경기 파주시	6	7	1	33	40	7	7.7	9.1	1.5
경기 이천시	1	1	0	9	9	0	4.3	4.2	–0.1
경기 안성시	1	1	0	2	2	0	1.1	1.1	0.0
경기 김포시	4	4	0	15	15	0	4.1	3.8	–0.3
경기 화성시	4	5	1	29	30	1	4.5	4.3	–0.2
경기 광주시	1	2	1	3	11	8	0.9	3.2	2.3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수			스크린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경기 양주시	2	2	0	7	7	0	3.4	3.3	-0.1
경기 포천시	-		0	-	-	0	-	-	0.0
경기 여주시	1	1	0	3	3	0	2.7	2.7	0.0
경기 연천군	-	-	0	-	-	0	-	-	0.0
경기 가평군	-	-	0	-	-	0	-	-	0.0
경기 양평군	1	1	0	1	1	0	0.9	0.9	0.0
강원도	***17***	***19***	***2***	***83***	*101*	*18*	*5.4*	*6.5*	*1.2*
강원 춘천시	2	3	1	18	25	7	6.4	8.9	2.5
강원 원주시	4	5	1	32	42	10	9.5	12.3	2.8
강원 강릉시	1	1	0	8	8	0	3.7	3.7	0.0
강원 동백시	1	1	0	5	5	0	5.4	5.4	0.0
강원 태백시	-	-	0	-		0	-		0.0
강원 속초시	1	1	0	5	5	0	6.1	6.1	0.0
강원 삼척시	1	1	0	2	2	0	2.9	2.9	0.0
강원 홍천군	2	2	0	3	3	0	4.3	4.3	0.0
강원 횡성군	-	-	0	-		0	-		0.0
강원 영월군	1	1	0	2	2	0	5.0	5.0	0.0
강원 평창군	2	1	-1	3	2	-1	6.9	4.6	-2.3
강원 정선군	-	1	1	-	2	2	-	5.2	5.2
강원 철원군	1	1	0	2	2	0	4.2	4.2	0.1
강원 화천군	1	1	0	3	3	0	11.4	11.5	0.1
강원 양구군	-	-	0	-	-	0	-	-	0.0
강원 인제군	-	-	0	-	-	0	-	-	0.0
강원 고성군	-	-	0	-	-	0	-	-	0.0
강원 양양군	-	-	0	-	-	0	-	-	0.0
충청북도	***13***	*13*	*0*	***94***	*94*	*0*	*5.9*	*5.9*	*0.0*
충북 청주시	9	1	0	71	10	0	8.5	4.8	0.0
충북 충주시	1	1	0	10	7	0	4.8	5.1	0.0
충북 제천시	1	9	0	7	71	0	5.1	8.5	0.0
충북 보은군	-	-	0	-	-	0	-	-	0.0
충북 옥천군	-	-	0	-	-	0	-	-	0.0
충북 영동군	1	1	0	2	2	0	4.0	4.0	0.0
충북 증평군	-	1	0	-	4	0	-	5.4	-0.3
충북 진천군	1	-	0	4	-	0	5.7	-	0.0
충북 괴산군	-	-	0	-	-	0	-	-	0.0
충북 음성군	-	-	0	-	-	0	-	-	0.0
충북 단양군	-	-	0	-	-	0	-	-	0.0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수			스크린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충청남도	***18***	*21*	*3*	***95***	*103*	*8*	*4.5*	*4.9*	*0.3*
충남 당진시	3	6	0	9	40	0	5.4	6.3	–0.1
충남 천안시	6	1	0	40	7	0	6.5	6.5	0.1
충남 공주시	1	–	–1	7	–	–5	6.4	0.0	–4.8
충남 보령시	1	1	0	5	6	0	4.8	1.9	–0.1
충남 아산시	1	2	0	6	15	0	2.0	8.7	0.0
충남 서산시	2	1	0	15	5	0	8.8	4.1	0.0
충남 논산시	1	–	0	5	–	0	4.1	–	0.0
충남 계룡시	–	3	0	–	9	0	–	5.4	0.0
충남 금산군	–	–	0	–	–	0	–	–	0.0
충남 부여군	1	2	1	2	4	2	2.8	5.8	2.9
충남 서천군	1	1	0	2	2	0	3.6	3.6	0.1
충남 청양군	–	–	0	–	–	0	–	–	0.0
충남 홍성군	1	2	1	4	11	7	4.0	10.8	6.8
충남 예산군	–	1	1	–	2	2	–	2.5	2.5
충남 태안군	–	1	1	–	2	2	–	3.1	3.1
전라북도	***24***	*24*	*0*	***107***	*107*	*0*	*5.7*	*5.8*	*0.0*
전북 전주시	10	10	0	60	60	0	9.2	9.2	0.0
전북 군산시	2	2	0	12	12	0	4.3	4.4	0.0
전북 익산시	1	1	0	9	9	0	3.0	3.0	0.0
전북 정읍시	1	1	0	4	4	0	3.5	3.5	0.0
전북 남원시	1	1	0	4	4	0	4.8	4.8	0.1
전북 김제시	1	1	0	2	2	0	2.3	2.3	0.0
전북 완주군	1	1	0	2	2	0	2.1	2.1	0.0
전북 진안군	1	1	0	2	2	0	7.7	7.6	–0.1
전북 무주군	1	1	0	2	2	0	8.0	8.1	0.0
전북 장수군	1	1	0	2	2	0	8.5	8.7	0.2
전북 임실군	1	1	0	2	2	0	6.6	6.6	0.0
전북 순창군	1	1	0	2	2	0	6.7	6.7	0.1
전북 고창군	1	1	0	2	2	0	3.3	3.3	0.0
전북 부안군	1	1	0	2	2	0	3.5	3.6	0.1
전라남도	***12***	*18*	*6*	***68***	*97*	*29*	*3.6*	*5.1*	*1.5*
전남 목포시	4	4	0	23	22	–1	9.7	9.4	–0.3
전남 여수시	2	3	1	16	24	8	5.5	8.4	2.8
전남 순천시	3	3	0	24	24	0	8.6	8.6	0.0
전남 나주시	–	1	1	–	6	6	–	5.4	5.4
전남 광양시	–	2	2	–	11	11	–	7.1	7.1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수			스크린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전남 담양군	–	–	0	–	–	0	–	–	0.0
전남 곡성군	–	–	0	–	–	0	–	–	0.0
전남 구례군	1	1	0	2	2	0	7.3	7.3	0.0
전남 고흥군	1	1	0	1	2	1	1.5	3.0	1.5
전남 보성군	–	–	0	–	–	0	–	0.0	0.0
전남 화순군	–	–	0	–	–	0	–	0.0	0.0
전남 장흥군	1	1	0	2	2	0	4.9	5.0	0.1
전남 강진군	–	–	0	–	–	0	–	–	0.0
전남 해남군	–	–	0	–	–	0	–	–	0.0
전남 영암군	–	–	0	–	–	0	–	–	0.0
전남 무안군	–	–	0	–	–	0	–	–	0.0
전남 함평군	–	–	0	–	–	0	–	–	0.0
전남 영광군	–	–	0	–	–	0	–	–	0.0
전남 장성군	–	–	0	–	–	0	–	–	0.0
전남 완도군	–	1	1	–	2	2	–	3.8	3.8
전남 진도군	–	1	1	–	2	2	–	6.3	6.3
전남 신안군	–	–	0	–	–	0	–	–	0.0
경상북도	***21***	*26*	*5*	***110***	*129*	*19*	*4.1*	*4.8*	*0.7*
경북 포항시	3	5	2	23	30	7	4.5	5.8	1.4
경북 경주시	2	3	1	5	11	6	1.9	4.3	2.3
경북 김천시	2	2	0	9	9	0	6.3	6.3	0.0
경북 안동시	3	3	0	12	12	0	7.1	7.2	0.1
경북 구미시	5	6	1	41	46	5	9.8	10.9	1.1
경북 영주시	1	1	0	1	1	0	0.9	0.9	0.0
경북 영천시	–	1	1	–	1	1	–	1.0	1.0
경북 상주시	–	–	0	–	–	0	–	–	0.0
경북 문경시	1	1	0	3	3	0	4.0	4.1	0.1
경북 경산시	2	2	0	13	13	0	5.0	5.0	0.0
경북 군위군	–	–	0	–	–	0	–	–	0.0
경북 의성군	–	–	0	–	–	0	–	–	0.0
경북 청송군	–	–	0	–	–	0	–	–	0.0
경북 영양군	1	1	0	1	1	0	5.6	5.7	0.1
경북 영덕군	–	–	0	–	–	0	–	–	0.0
경북 청도군	–	–	0	–	–	0	–	–	0.0
경북 고령군	1	1	0	2	2	0	5.8	5.9	0.1
경북 성주군	–	–	0	–	–	0	–	–	0.0

4. 2017년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수			스크린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경북 칠곡군	–	–	0	–	–	0	–	–	0.0
경북 예천군	–	–	0	–	–	0	–	–	0.0
경북 봉화군	–	–	0	–	–	0	–	–	0.0
경북 울진군	–	–	0	–	–	0	–	–	0.0
경북 울릉군	–	–	0	–	–	0	–	–	0.0
경상남도	***27***	*29*	*2*	***153***	*162*	*9*	*4.5*	*4.8*	*0.3*
경남 창원시	10	3	–1	59	24	–6	5.5	6.9	–1.7
경남 진주시	4	2	1	30	13	6	8.7	9.6	4.5
경남 통영시	1	2	1	7	7	3	5.1	6.1	2.6
경남 사천시	1	4	1	4	28	6	3.5	5.3	1.1
경남 김해시	3	1	0	22	2	0	4.2	1.9	0.0
경남 밀양시	1	2	0	2	13	0	1.8	5.1	0.1
경남 거제시	2	2	0	13	11	0	5.1	3.2	–0.2
경남 양산시	2	10	0	11	59	0	3.5	5.6	0.0
경남 의령군	–	–	0	–	–	0	–	–	0.0
경남 함안군	–	–	0	–	–	0	–	–	0.0
경남 창녕군	–	–	0	–	–	0	–	–	0.0
경남 고성군	–	–	0	–	–	0	–	–	0.0
경남 남해군	1	1	0	1	1	0	2.2	2.2	0.0
경남 하동군	–	–	0	–	–	0	–	–	0.0
경남 산청군	–	–	0	–	–	0	–	–	0.0
경남 함양군	–	–	0	–	–	0	–	–	0.0
경남 거창군	1	1	0	2	2	0	3.2	3.2	0.0
경남 합천군	1	1	0	2	2	0	4.2	4.3	0.1
제주특별자치도	***6***	*5*	*-1*	***33***	*32*	*-1*	*5.1*	*4.9*	*-0.3*
제주 제주시	5	4	–1	27	26	–1	5.7	5.4	–0.3
제주 서귀포시	1	1	0	6	6	0	3.5	3.4	–0.1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